

석사학위논문

제주 무가 중 ‘삼공본풀이’를 활용한
음악극 지도방안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음악교육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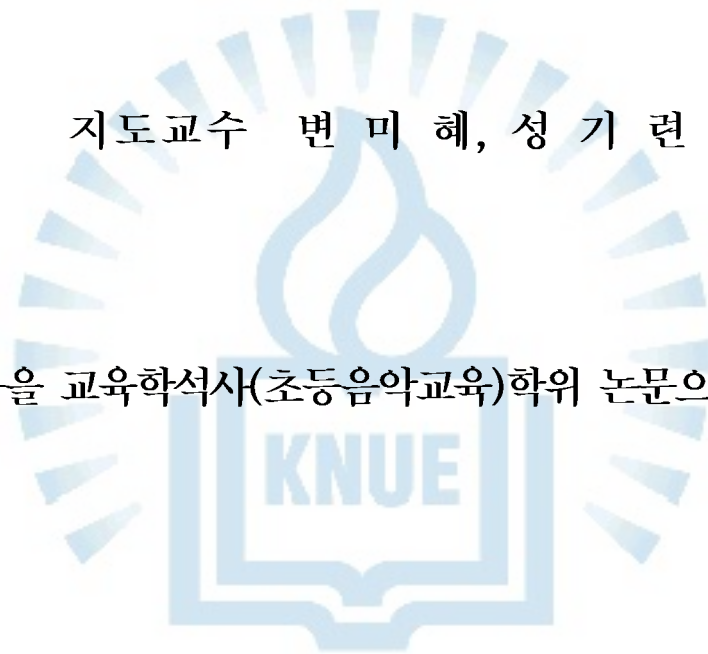
김 명 희

2013년 2월

제주 무가 중 ‘삼공본풀이’를 활용한 음악극 지도방안

지도교수 변 미 혜, 성 기 련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초등음악교육)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음악교육전공

김 명 희

2013년 2월

김 명 희 의

교육학석사(초등음악교육)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13년 2월

목 차

논문요약	v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3. 연구의 제한점	4
II. 연구의 기초	5
1. 선행연구의 고찰	5
2. 교과 간 통합운영의 필요성	8
3.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9
4. 제주 무가의 고찰	18
5. 삼공본풀이와 창의·인성교육	35
III. 지도단계 및 주제 선정	37
1. 지도단계 선정	37
2. 지도단계별 학습주제 선정	39
IV. 음악극 지도방안	42
1. 삼공본풀이 이해하기	42
2. 삼공본풀이 익히기	61
3. 제주 연물 연주하기	73
4. 음악극 만들기	85
V. 결론 및 제언	101
참고문헌	104
ABSTRACT	107
부록	110

표 목 차

<표 1> 5~6학년군 내용 체계표	10
<표 2> 5~6학년군 성취기준 예시	11
<표 3> 제주무가를 활용한 음악극지도 성취기준	13
<표 4> 음악극 지도를 위한 5학년 교과서 내용 분석	15
<표 5> 음악극 지도를 위한 6학년 교과서 내용 분석	16
<표 6> 규모에 따른 제주 곳의 분류	20
<표 7> 제주 큰곳의 제차와 본풀이 순서	21
<표 8> 열두본풀이 주요내용	22
<표 9> 무가의 분류	25
<표 10> 음악극 만들기 수업 흐름도	37
<표 11> 교과 통합 지도 단계 설정	38
<표 12> 지도 단계별 학습 주제	39
<표 13> 교과간 통합 운영 계획안	40
<표 14> ‘삼공본풀이 이해하기’ 수업계획	42
<표 15> ‘삼공본풀이 노래 익히기’ 수업계획	61
<표 16> ‘제주 연물 연주하기’ 수업계획	74
<표 17> 제주 연물의 종류	78
<표 18> ‘음악극 만들기’ 수업계획	85

학 습 자 료 목 차

<학습자료 1> 제주 큰 굿의 제차과정	45
<학습자료 2> 신의 탄생 노래, 무가	46
<학습자료 3> 삼공본풀이 굿본	48
<학습자료 4> 굿본 파악 학습지	50
<학습자료 5> 삼공본풀이 감상학습지	52
<학습자료 6> 그림보고 이야기 꾸미기	54
<학습자료 7> 가문장아기 이야기 텍스트자료	55
<학습자료 8> 내용파악 학습지	58
<학습자료 9> 가문장아기 이야기 정리 학습지	60
<학습자료 10> 가사 바꾸기를 위한 정간보	68
<학습자료 11> 전상놀이를 위한 학습지	71
<학습자료 12> 가사 바꾸기 정간보	72
<학습자료 13> 가사 바꾸기 예시안	72
<학습자료 14> 져부기 삼형제	75
<학습자료 15> 제주 연물 바로알기	79
<학습자료 16> 제주 연물 치는 방법	81
<학습자료 17> 극본으로 바꾼 예시안	87
<학습자료 18> 음악극 대본 예시안	90
<학습자료 19> 신체표현 만들기 계획서	94
<학습자료 20> 기메의 종류와 역할	97
<학습자료 21> 기메 중 살장 만들기	98

악 보 목 차

<악보 1> 일반 덕담창	33
<악보 2> 삼공본풀이 덕담창	34
<악보 3> 가문장아기 탄생	62
<악보 4> 누계 덕에 먹느냐	63
<악보 5> 아버지 어머니 덕	63
<악보 6> 마파는 소리	64
<악보 7> 금 발견	64
<악보 8> 마통이	65
<악보 9> 덕담창	67
<악보 10> 전상풀이	70
<악보 11> 기본장단	84
<악보 12> 늦은석	84
<악보 13> 중석	84

사 진 목 차

<사진 1> 당클	19
<사진 2> 제상차림	19
<사진 3> 제주큰굿	19
<사진 4> 초감제	19

논 문 요 약

제주 무가 중 ‘삼공본풀이’를 활용한 음악극 지도방안

김 명 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음악교육 전공

(지도교수 변 미 혜, 성 기 련)

제주는 육지와 떨어져 제주만의 자연적·역사적·문화적 환경을 극복하고 살아온 제주 사람들의 삶의 대응 방식과 생활인식 덕분에 타 지역과는 다른 독특한 문화를 간직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제주 곳곳에는 오랜 세월 험난한 자연환경과 외부의 압력에 맞서 고된 싸움을 치르며 살아온 제주인의 강한 정신이 잘 살아있다. 또한 제주 곳은 제주인의 삶의 일부이며 제주 사람들의 인생관, 우주관, 자연관을 비롯한 삶의 지혜가 담겨 있어 공동체 문화 복원과 제주의 정체성 구현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제주 문화의 정수이자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특히 제주큰굿은 우리나라 굿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굿의 춤, 노래와 사설 모두가 문화재적 가치가 높아 전승보전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제주큰굿에서 제차되는 본풀이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주도만의 독특한 음악적 특성이 살아 있어서 문학적으로나 음악적으로 학교 교육현장에서 가르치기에 적합한 제재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제주 곳은 특정 종교의 산물이라는 선입견으로 인하여 교육현장에서 제재곡으로 가르쳐진 예가 거의 없었다.

본고에서는 제주큰굿에서 제차되는 본풀이의 교육적 가치에 주목하여 어떻

게 학생들에게 가르칠 것이며, 어떻게 그 가치를 인식시킬 것인지에 중점 과제를 두고 삼공본풀이를 음악극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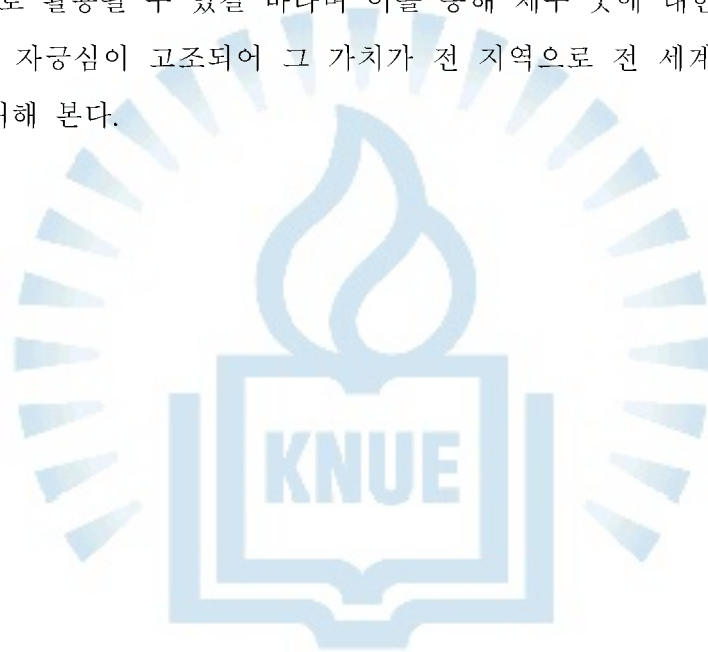
삼공본풀이는 ‘전상(전생의 팔자 또는 업보)’ 차지 신의 신화를 노래하며 나쁜 ‘전상’을 제거하고 좋은 ‘전상’으로 행운이 오도록 기원하는 제차이다. 삼공본풀이라는 서사무가보다는 ‘가문장아기’ 이야기로 많이 알려져 있다. 가문장아기 이야기는 ‘내 복으로 산다’라는 말로 아버지의 노여움을 사고 쫓겨난 가문장아기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자로 살게 되며, 장님이 된 부모님을 찾아 눈을 뜨게 해드린다는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 역경을 극복하고 운명을 바꾸는 가문장의 강인한 의지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판단능력을 길러줄 수 있으며, 약자와 타인에 대한 배려와 깊은 효심은 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해준다. 이를 통해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창의·인성교육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며,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접하는 기회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6학년에서 지도할 수 있도록 삼공본풀이를 활용한 음악극 지도방안을 다음과 같이 모색해 보았다. 먼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과 교육과정과 5~6학년 교과를 분석하여 삼공본풀이 음악극 지도와 관련된 지도요소를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음악극 만들기 지도방안을 크게 4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 맞는 학습 주제를 선정하였다.

첫째, 삼공본풀이 이해하기 단계에서는 제주의 곳의 가치를 느끼고, 삼공본풀이를 감상하며 내용을 파악하는 활동을 통해 삼공본풀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다. 둘째, 삼공본풀이 노래 익히기 단계에서는 삼공본풀이의 주요가락을 배우고 부르도록 하였다. 또한 간단한 전상놀이를 통해 학생들이 처한 어려움 등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셋째, 제주 연물 연주하기 단계에서는 제주 연물의 유래를 알아보고 장단을 연주해 보게 함으로써 제주 고유의 장단을 익히도록 하였다. 넷째, 음악극 만들기 단계에서는 가문장아기 이야기를 극본으로 만들고 노래와 효과음, 신체표현 등을 넣어 음악극으로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어린이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내용과 상상력을 담고 있는 작품인 삼공본풀이를 음악극의 소재로 삼아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써 창의적인 표현 능력과 인성을 기르고 제주 곁의 가치를 인식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제주큰곶의 본풀이의 내용은 내 어머니, 내 할머니의 이야기이기에 제주뿐만 아니라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 또한 놀이 형식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민속놀이로서 개발할 내용도 많이 있다. 본 연구가 실제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길 바라며 이를 통해 제주 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변화되고 자긍심이 고조되어 그 가치가 전 지역으로 전 세계로 널리 퍼질 수 있길 기대해 본다.



※ 이 논문은 2013년 2월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석사(초등 음악교육) 학위 논문임.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민족 주체성을 함양하고 민족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국악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국악 교육은 전문교육도 중요하나 유아교육에서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우리 문화 전체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¹⁾ 이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에도 국악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국악교육 중에서도 민족의 정서를 가장 솔직하고 소박하게 담고 있는 민요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불렸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가치관과 삶에 대한 태도가 반영되어 있으며,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어서 음악적 특징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가치까지 지도할 수 있는 제재이다.²⁾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국악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굿 음악 역시 종교의례적인 성격과 함께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원형적 모습이 담겨져 있어 전통에 대한 소중함과 문화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굿 음악은 악·가·무가 어우러진 종합 예술적 성격이 강하다. 음악을 중심으로 언어적 요소, 무용적 요소, 조형 예술적 요소 등이 종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때론 드라마적 요소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굿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인 종합성과 예술성을 강조하여 국악수업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굿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춤이나 노래, 가사 등

1) 변미혜, “21세기 미래 사회에서의 국악교육의 역할” 『학술세미나 논문집』 제5권 (청원: 한국교원대학교 예술교육연구소, 1997), 64쪽.

2) 성기련,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민요 관련 지도내용 고찰” 『한국민요학』 제25권 (서울: 한국민요학회, 2009), 188쪽.

이 문학적 가치가 있어 제주 민중예술의 종합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주큰굿이다. 제주큰굿은 한국 고대 문화의 원류를 고스란히 보존한 국내에서 규모가 가장 방대한 굿으로 제주의 탄생과정, 제주의 1만 8천신의 위상과 기능, 제주의 수렵, 어로, 축산, 농경문화에서 신과 인간의 관계, 신화, 전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제주큰굿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제주큰굿 내에 나오는 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민족도 전 세계에 보편하는 신화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제주큰굿에 나오는 신화 속에는 천지창조 신화, 인간 탄생을 담당하는 신화, 사(死)의 기원을 설명하는 신화, 농경기원에 관한 신화 등등 전 세계에 보편하는 신화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신화가 없는 민족이 아니라 오히려 완벽하게 짜여 있는 많은 신화를 가지고 있는, 또는 가지고 있었던 민족임을 알 수 있게 된다.³⁾ 이런 제주큰굿의 가치를 학생들에게 가르침으로 인해 학생들은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굿을 사라져야 할 미신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으며 종교적인 선입견으로 인해 거의 학교에서는 가르쳐 지고 있지 않다.

제주에서는 신들의 이야기를 신화나 서사무가로 부르기 보다는 본풀이라고 부른다. 이 본풀이에는 민족 문화의 보편성과 지역 문화의 특수성이 내재되어 있다. 특히 제주큰굿에서 제창되는 본풀이는 서사시이기 때문에 예술로서의 미적인 가치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그 속에 제주인의 상상력과 문화, 제주사회의 내재적인 규율과 법칙, 가치체계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풀이를 통한 문학 및 음악 교육이 함께 이루어 질 때 학생들은 전승현장과 연행 현장 속에서 살아 있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와 제주사람들의 미의식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현재 본풀이를 통한 문학교육에는 관심이 조금씩 증대되고 있으나 음악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진도셋김굿이나 동해안별신굿이 교과서에서 조금 씩 다루어지고 있을 뿐 우리나라 굿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는 제주큰

3) 이수자,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9)

곳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 없다. 제주큰곳에는 12개의 본풀이가 제차된다. 각각의 본풀이는 모두 흥미로운 이야기로 전개되고 있어 문학적으로도 음악적으로도 가르칠 만한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내용 전개 또한 흥미롭고 재미가 있어 훌륭한 음악극 소재도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초등 음악교과서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음악극 소재는 대부분이 창작 동화이거나 전래동화인 경우가 많다. 주인공 또한 대부분이 남자이고 여자는 수동적 인물로 다루어져 자칫하면 고정된 성역할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제주에는 고유의 악기와 장단이 존재한다. 다른 지역의 사물악기와 비슷한 것 같으나 전혀 다른 제주 연물과 장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학생이 많으며 여전히 풍물악기를 사용해 풍물장단을 익힌다. 지역의 고유한 악기와 장단을 익히는 활동 또한 우리 문화의 가치를 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학교 현장에서 반드시 가르쳐 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여 학생들에게 좀 더 다양한 국악곡을 접해 볼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음악적 경험과 음악적 신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지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2본풀이 중에서도 삼공본풀이는 ‘내 복으로 산다’라는 말로 아버지의 노여움을 사고 결국 쫓겨난 가문장아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자로 살게 되며, 장님이 된 부모님을 찾아 눈을 뜨게 해드리고 전상신으로 좌정하게 된다는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 주인공 가문장아기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강인한 의지와 올바른 가치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약자와 타인에 의한 배려와 효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삼공본풀이를 활용하여 음악극 지도를 한다면 요즘 강조되고 있는 창의·인성교육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효과음이나 반주음악으로 제주 연물을 사용한다면 제주 고유의 장단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 큰곳 중에서도 삼공본풀이를 중심으로 초등학교 5~6학년 수준에서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음악극 만들기 지도방안을 모

색해 보고자 한다. 특히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악곡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수준, 흥미도, 지역적 현실을 고려하는 교수법과 가(歌)·무(舞)·악(樂) 통합적 지도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제주큰굿과 삼공본풀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충분히 전달하면서 학생들이 굿이라는 음악적 장르를 낯설어 하지 않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단계적 통합적 지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큰굿에서 제차되는 본풀이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회적 가치를 알아본다.

둘째, 관련 문헌 및 논문을 연구 조사하여 제주 굿과 삼공본풀이의 특징을 고찰하고, 교육적 활용 가치를 찾아본다.

셋째, 삼공본풀이 중에서 학생들에게 지도할 가치가 있는 주요 가락을 추출하여 채보하고 음악극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교과 간 통합을 바탕으로 음악극 만들기를 위한 지도단계 및 지도내용을 선정하고 단계적인 지도방안을 모색한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둔다.

첫째, 제주큰굿에서 분리워진 열두본풀이⁴⁾ 중에서 삼공본풀이⁵⁾를 중심으로

지도 내용을 선정한다.

둘째, 본 연구의 삼공본풀이 자료는 국립국악원에서 2001년 제작된 <한국의 굿 No.4 - 제주 칠머리당굿> 음원을 참고하였다.

셋째, 이 연구는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지도 방안을 마련한다.

넷째, 교과 간 통합을 위한 5~6학년 교과서 분석 시 음악교과서는 태성과 금성교과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다섯째, 2009 개정 교육과정⁴⁾이 고시되었으나 2013년부터 시행되므로 본고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 및 2007개정 교육과정 적용 교과서를 중심으로 지도 요소를 선정하였다.

II. 연구의 기초

1. 선행연구 고찰

제주 무가의 음악극 지도 방안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주 굿’ 및 ‘서사무가(본풀이)’ 관련 연구와 ‘음악극’ 지도 방안 관련 연구를 살펴보았다.

강영아⁶⁾는 초등음악교육에서 좀 더 다양한 국악가창교육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제주무악을 초등가창교재로 개발하여 그 지도를 통한 다양한 음악적 경험과 음악성 신장을 모색하였다. 음악극 지도 방안 마련 시 제주무가 선율을 선정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4) 천지왕본풀이,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 삼공본풀이, 세경본풀이, 강림차사본풀이, 문전본풀이, 맹감본풀이, 삼승할망본풀이, 칠성본풀이, 지장본풀이, 영감본풀이-일반신 열두본풀이는 제주도내 어디서든 제주도 심방이면 누구나 다 알고 부르는 서사 무가로 가락이나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가창되기는 하지만 전체가 설화구조를 이루고 있다.

5) 국립국악원, <한국의 굿 No.4 - 제주 칠머리당굿>, 2001.

6) 강영아, “제주무악의 초등가창교재 개발 연구” (서울: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고순덕⁷⁾은 삼공본풀이 <가쁜장아기>를 회곡화하는 과정을 연구하였다. 기존의 아동극이 남성 중심의 편향된 성역할을 재현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성적 소외와 지역적 소외를 극복 할 수 있는 회곡창작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고현민⁸⁾은 요왕맞이 마당의 음악에 주목하여 연구함으로써 무가와 사설, 연물 장단, 굿의 연행 과정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김형진⁹⁾은 칠머리당 영등굿의 제차별 진행과정과 음악 특성 및 장단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제주 무가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안효정¹⁰⁾은 제주의 무속 신화 <삼공본풀이>의 서사 단락을 분석하고, 그것을 구조화하여 두 가지의 의미, 가족 공동체와 전상신에 대한 의미 추출을 통해 ‘전상’의 의미를 파악하고 전상신의 성격과 역할을 정리하였다.

지소영¹¹⁾은 제주 굿 놀이 중 전상놀이를 중심으로 유래와 연희과정을 밝히고 전상놀이의 교수·학습 방법을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전상놀이의 교육과정 및 극본을 구성하고 전상놀이를 위한 교수·학습 과정안과 굿 노래를 제시하였다.

허영미¹²⁾는 <천지왕 본풀이>의 채록본 8편과 필사본 1편을 대상으로 무가의 전승 양상, 구조적 특징과 의미, 전승집단의 의식, 교육적으로 수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삼공본풀이 감상지도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되었다

다음으로 음악극 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수미¹³⁾는 국악곡을 활용한 음악극 창작 지도방안을 구안하여 국악에 대한

7) 고순덕, “아동극에서 제주무속신화의 회곡화 과정 연구: 가쁜장아기의 여성의 몸에 대한 주체적 인식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예술전문사 학위 논문, 2004)

8) 고현민, “제주도 영등굿 연구: 요왕맞이 마당을 중심으로” (청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9) 김형진, “제주도 칠머리당 영등굿 무가연구” (서울: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악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 2002)

10) 안효정, “삼공본풀이의 서사와 전상의 의미” (청주: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11) 지소영, “제주 굿놀이의 교수·학습 방법 개발 연구” (서울: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12) 허영미, “천지왕본풀이의 전승 양상 및 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 (청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13) 김수미, “국악곡을 활용한 음악극 창작 지도방안 연구” (청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관심을 높이며, 다양한 창작 활동과 실질적인 음악표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음악적 표현력과 창의성을 기르고자 하였다. 특히 통합교과의 학습 내용은 효율적인 교과 통합 수업을 위해 음악극 창작이라는 주제에 맞도록 교과의 학습 목표는 살리되 그 내용은 제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한 점에 많은 시사를 받았다.

서화니¹⁴⁾는 음악극 놀이를 활용한 전래동요 지도 단계로 전래동요 감상과 탐색, 노래 익히기, 놀이와 즉흥표현, 음악극 만들기, 발표와 감상의 5단계를 제시하였다. 전래동요를 탐색하여 노래를 익히고 노랫말에 담겨진 이야기를 극으로 만들고 놀이 해 보고, 우리 음악의 특징들을 춤과 노래 연주로 표현해보는 음악극놀이가 전통수업에 대한 유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 신화를 각색하여 음악극으로 창작하므로 차이는 있지만 음악극 활동의 지도단계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유현화¹⁵⁾는 교과 통합을 통해 음악극으로 꾸미는 방안을 연구하여 감상제재에 대한 다각적 이해 및 표현능력을 기르고자 하였다. 단계적인 지도방안을 구상하여 체계적이며 실효성 있는 음악극 창작 지도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받았다.

박금숙¹⁶⁾은 여민락을 초등학교에서 지도할 수 있도록 교과 간 통합을 통한 지도방안을 연구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의 각 교과를 분석하여 지도내용을 선정하고 지도내용을 바탕으로 각 단계별 지도방안을 구안하였다. 교과 간 통합 방법과 지도방안 구안에 도움이 되었다.

선행 연구 논문들을 살펴본 결과 본 연구의 필요성과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찾을 수 있었다.

첫째,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칠머리당영등굿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

14) 서화니, “음악극 놀이를 활용한 전래동요 지도방안 연구” (서울: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15) 유현화, “교과 통합을 통한 음악극 <홍보 박타는 대목> 만들기 지도방안 연구” (청원: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16) 박금숙, “교과 간 통합을 통한 여민락 지도방안 연구” (청원: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주큰굿과 서사무가 관련 연구는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음악극 지도를 위한 연구가 많으나 대부분 음악극 소재가 전래동화나 창작동화라는 것이다. 고장의 설화를 중심으로 한 음악극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2. 교과 간 통합운영의 필요성

오랜 시간에 걸쳐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며 하나의 민족을 형성해 온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민족의 정체성은 무척 중요하다. 특히나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기에 민족의 정체성은 더더욱 중요하며 이 정체성은 남과 북이 서로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하나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뿌리인 정체성이 사라져 가고 있음을 느끼며 교육현장에서 더더욱 민족 정체성 교육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교육은 바로 문화 교육이 아닌가 하며 그 중에서도 전통 문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체성 있는 국민을 육성하기 위해 문화 교육을 할 때는 그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 속에는 언어, 춤, 음악, 미술, 사상이 통합되어 있으므로 그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모두를 총체적이며,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¹⁷⁾ 따라서 문화 교육을 할 때는 단순히 음악, 미술, 체육 등의 예술 교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국어, 사회, 과학 등의 교과와 통합하여 지도할 필요성이 있다.

문화 교육 중에서도 정체성 함양을 위해 전통 문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앞에서 언급했다. 전통 문화 교육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 질 수 있지만 우리

17) 변미혜 외 2명, 『우리 문화 관련 주제 중심의 국악 지도법』 (서울: 민속원, 2009), 4-5쪽

문화 예술 중에서 가장 통합적인 성격이 두드러진 국악을 중심으로 한 교과 간 통합교육이 이루어질 때 정체성을 지닌 한국인 육성이라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리라 본다.¹⁸⁾

우리의 전통문화인 국악이 악·가·무가 통합되어 있는 것처럼 제주 굿 역시 악·가·무가 통합되어 있다. 따라서 삼공본풀이를 활용한 음악극 지도를 위해서는 음악 교과뿐만 아니라 국어, 사회, 도덕 등의 교과를 통합하여 지도해야 한다. 또한 음악극은 창의성계발과 표현 능력 향상을 학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음악극 완성을 위한 시간적 제약이 있고, 음악 외적 요소의 지도의 문제가 있으므로 교과 통합을 통해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3.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과 교육과정¹⁹⁾ 분석

2009 개정 교육과정은 2009년 12월 23일에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로 고시된 교육과정으로, 학교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표에서는 표현, 감상, 생활화라는 3가지 영역에 따라 각각 순서대로 3개, 2개, 2개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음악요소 및 개념 체계표에서는 리듬, 가락, 화음, 형식, 셈여림, 빠르기, 음색에 따라 학년군별로 어떠한 내용을 다루어야 할지 보여주고 있다.

5~6학년 내용 체계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 변미혜, “문화 예술 주제 중심의 교과 간 통합 지도 방안 : 초등학교 3~6학년 국악을 중심으로”, 『교과교육공동연구 결과보고서』 (청원: 한국교원대, 2004)

19) 이하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과 교육과정개정’을 본고에서는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한다.

<표 1> 5~6학년군 내용 체계표

영역	내용 체계	5~6학년군
표현	1-1. 바른 자세로 표현하기	(1) 바른 자세와 호흡으로 노래 부를 수 있다.
		(2) 바른 자세와 주법으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
	1-2.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기	(1) 5-6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 및 개념을 이해하며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할 수 있다.
		(2) 악곡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을 할 수 있다.
		(3) 악곡의 특징을 살려 혼자 또는 여럿이 외워서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할 수 있다.
		(4) 동요나 민요, 시조의 초장을 듣고 부르거나 보고 부를 수 있다.
	1-3. 창의적으로 음악 만들어 표현하기	(1) 상황이나 이야기를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다.
		(2) 제재곡의 노랫말을 바꾸거나 노랫말에 맞는 말붙임새로 만들 수 있다.
		(3) 제재곡의 일부 가락을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감상	2-1. 음악의 요소 및 개념 이해하기	(1) 5~6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 및 개념에 대해 구별할 수 있다.
	2-2.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감상하기	(1)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2) 의식음악, 축제음악, 풍류음악 등을 듣고 쓰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생활화	3-1. 음악을 즐기는 태도 갖기	(1) 생활 속에서 음악을 활용하며 즐길 수 있다.
	3-2. 우리 음악의 가치 인식하기	(1) 우리 음악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인 음악적 표현능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다양한 음악을 감상하고 음악을 즐기며 우리 음악의 가

치 인식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 교육과정에서 부록으로 제시되어 있는 5~6학년군 성취기준 중에서 음악극 지도와 관련된 성취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5~6학년군 성취기준 예시

(가) 표현

내용 체계	성취 기준	학습활동 예시
1-1. 바른 자세로 표현하기	(1)	- 바른 자세와 호흡으로 정확하게 노래 부른다.
	(2)	- 바른 자세와 주법으로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한다.
1-2.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기	(1)	- 악곡의 박자를 지키며 리듬(당김음 포함)과 가락을 표현한다. - 악곡의 주요 리듬꼴이나 장단꼴을 파악하여 박자나 장단에 맞추어 연주한다. - 악곡의 말붙임새를 이해하며 노래 부른다. - 장단의 세를 표현하며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한다. - 떠는 소리, 훌리내리는 소리, 밀어 올리는 소리, 구르는 소리를 구별하여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한다. - 정간보나 오선보를 이해하며 간단한 악곡을 보고 부르거나 연주한다. - 악곡의 빠르기/한배와 셈여림의 변화를 살려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한다.
	(2)	- 악곡의 음악적 특징(박자, 장단, 셈여림, 빠르기, 한배, 가락 등)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을 한다. - 악곡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이나 놀이를 한다.
	(3)	- 악곡을 혼자 또는 여럿이 외워서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한다. - 동요, 전래동요, 민요 중 한 곡을 외워서 부르거나 악보를 보고 부른다.
1-3. 창의	(1)	- 여러 가지 장면을 목소리, 물체 소리, 악기 소리를

적으로 음악 만들어 표현하기		활용하여 음악적으로 표현한다. - 이야기의 장면이나 상황을 목소리, 물체 소리, 악기 소리 등을 활용하여 음악적으로 표현한다.
	(2)	- 주제에 맞게 제재곡의 노랫말을 바꾸어 부른다. - 제재곡의 장단에 어울리는 말붙임새로 만들어 부른다. - 노랫말에 맞는 말붙임새로 부른다.
	(3)	- 제재곡의 2마디 가락에 이어서 새로운 2마디 가락을 만들어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한다. - 제재곡의 리듬, 가락, 장단의 일부를 바꾸어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한다.

(나) 감상

2-1. 음악의 요소 및 개념 이해하기	(1)	- <음악 요소 및 개념 체계표>의 5~6학년 내용을 이해하는 활동을 한다.
2-2.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감상하기	(1)	- 경극, 가부키, 오페라 등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한다.
	(2)	- 의식음악, 축제음악, 풍류음악 등을 듣고 쓰임에 따른 음악적 특징에 대해 이야기한다.

(다) 생활화

3-1. 음악을 즐기는 태도 갖기	(1)	-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에 대하여 발표한다. - 다른 사람이 연주하는 음악을 바른 태도로 감상한다. - 생활에서 음악의 쓰임에 대해 조사하고 발표한다.
3-2. 우리 음악의 가치 인식하기	(1)	- 우리 지역에 전승되어 오는 음악과 관련된 민속 문화(설화, 인물 등)를 조사하여 발표한다. - 음악과 관련된 문화재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한다.

위의 표를 살펴보면 우리 지역에 전승되어 오는 음악과 관련된 민속 문화인

설화나 인물 등을 조사하여 발표하는 활동을 통해 우리 음악의 가치를 인식하는 음악의 생활화가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고장에 전해져 내려오는 신화를 조사하고 음악극으로 발표해 보는 활동은 개정교육과정에 부합하며 우리 음악의 가치를 인식하기에 적절한 활동이라 할 수 있겠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 무가를 활용한 음악극 지도방안을 위해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해 보았다.

<표 3> 제주 무가를 활용한 음악극 지도 성취기준

영역	내용 체계	성취 기준	학습활동 예시
표현	1-1. 바른 자세로 표현하기	(1)	- 바른 자세와 호흡으로 제주무가를 노래 부른다.
		(2)	- 바른 자세와 주법으로 제주 연물과 악기를 연주한다.
	1-2.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기	(1)	- 악곡의 주요 리듬꼴이나 장단꼴을 파악하여 박자나 장단에 맞추어 연주한다. - 악곡의 말붙임새를 이해하며 노래 부른다. - 장단의 세를 표현하며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한다. - 정간보나 오선보를 이해하며 간단한 악곡을 보고 부르거나 연주한다. - 악곡의 빠르기/한배와 셈여림의 변화를 살려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한다.
		(2)	- 악곡의 음악적 특징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을 한다. - 악곡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이나 놀이를 한다.
		(3)	- 악곡을 혼자 또는 여럿이 외워서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한다.
	1-3. 창의적으로 음악 만들어 표현하기	(1)	- 여러 가지 장면을 목소리, 물체 소리, 악기 소리를 활용하여 음악적으로 표현한다. - 이야기의 장면이나 상황을 목소리, 물체 소리, 악기 소리 등을 활용하여 음악적으로 표현한다.
		(2)	- 주제에 맞게 제재곡의 노랫말을 바꾸어 부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재곡의 장단에 어울리는 말붙임새로 만들어 부른다. - 노랫말에 맞는 말붙임새로 부른다.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재곡의 2마디 가락에 이어서 새로운 2마디 가락을 만들어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한다. - 제재곡의 리듬, 가락, 장단의 일부를 바꾸어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한다.
감 상	2-2.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감상하기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문화권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한다. - 삼공본풀이를 감상하고 음악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한다.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큰굿에 나오는 음악을 듣고 쓰임에 따른 음악적 특징에 대해 이야기한다.
생 활 화	3-1. 음악을 즐기는 태도 갖기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에 대하여 발표한다. - 다른 모듬의 음악극 발표를 바른 태도로 감상한다. - 생활에서 굿 음악의 쓰임에 대해 조사하고 발표한다.
	3-2 우리 음악의 가치 인식하기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지역에 전승되어 오는 음악과 관련된 민속 문화인 신화를 조사하여 발표한다. - 제주큰굿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한다.

나. 교과 통합 지도를 위한 교과서 분석 및 제구성 방안

굿 음악은 가·무·악 종합예술이므로 교과 간 통합을 통하여 지도할 때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무가를 활용한 음악극을 지도함에 있어 현행 5, 6학년 국어과, 도덕과, 사회과, 음악과, 체육과의 학습 내용을 살펴보고, 제시된 학습 주제를 중심으로 통합 가능한 요소들을 추출하고자 한다.

1) 5학년 교과서 분석

교과 통합 지도를 위한 5학년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음악극 지도를 위한 5학년 교과서 내용 분석

교과		단원	학습 내용	재구성 가능 내용
국어 ²⁰⁾		5.사실과 발견 (읽기)	- 인물의 성격이 사건전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하며 극본 읽기 - 별주부전을 연극으로 꾸미기	삼공본풀이를 연극으로 꾸미기
		7.상상의 날개 (읽기)	- 이야기를 읽고 이야기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비교하기	가문장아기 이야기를 읽고 이야기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비교하기
		5.사실과 발견 (듣말쓰)	- 알맞은 매체를 사용하여 발표할 주제를 조사하고 발표하기	알맞은 매체를 사용하여 제주큰굿 조사 발표하기
		7.상상의 날개 (듣말쓰)	- ‘별 삼형제, 삼태성’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 꾸며 쓰는 방법 알기 - 사건 사이의 관계가 잘 드러나게 이야기 꾸며 쓰기	젓부기 삼형제 이야기를 사건 사이의 관계가 드러나게 꾸며 쓰기
사회 ²¹⁾		3.유교 전통이 자리잡은 조선	마을제사와 그 속에 담긴 조상들의 생활모습 알아보기(12/17)	제주 큰굿에 담긴 조상들의 생활모습 알아보기
음악	태성 ²²⁾	음악의 쓰임새(1)	- 축제 음악의 역할 알아보기 - ‘지신밟기’의 일부를 변형하여 즉흥표현 해보기	제주 굿 음악의 역할 알아보기
		흥겨운 우리 장단(1)	-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장단 표현해 보기	제주 연물장단을 다양하게 표현해 보기
		도깨비 이야기와 음악	- 흑부리 영감 이야기를 음악으로 만들어 보기 - 서로 협동하여 음악극 준비하고 발표하기	삼공본풀이 이야기를 음악으로 만들어 보기
	금	리듬합주	- 장단 꼴의 특징알고 여러 가지	제주 연물로 타악 합주하

	성 23)		타악기로 리듬 합주하기	기
		떡노래	- 가사 바꾸어 노래부르기 - 말 붙임새에 어울리게 자진모리 변형 장단 만들어 치기	삼공본풀이 중 전상을 부르는 부분을 가사 바꾸어 불러보기
		세계 속의 우리 음악	- 우리 음악의 가치를 알고 아끼는 마음 갖기 - 세계 무형 문화유산 찾아보기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제주칠머리당굿의 가치 알기
		이야기 음악	- 이야기를 음악으로 만들어 표현하기 - 효녀 심청 이야기를 음악 대본으로 만들어 이야기 음악 발표하기	삼공본풀이 이야기를 음악으로 만들어 표현하기
		종교음악	- 종교 의식에서 사용되는 종교 음악을 알아보고 감상하기	삼공본풀이 감상하기
체육	두산 동아	4.표현 활동	- 소고춤의 기본 움직임을 익혀 즐겁게 춤추기	제주 연물 장단에 맞추어 신체 표현하기

2) 6학년 교과서 분석

교과 통합 지도를 위한 6학년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음악극 지도를 위한 6학년 교과서 내용 분석

교과	단원	학습 내용	재구성 가능 내용
국어	2.정보와 이해	- 여러 가지 매체에서 필요한 정보 조사하기 - 여러 가지 매체에서 조사한 정보를 분류하여 요약하는 글쓰기	제주큰굿에 대해 여러 가지 매체를 이용하여 조사하기
	7.문학의 향기	- 이야기를 희곡으로 바꾸어 쓰는 방법 알기 - 이야기를 희곡으로 바꾸어 쓰기	가쁜장아기 이야기를 희곡으로 바꾸어 쓰기

20) 교육과학기술부, 『국어 5』 (서울: (주)미래엔, 2012)

21) 교육과학기술부, 『국어 5』 (서울: (주)미래엔, 2012)

22) 주대창 외 5인, 『교육과학기술부 검정 교과서-초등학교 음악5』 (서울: 태성출판사, 2012)

23) 양종모 외 7인, 『교육과학기술부 검정 교과서-초등학교 음악5』 (서울: 금성출판사, 2012)

		7.즐거운 문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극을 위한 준비를 해 보기 - 등장인물의 성격 생각하며 실감나게 연극하기 	삼공본풀이 음악극 발표 준비하기
도덕		6.용기, 내안의 위대한 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기의 의미와 중요성 알기 - 용기 있는 행동을 방해하는 요소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기 	가쁜장아기의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사회		전통과 세계의 만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문화 계승 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킨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 조사하기 -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을 외국인에게 소개하기 	제주큰굿의 가치를 외국인에게 소개하는 활동하기
음악	태성	신바람나는 타악 합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물악기가 된 도깨비 	제주 연물 합주하기
		과자음악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 만들기 	삼공본풀이 음악극 만들기
	금성	2.자연과 하나되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회가 열리는 곳에 대해 이야기하기 - 만들고 싶은 음악회의 모습 그림으로 그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굿 음악이 열리는 곳에 대해 이야기하기 음악극 발표회의 모습 그림으로 그리기
		3.세계와 함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회 준비 과정 점검하기 	음악극 발표회 준비과정 점검하기
		4.지화자 좋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떼기고 받으며 노래 부르기 - 가사 바꾸어 부르기 - 장단을 치며 바꾼 가사로 노래 부르기 	삼공본풀이 가창하기
		5.마음을 담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야기 음악의 특징을 알고 음악 대본에 어울리는 음악 만들어 연주하기 	삼공본풀이 음악극 꾸미기
체육	두산 동아	주제표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와 이야기 만들기 - 움직임 표현하기 - 작품 만들기 - 작품 발표 및 감상하기 	삼공본풀이 음악극에 맞는 신체표현 만들기

6학년에서 제주무가를 활용한 음악극 지도를 위해 교과 통합이 가능한 내용적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도덕과에서는 가문장아기 이야기를 파악하고 가문장아기의 용기에 대해서 토론하며 그 가치를 내면화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국어과에서는 제주 큰굿과 삼공본풀이에 대한 조사를 하고 가문장아기 이야기를 음악극을 위한 대본으로 바꾸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사회과에서는 우리의 굿 음악과 신화를 세계에 알리는 활동을 하기에 적합하며, 체육과에서는 제주무가 장단에 맞추어 자유로운 신체표현 활동을 할 수 있다.

4. 제주 무가의 고찰

가. 제주큰굿 고찰

1) 제주큰굿의 이해

제주도의 굿은 규모에 따라서 <비념>, <작은 굿>, <큰굿>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필요에 따라서 어디서나 언제나 개인 가정적으로 그 단골심방들에 의해서 집행되는 의례들이다. <비념>은 심방 한 사람만이 단지 요령만을 흔들고 악기들의 사용이나 춤도 없이 한 시간 내외로 끝내는 간단한 의례를 말한다. <작은 굿>은 악기의 반주가 따르고 춤도 있으되, 그 굿의 목적에 따르는 특정 신격만을 모시는 개별의례로서 하루 안에 끝내는 소규모의 굿을 말한다.

<큰굿>은 3-4일, 또는 그 이상도 걸리며, 모든 신격을 그 위계 순에 따라서 다 모시고, 모든 필요한 기원을 연속적으로 다 올리는 큰 종합의례이다. 모든 악기가 다 동원되고, 춤도 물론 따르고 차례로 모시는 신에 따라서 제상 차림도 다양하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신들의 본풀이가 일정한 제의 순서에 따라서 여기서 모두 다 가창되며 종교와 신화의 모든 체계를 종

합 제시해 준다는 점이다.

제상 차림으로 보면 큰굿에는 4당쿨굿, 중당쿨굿, 방에 제상 하나를 차려서 하는 탁상굿이 있다. 이들 의례는 다시 심방의 의례 집행 형식으로 보아 산굿과 앓인제로 나눌 수 있는데 산굿이란 서서 하는 굿을 뜻하며 앓인제는 심방이 앉아서 집행하는 의례를 말한다. 산굿에는 전 악기가 울리고 춤이 따르나, 앓인제는 북과 장구만이 쓰이며 춤이 없다.



<사진 1> 당쿨²⁴⁾



<사진 2> 제상차림



<사진 3> 제주큰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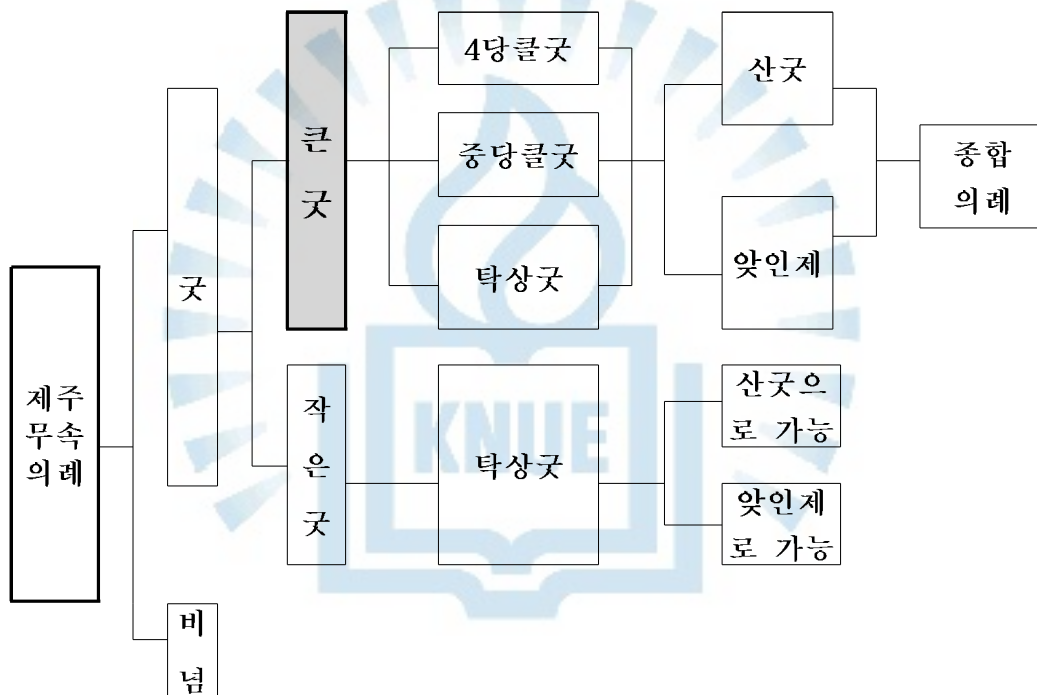
<사진 4> 초감제²⁵⁾

24) 사진 1, 2, 3 출처 : 노재명 외, 『제주도 무속음악』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당쿨은 신이 머무는 특별한 신성공간이다. 신이 거처하는 공간이므로 신에 대해서 굿을 하는 동안에 꺾듯이 의례를 거행한다.

큰곳은 심방 집에서 하는 신곳과 일반 가정에서 행하는 사가곳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규모면에서 가장 큰 종합적인 연회라고 할 수 있다. 춤과 노래, 사설 모두가 문화재적 가치가 높는데, 특히 사설은 중세어 연구를 위한 국문학 적 가치가 매우 높아 2001년 8월 16일 제주도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되었다. 위의 내용을 간단히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6> 규모에 따른 제주 곳의 분류²⁶⁾



제주 곳 중에서 큰곳의 제차와 본풀이의 순서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25) 문화재청(<http://www.cha.go.kr>)참고

26) 현용준,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서울: 집문당, 2002), 16~17쪽.

<표 7> 제주큰굿의 제차와 본풀이 순서²⁷⁾

	제차	간단한 설명
1	초감제	서제로서의 청신의례. 창세신화인 천지왕본풀이 가창
2	초신맞이	초감제에서 일단 1만8천신을 다 모셨으나, 떨어진 신이 없도록 하는 재 청신의례
3	초상제	다시 한 번 더하는, 떨어진 신들을 위한 재청신의례
4	추물공연	차린 제물을 신들께 권하고 소원을 비는 제차
5	석살림	신들께 술, 음식을 권하고 심방, 제주, 가족들이 춤추며 신인공락하면서 기원하는 제차
6	보세감상	신들에게 폐백과 공물을 바치고 기원하는 제차
7	불도맞이	삼승할망(또는 불도할망, 생불할망)에 대한 산육기원의례, 삼승할망본풀이와 마누라 본풀이 들 가창
8	일월맞이	일월신을 맞이하여 모시는 의례
9	초공본풀이	무조신 초공 3형제의 신화를 가창하고 기원하는 제차
10	초공맞이	무조신을 맞이하여 기원하는 의례
11	이공본풀이	서천꽃밭의 주화를 관장하는 이공신 신화의 가창의례
12	이공맞이	이공신을 맞이하고 기원하는 의례
13	삼공본풀이	전상(전생의 업보)을 관장하는 삼공신 신화의 가창의례
14	제상제	보통 다음날 아침 시왕맞이 전에 하는 제차 청신의례
15	시왕맞이	저승의 시왕과 그 사자를 맞고 기원하는 의례. 차사본풀이 가창. 차사와 기본성격이 같은 맹감본풀이 도 가창
16	세경본풀이	농업신 세경할망의 신화 가창과 기원의례
17	삼공맞이	일명 전상놀이. 삼공을 맞아 사악을 구축하는 연극적 의례
18	세경놀이	바보 농군으로 분장한 심방이 농업의 과정들을 연극적으로 실연하여 대풍을 거두는 연극의례
19	문진본풀이	문신과 그 본처(조왕할망)와 첩(변소귀신), 자식들에 대한 신화 가창으로 가내 안전을 비는 의례
20	본향드리	그 마을 본향당신을 맞아들여 기원하는 의례. 그 마을 본향본풀이 가창
21	각도비넴	부엌, 고팡, 5방 토신, 올래 등 집안 각처의 수호신들에게 비는 의례. 고팡의 곡물 신 칠성에게 칠성본풀이 가창

27)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서울: 도서출판 역락, 2001), 62~63쪽.

22	물놀이	여러 신들이 타고 돌아갈 말을 몰아다 신들을 태우는 내용을 노래로 부르는 송신의례
23	도진	소위 1만8천신을 위계 순으로 노래로 돌려보내는 송신의례.
24	가수리	신들이 돌아간 후, 아직 남아있을 잡귀들을 풀어먹여 보내는 송신의례

2) 제주큰곳의 본풀이 내용 이해

본풀이란 본을 풀다는 의미이다. 본은 신의 뿌리, 곳의 원리를 말하며 풀이는 풀다, 한풀이, 서술한다, 이야기한다를 뜻하는 의미로 그 자체가 서사시이며 신화이다.

본풀이는 신의 내력담, 즉 신의 출생에서부터 신이 좌정할 때까지의 생애 이야기로서 신화이면서 곳의 원리를 차례차례로 풀어 나가는 곳의 대본이다. 또한 본풀이는 곳법이며, 신법이고 저승법이다. 본풀이에는 “그때 낸 법으로 어떻게 하게 되었다.”는 곳법 즉 신화시대 낸 법으로 오늘날 어떤 곳(의례)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반드시 삽입되어 있다.²⁸⁾

본풀이를 보면 제주인의 무한한 상상력과 제주 사회문화에 내재된 규율과 법칙, 가치관을 갖고 있으며 그자체로서 예술적 가치를 품고 있다. 열두본풀이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8> 열두본풀이 주요내용

열두본풀이	주요 내용
천지왕 본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지창조 원리를 풀이 - 하늘에 두 개씩 있던 해와 달을 오늘날과 같이 하나씩으로 조정하고 각기 이승과 저승을 차지하게 된 대별왕과 소별왕이라는 신에 대한 본풀이
삼승할망 본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기를 낳고 길러주는 산육신의 이야기

28)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제주: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16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승할망과 구삼승할망의 대결에서 착한 삼승할망이 산육신의 신직을 맡게 된다는 이야기로 아이를 점지, 잉태시키며 출산과 양육을 담당하는 신인 생불할망신에 대한 본풀이
초공 본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반에게 복수하고 어미를 살리기 위해 최초로 곁을 시작한 무조신의 내력담 - 귀한 집 외동딸과 중 사이에서 탄생한 셋부기 3형제가 무조신이 되는 과정을 그린 본풀이
이공 본풀이	서천꽃밭 주화신 꽃감관의 내력담
삼공 본풀이	재앙과 복을 주는 등 전상을 관리하는 신의 내력담
세경 본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경, 목축의 원리풀이 - 농신 세경할망의 연애담으로서 최장편 서사무가
차사 본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승의 원리풀이 - 이승의 영리했던 관원 강님이 운사한 혼령 처리문제로 저승의 염라대왕을 모셔다가 잘 처리하나, 염라대왕이 강님을 저승으로 불러가서 저승차사가 되었다는 내용의 본풀이
맹감 본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숨을 이어주는 수복신의 내력담 - 저승차사에게 재물을 많이 주고 이승에서 4만년을 살았다는 사만이가 주인공으로 되어있는 본풀이 - 사만이본풀이라고도 함
지장 본풀이	기구한 운명을 극복하고 불공으로 새의 몸으로 환생하는 지장신의 내력담
문전 본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신, 조왕신의 내력담 - 제주도의 문신인 남선비, 그 본처인 조왕할망, 첩노일제대(변소귀신)
칠성 본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안의 부와 곡식을 수호해주는 사신 칠성의 내력담 - 중의 자식을 임신하여 돌함에 담겨서 유배된 처녀

	가 뱀으로 변하여 일곱 마리의 뱀을 낳고, 나중에 칠성은 제각기 흩어져 막내는 밧칠성, 어머니는 안칠성으로 각각 좌정하여 곡물을 지켜 사람들을 부자가 되게 해주는 신이 되었다는 내용의 본풀이
마누라 본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마신의 내력담 - 천연두신인 대별상 큰마누라와 홍역신인 죽은마누라의 부부가 삼승할망과의 대결에서 굴복하는 이야기

각각의 본풀이 내용은 제주 신화로 이야기책을 출판되기도 하고 연극으로 재탄생되기도 하고 있다. 신에게 즐거움을 주기위해 불리는 서사무가이니 만큼 문학적으로도 수준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3) 제주 굿 속에 나타난 무가

일반적으로 굿은 각 제차별로 음악적 요소가 밀접하게 관여하게 되고, 사실상 음악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굿의 제차를 제대로 전개하지 못할 정도로 음악의 전개가 곧 굿의 연행을 이어진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굿의 종류나 그 규모, 또는 성격에 의해 음악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굿은 심방이 매개하여 신령과 인간이 만나고 대화를 하는 의례이다. 그런데 이 대화가 주로 ‘노래’라는 구연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무가라고 불린다. 제주도 무가는 다양하게 분류되는데 장휘주는²⁹⁾ 박자와 한배에 따라 <본풀이 무가>형, <새드리는 소리>형, <덕담>형, <서우제소리>형, <음영>형으로 분류하였다. 황나영은³⁰⁾ 장단의 유무와 선율의 특성, 반주의 주체 등에 따라 음영조, 음영형 가창조, 가창조 세 가지도 분류하였다. 현용준은 무가를 구연방식과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29) 장휘주, 『한국무속학』 제14집 (서울: 한국무속학회, 2007)

30) 황나영,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의 음악적 구성과 특징” (서울: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표 9> 무가의 분류³¹⁾

무가	⇒	① 구연방식	순수대화	세경놀이, 영감놀이, 전상놀이, 산신놀이 등
			운율적 사실	베포도엮침, 날과 국 섬김 등
			만가요	본풀이 , 추물공연, 새드림
			순수가요	석살림 때의 서우젯 소리, 담불소리, 군웅덕담
		② 내용	일반무가	대부분의 굿
			서사무가	본풀이
			희곡무가	세경놀이, 영감놀이, 전상놀이, 산신놀이

제주 굿 속에 나타나는 굿 노래는 말 그대로 굿 제차 속에서 심방이 부르는 음률이 강조 된 무가로 무속 의식요라는 커다란 범주 속에 포함되는 만큼 종교 주술적인 면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음률로 강조된 굿 노래들은 그 굿 제차에 따라 필요 적절한 곳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함으로써 굿에 생동감과 신명을 더하게 된다. 굿 노래들은 무엇을 위해 불러 졌는지 제차 상에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화되어 자리매김 되면서 굿 노래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여러 제차에 불러 지기도 한다. 제주 무가에 대한 선율과 창법, 장단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²⁾

(1) 선율

제주 지역 굿에서의 무가는 신들의 내력을 노래하는 본풀이나 천지개벽, 일월성진(日月星辰), 날과 국의 형성 과정 등을 길게 노래하는 서사 무가들이 많

31) 현용준,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서울: 집문당, 2002), 43쪽.

32) 노재명 외, 『제주도 무속음악』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42~45쪽 참고

다. 이들 무가는 심방이 장구를 놓고 혼자 앉아서 부르는데, 서사 무가의 특성이 대개 그렇듯 선율에 변화가 많지 않고 대체로 단순한 선율을 반복하는 것이 많다. 제주 지역 무가의 선율은 sol, la, do', re', mi'의 고른 5음 사용에 sol이나 do'로 종지하는 경토리 음조직과 유사한 선율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4음이나 6음을 쓰는 생소한 선율들이 많다.

(2) 창법

제주 지역 무가의 창법은 그 사설의 내용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 노랫말이 슬픈 내용이면 울 때 쓰는 창법으로 부르고, 즐거운 내용이면 기쁠 때 쓰는 창법으로 부른다. 또한 창법은 정해진 무가의 사설 외에도 신이 내렸을 때 신이 전하는 말의 내용이 어떠한가에 의해서도 결정된다고 한다. 한편 회로애락의 감정을 표현할 때의 창법 외에도 심방의 숙련도에 따라 길게 빠지는 창법이 있고 목에서만 굴리는 창법 등이 있다고 한다. 길게 빠지는 창법이란 배에 힘을 주고 통성으로 소리를 길게 뻗어내는 것을 말하며, 목에서만 굴리는 창법이란 선율에 잔가락을 많이 넣어서 목을 돌리는 창법을 말한다.

(3) 장단

(가) 무가 장단

제주 지역 곳에서는 장단 명칭을 따로 쓰지 않는다. 무가를 반주할 때는 간단한 몇 가지 박자 유형으로만 반주를 하는데, 가장 흔히 나타나는 유형은 3소박 2박(6/8) 형이고, 다음은 음영(吟詠)에 가깝게 자유리듬으로 부르는 형이며, 마지막으로 추물공연이나 새드림을 할 때의 3소박 4박 형이다. 이 외에도 드물긴 하지만 2소박 4박형의 무가 장단도 있다.

(나) 무무(巫舞) 장단

제주 지역 곳에서 춤을 반주하는 장단에는 '삼석'이 가장 흔하며, 그 밖에 신

이 내렸을 때 추는 도랑춤[回轉舞]의 반주 장단인 ‘도랑’이 있다.

큰굿에서 춤을 반주하는 삼석은 느진석과 중판, 자진석으로 구분된다. 이 세 장단은 박자는 같고 템포에서만 구별되는데, 대개 느진석으로 시작하여 중판을 거친 다음 자진석으로 마무리 한다. 가끔 중판이나 자진석만으로 반주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이들 삼석이 하나의 그룹을 이루어 연주된다.

4) 본풀이의 교육적 의의

현실에 지친 사람들에게 위안을 줬던 굿은 문화적으로도 큰 자산이다. 굿은 전통예술의 뿌리로 평가받는다. 서사무가는 건국신화와 판소리의 원류가 됐고 굿거리장단 등 전통음악과 춤사위, 복식 등도 모두 굿에서 출발한다. 서사무가는 소설이나 설화와 같이 고유한 등장인물이 있고, 그 인물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 줄거리를 갖추고 있다. 일명 ‘본풀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신의 유래를 설명 하므로 붙여진 명칭이다. 또한, 무속신의 이야기이고 무속 의식에서 구연되므로 무속신화이며, 청중들 앞에서 악기 반주에 맞추어 줄거리를 노래한다는 점에서 구비서사시이기도 하다. 바리공주와 칠성본풀이, 삼승할망본풀이 등 무속 신화는 요즘 소설·영화·게임 등의 소재·주제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근대화, 세계화의 가속화로 크고 작은 우리의 민속신앙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고 이에 대한 자료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허남춘³³⁾ 교수는 제주 신화의 세계화와 관련 “우선 제주신화를 정리해 다양한 계층이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출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만8000 신이 사는 제주는 신들의 고향이자 신화의 수도다. 그리스·로마신화가 기록신화, 제주신화는 구비신화로서 각각 세계중심”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제주신화 책을 출판하되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재창작하고 다듬어 정전을 만들어야 하고, 신화를 그림으로 그려 상상력을 시각화하고 음악, 춤을 포함 종합예술로

33) 제주대 국문학과 교수

재현하는 작업도 값지다고 세계화 방향을 제시했다.³⁴⁾

학생들이 즐겨 읽는 그리스·로마신화에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제주신화를 학생들이 직접 음악극으로 만들어 봄으로써 그 가치를 스스로 느껴보는 것은 전통문화 보전을 위해서도 무척 값진 일일 것이다. 학생들에게 전통문화의 보전을 위해 예술교육을 할 때는 그 안에 학생들의 삶을 반영해야 한다. 학생들의 삶을 반영한다는 것은 지역사회의 문화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의미이다. 내가 사는 지역의 이야기이고 내 어머니, 내 할머니의 이야기여야 바로 공감대가 형성되게 되는 것이다.

민속학자 임재해는 구비문학의 민중성과 민주성을 얘기하면서,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형성되고 전승되며 전파’되는 구비문학이야말로 ‘지역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현실과 문제를 입말로 형상화’하는 지역문화유산이라고 하였다.³⁵⁾ 또한 그는 구비문학은 그 자체로 중요한 지역문화이면서 다른 지역문화 전통들을 한층 의미 있게 부각시켜 주고 오래 전에 사라진 과거의 지역문화까지 되찾아 줄 뿐 아니라, 각종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고 미래의 지역문화까지 창조해 주는 구실을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지역문화의 전통을 되살리고 현실 지역문화를 풍부하게 하며 미래의 새로운 지역문화 창출을 위해서도 구비문학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지역사회의 구비문학 조사와 연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다.³⁶⁾

본풀이는 제주 곳에서 구연되는 제주를 대표하는 구비문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본풀이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지역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지키는 일이라 할 수 있겠다.

34) 제주문화원이 향토문화연구회 창립을 기념해 개최한 향토문화발전세미나에서 주제 발표한 내용의 일부임

35) 고순덕, “아동극에서 제주무속신화의 회귀화 과정 연구: 가문장아기의 여성의 몸에 대한 주체적 인식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예술전문사 학위 논문, 2004), 5쪽.

36) 임재해, “구비문학 유산과 지역문화의 상생적 관계” (<http://limjh.andong.net> 참조)

나. 삼공본풀이 고찰

1) 삼공본풀이 이해

삼공본풀이는 제주도의 무당굿에서 구연되는 ‘전상’ 차지 신의 신화인 동시에, 그 신화를 노래하고 기원하는 제차(祭次)로서 큰굿 때에 이공맞이 다음의 제차로 행해진다. ‘전상’이란 제주 방언은 ‘전생 인연’의 준말로 ‘전생(前生)’의 와음(訛音) 같으나, 그 뜻은 조금 다르게 쓰이고 있다. 일상용어로는 평상시와 달리 술을 마구 먹거나, 해괴한 짓을 하여 일을 망치거나 가산을 탕진할 때 그 행위를 ‘전상’이라 한다.

그래서 도둑질을 하여 몇 번이고 감옥에 출입해도 도둑질할 마음이 일어나고, 노름을 시작하면 가산이 탕진되어도 그만둘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 모두 ‘전상’ 때문이며, 농업·공업·상업 등 어떤 직업에 집착, 몰두하는 것까지도 ‘전상’ 때문이라 해석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전생 인연과 통하는 말인 듯한데, 이러한 ‘전상’을 차지하고 있는 신이 삼공이다.

삼공본풀이는 이와 같은 나쁜 ‘전상’을 제거하고 좋은 ‘전상’으로 행운이 오도록 기원하는 제차인 것이다. 이 제차도 다른 본풀이 제차와 마찬가지로 평복차림의 심방이 기본 제상 앞에 앉아 장구를 치면서 노래해 가는데, 그 순서는 먼저 굿을 하는 사유를 노래하고, 이어서 본풀이를 노래한 뒤, 기원의 순서로 해 나간다.

삼공본풀이에 나오는 가문장아기는 좋은 전상이 되기도 하고 나쁜 전상이 되기도 한다. 가문장아기와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에서 두 언니, 부모가 당한 일은 나쁜 전상의 상징적 표출행위이다. 반면에 가문장아기를 만나 다시 부자가 된 것, 눈이 멀었던 부모가 개안한 것 등은 좋은 전상의 표출이다.

삼공본풀이는 전국적으로 널리 분포해있는 ‘내 복에 산다’형 설화, 서동설화 등 여러 설화들과도 비슷한 모티브를 담고 있어 원형 설화로서의 가치도 지니고 있다.³⁷⁾

2) 삼공본풀이 내용과 전상의 의미

본풀이가 본래 신의 내력담인 것에 근거하면서 <삼공본풀이>의 가장 중심적 의미는 주인공 가문장아기가 전상신으로 죄정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이야기에서는 전상신으로서의 가문장아기의 면모를 살피고 이로부터 전상의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³⁷⁾

삼공본풀이는 여러 자료에 그 줄거리가 제시되어 있는데 공통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줄거리를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가난한 거지였던 강이영성이서불³⁹⁾과 홍운소천궁에궁전궁납⁴⁰⁾은 결혼하여 딸을 셋 낳았는데, 셋째 딸이 태어나면서부터 집안이 차츰 부자가 된다.

② 어느 날 아버지가 세 딸을 불러 놓고 누구 덕에 먹고 사는가를 물으니, 위의 두 딸은 부모 덕이라 말하나, 셋째 딸인 가문장아기는 자기의 배꼽 밑 선 그릇줄 덕분에 먹고 산다고 대답한다. 아버지는 화가 나 이 딸을 내쫓아 버린다.

③ 딸을 쫓아낸 아버지는 마음이 안 좋아 위의 두 딸을 시켜 동생을 불러 오도록 하나, 언니들은 동생을 멀리 쫓아 버리고자 부모가 때리러 온다고 거짓말을 한다. 가문장아기는 꾀스름히 생각하고 언니들을 청지네와 머슴으로 환생시켜 버린다. 부친은 딸들이 소식이 없자 문을 열고 나오다가 문자락에 걸려 눈이 멀어 장님이 된다.

④ 마통이네 집에 머물게 된 가문장아기는 셋째 마통이와 결혼하고, 남편이 마를 파던 구덩이에서 생금을 캐 부자가 된다.

⑤ 안맹한 부친이 걸인이 되어 있을 것을 아는 가문장아기는 부친을 만나고 자 걸인잔치를 베푸는데, 안맹한 부친은 앞에 있는 존재가 딸이라는 소리를 듣

37) 고순덕, 앞의 논문, 7쪽

38) 안효정, “<삼공본풀이>의 서사와 전상의 의미” (충북: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40쪽

39) 가문장의 부친

40) 가문장의 모친, 국문구천구부인, 홍운소천구부인 등으로도 불린다.

자 깜짝 놀라 눈을 뜬다.

삼공본풀이는 셋째 딸인 가문장아가 주인공이므로 삼공신이란 바로 가문장아기를 일컫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가문장아기의 신적기능은 가난을 부로 바꾸어 주고, 안맹을 눈뜨게 하는 데 있다.⁴¹⁾

가난이나 안맹은 모두 전상이다. 이러한 ‘전상’을 차지하고 있는 신이 삼공이다. 삼공본풀이는 이와 같은 나쁜 ‘전상’을 제거하고 좋은 ‘전상’으로 행운이 오도록 기원하는 제차인 것이다. 삼공본풀이의 전상의 양상은 가족관계 속에서 잘 나타나 있다. 가문장아기와 부모, 언니, 마통이의 형들까지 각각의 관계 속에 나타난 전상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제차 명	좋은 전상	나쁜 전상
삼공본풀이	부모가 부자가 됨	부모가 결인이 됨
	부모가 눈을 뜸	부모가 안맹이 됨
	셋째 마통이가 금을 캐	큰 언니가 지네가 됨
	셋째 마통이가 부자가 됨	둘째 언니가 버섯이 됨
	셋째 마통이의 남을 돕는 착한 마음	가문장을 속이는 언니들의 마음
	자식을 보고 싶어 하는 가문장아기 부모의 마음	어머니께 불효를 저지르는 첫째와 둘째 마통이의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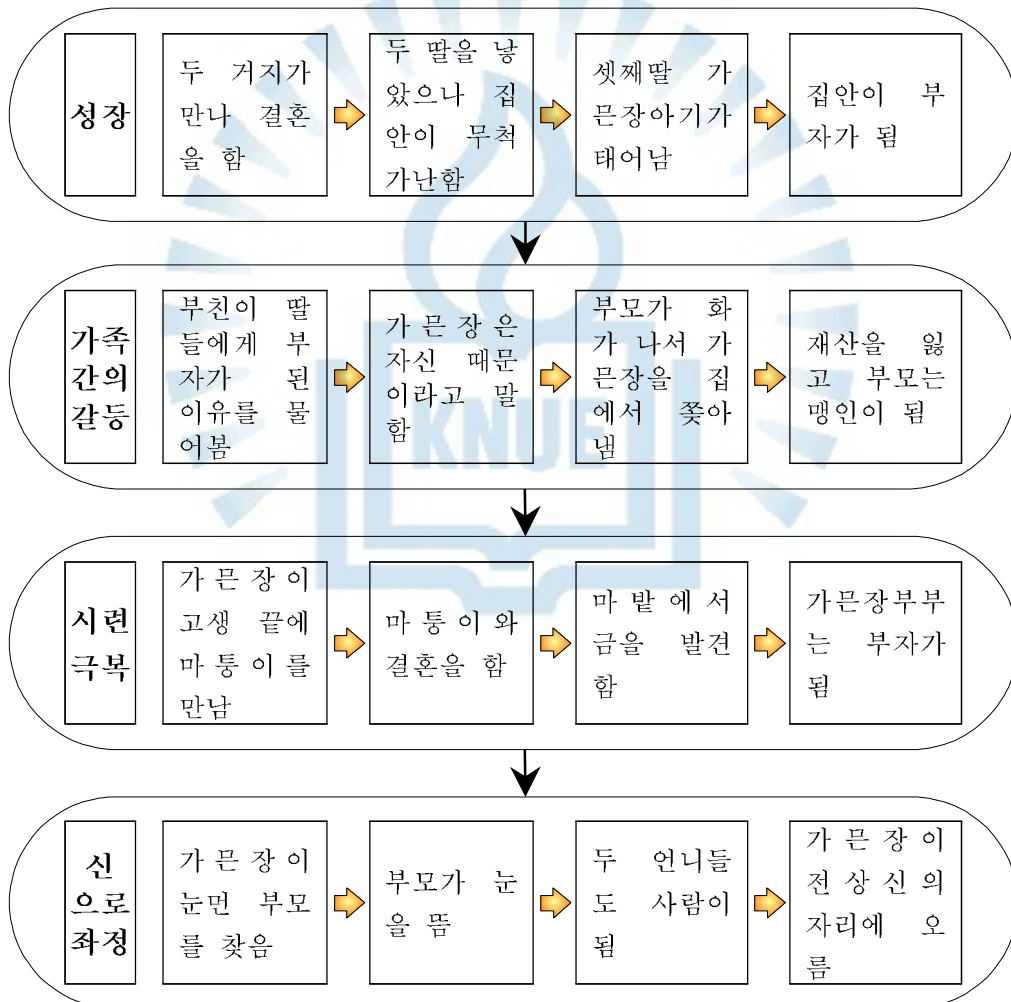
삼공본풀이를 음악극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전상놀이는 학생들에게 또 하나의 즐거움을 줄 수 있다. 학교에는 다양한 전상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전상은 학생들에 아픔과 고통, 슬픔을 주기도 한다. 안 좋은 가정환경, 낮은 성적, 시험 스트레스, 비만, 편식, 교우문제, 학교폭력 등등으로 인해 학교생활을 즐겁게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 전상놀이를 통해 안 좋은 전상을 모두 내다 버리는 행위는 학생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굿은 마음

41) 이수자,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서울:집문당, 2004), 60쪽.

을 치유하기 위해 하는 것이므로 간단한 놀이지만 좋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리라 본다.

3) 삼공본풀이의 서사구조

삼공본풀이는 그 내용을 보면 서로 인과적 구조로 연결되어 있다. 두 거지가 만나 결혼을 함 → 두 딸을 낳았으나 집안이 무척 가난함 → 셋째딸 가문장아가 태어남 → 집안이 부자가 됨 → 부친이 딸부된 물 → 가문장은 자신 때문이라고 말함 → 부모가 화가 나서 가문을 집에서 쫓아냄 → 재산을 잃고 부모는 맹인이 됨 → 가문장이 고생 끝에 마통이를 만남 → 마통이와 결혼을 함 → 마밭에서 금을 발견함 → 가문장부부는 부자가 됨 → 가문장이 눈먼 부모를 찾음 → 부모가 눈을 뜸 → 두 언니들 사람이 됨 → 가문장이 전상신의 자리에 오름



위의 표를 보면 가문장아기는 다시 성장⇒가죽 간의 갈등⇒시련극복⇒신으로 좌정이라는 4단계의 점층적 구조를 지닌다. 따라서 학생들이 모듈별로 내용을 나눠 극본을 꾸미게 된다면 이 4단계를 기준으로 나누면 되겠다.

4) 삼공본풀이의 음악적 구조

삼공본풀이는 음영(吟詠)조로 시작하여 3소박 4박(1.×4박)의 굿거리형으로 부른 다음 아니리 조로 무가의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어 3소박 자유박(3소박 3박이 가장 많음)에 굿거리 템포로 무가를 부르다가 2소박 자유박으로 빨리 몰아서 부른 다음 마치게 된다.

삼공본풀이에서 특이한 점은 보통 덕담창은 3소박 4박의 굿거리형으로 불리는데 삼공본풀이에 나오는 덕담창은 3소박 3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악보 1> 일반 덕담창⁴²⁾

신음: 1 Oct 아래

무가·장구: 이종춘
녹음 일시: 2002. 6. 1
녹음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구좌읍세화리

♩ = 80.58

날 도 좋 다 - - 공 덕 이 라

날 - 도 좋 고 - - - 공 덕 이 라

에 해 양 상 - 주 는 공 덕 이 라 아

은 공 덕 락 왕 생 극 락

등 고 득 락 한 - 왕 생 - 극 락

명 태 - 국 이 - 난 천 리 이 로 다 -

동 금 실 자 - 백 년 해 - 자 왕 생 - 극 락

42) 노재명 외, 앞의 책

<악보 2> 삼공본풀이 덕담창



오 - 늘 이 - 라 날 - 도 - - - - - 좋 - 아 - - - - - 서

옛 - 날 - - 옛 - 적 강 - 이 영 성 - 이 서 - - 부 - -

국 문 - - 구 청 구 부 - - 인 님 살 읍 - 디 - 다

큰 - 풀 아 긴 - 은 장 - 아 - 기 셋 - 풀 아 긴

낫 장 - 아 - 기 족 - 은 풀 - 은 가 문 - 장 - 엔

이 름 - 성 - 명 지 - 뵈 구 - 나

5. 삼공본풀이와 창의·인성교육

제주큰굿에는 12본풀이가 나온다. 그 중에서 삼공본풀이는 구비문학계에서 원형 설화로 인정을 받아 대표성이 인정되며 문학성이 풍부하고 효행을 권장하는 등 어린이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극적 요소가 드러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바른 가치관과 극적 요소는 바로 교육현장에서 창의·인성교육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 대별왕 소별왕, 삼승할망이야기, 오늘이 같은 많은 제주의 신화는 학생들에게 무한한 상상력의 세계를 펼칠 수 있게 해주며 원친강본풀이는 ‘오늘이’라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져 학생들에 큰 인기를 끌기도 했다.

삼공본풀이는 ‘가쁜장아기’ 또는 ‘감은장아기’라는 제목으로 많은 책⁴³⁾으로 출판되어 읽혀지고 있다. 책에서 다 보여주지 못한 가쁜장의 험난한 인생길을 생각하며 음악극으로 만들어보는 과정을 통해 충분히 창의성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의 창의·인성 요소 중 인성적인 요소는 개인이 혼자 책으로 익힐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발현되고 이러한 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것이다. 따라서 음악극 만들기라는 공동의 목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창의·인성 교육적 요소를 익힐 수 있다. 또한 삼공본풀이에는 효라는 주제와 주인공의 자아정체성이 잘 드러나 있어 좋은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삼공본풀이는 요즘 학교에서 강조되고 있는 성역할의 개념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재이기도 하다. 성역할은 사회에서 남자 또는 여자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 여러 행동양식을 의미한다. 학생들은 책을 읽으며, 영상을 보며 그

43) 조희정 외, 『저갓거리에서 세상을 배우다』 (서울: 우리학교, 2011), 23~35쪽
서정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신화』 (서울: 현암사, 2012), 145~154쪽
신동훈, 『살아있는 우리신화』 (서울: 한겨레출판, 2010), 213~220쪽
최정원, 『내 복에 산다 감은장아기』 (서울: 교학사, 2010)
서정오, 『감은장아기』 (서울: 봄봄, 2012)
현용준, 『제주도 신화』 (서울: 서문당, 2004)

속에 나오는 인물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전래동화 또는 옛날이야기가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긴 하나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 특정 시대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으며, 남성은 가부장제 가치관을 여성은 수동적이고 희생을 강요당하며 단순한 집안일을 수행하는 모습으로 그려질 때가 많다. 그런 이야기를 접하게 되는 유치원, 초등학생은 성역할 개념이 서서히 형성되어 가는 중요한 시기이기에 이야기에 묘사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 이러한 전통적인 성역할 구분은 전인적 발달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특히 여러 매체에서 보여지는 부정적인 여성적 가치와 역할은 사회적으로 여자 아이들을 위축시킨다.⁴⁴⁾

삼공본풀이에 나오는 가문장아기는 주체적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가문장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기질은 학생들에게 여성으로서의 주체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 또한 문학성과 아동정서와의 적합성을 놓고 볼 때 가장 음악극 소재로서 알맞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열두 본풀이 중에서 좀 더 교육적으로 활용도가 높고, 음악극 지도를 통해 창의·인성도 기를 수 있는 삼공본풀이를 음악극 소재로 삼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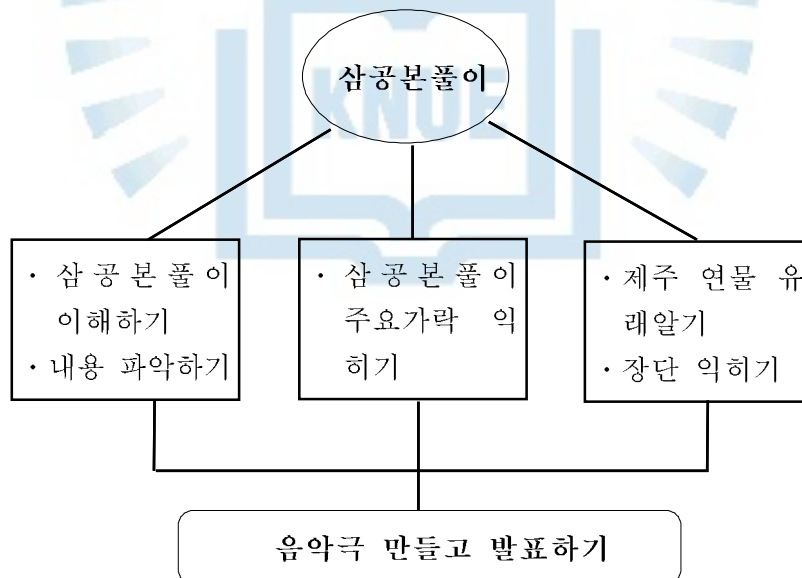
44) 고순덕, 앞의 논문, 13쪽

III. 지도단계 및 주제 선정

1. 지도단계 선정

삼공본풀이를 활용한 음악극을 지도함에 있어 음악극의 이야기소재와 음악은 삼공본풀이에서 추출하여 사용하게 되므로 삼공본풀이를 이해하고 감상을 통하여 내용을 파악하는 활동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삼공본풀이의 주요가락을 충분히 익혀 대본에 맞는 내용으로 바꾸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 과정이 필요하다. 음악극에 사용되는 효과음은 다양한 국악기를 이용해도 되나 제주 곳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제주 연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를 바탕으로 삼공본풀이를 활용한 음악극 만들기의 수업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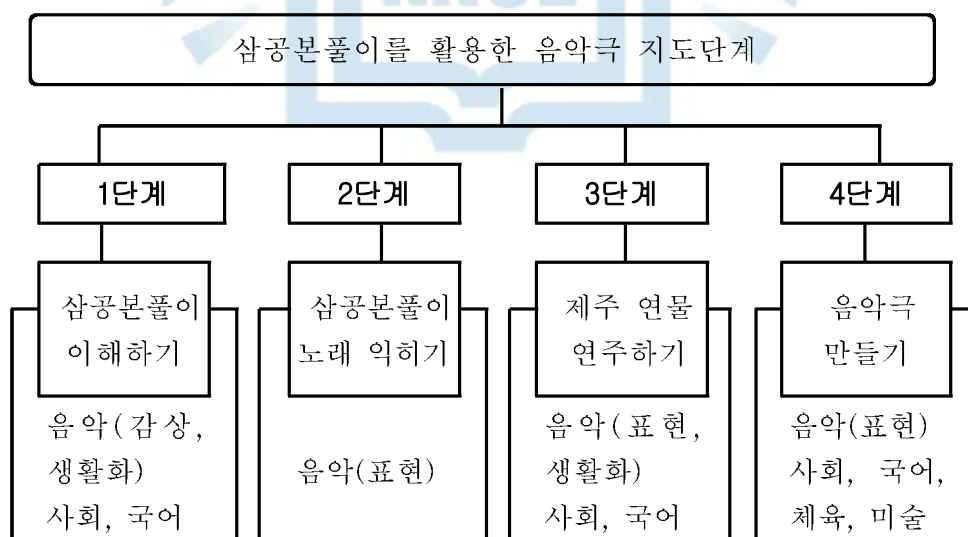
<표 10> 음악극 만들기 수업 흐름도



실제 삼공본풀이는 굿이 벌어지는 판이 무대가 되고, 굿을 주재하는 심방이 배우가 되며, 굿에 참여한 사람들이 관객이자 참여자가 되는 한판 놀이이자 종합적인 음악극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므로 삼공본풀이를 활용한 음악극의 지도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교과 통합적인 지도 방법을 통해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지도 방안은 음악 교과 내의 학습이 아닌 재구성된 여러 교과의 통합적 학습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각 교과에서 추구하는 학습목표에 도달하면서도 학습 내용은 제주의 사회 문화, 자연 환경, 방언과 민요에 부합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그리고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표현, 감상, 생활화라는 3가지 영역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표현, 감상, 생활화에 중점을 두고 지도단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삼공본풀이를 활용한 음악극 지도를 위해 지도단계를 감상과 생활화를 강조한 ‘삼공본풀이 이해하기’, 표현영역 중에서도 가창을 중시한 ‘삼공본풀이 익히기’, 표현 영역 중에서 기악을 중시한 ‘제주 연물 연주하기’, 표현영역 중에서 창작을 중시한 ‘음악극 만들기’로 구분하여 설정해 보았다.

<표 11> 교과 통합 지도단계 설정



2. 지도단계별 학습주제 선정

음악극 지도를 위한 5, 6학년 교과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음악극 지도를 위한 지도단계별 학습주제를 선정해 보았다. 4개의 지도단계에 따라 각각 학습주제를 2~4차시 정도로 선정하였다. 지도단계별 선정한 학습주제는 다음과 같다.

<표 12> 지도단계별 학습주제

지도단계		학습주제
1단계	삼공본풀이 이해하기	가. 제주의 곳, 제주인의 삶
		나. 삼공본풀이 감상하기
		다. 삼공본풀이 내용 파악하기
2단계	삼공본풀이 노래 익히기	가. 주요 가락 익히기
		나. 교실에서 즐기는 전상놀이
3단계	제주 연물 연주하기	가. 제주 연물의 유래 알기
		나. 제주 연물 연주 방법 익히기
4단계	음악극 만들기	가. 극본 꾸미기
		나. 음악극 구성하기
		다. 신체표현 구성하기
		라. 소품 및 기메 만들기
		마. 음악극 발표하기

학생들이 삼공본풀이를 전승공간에서 이해하고 통찰할 수 있고 음악극 만들기 활동 안에서 삼공본풀이의 학습 요소들이 소주제별로 수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과간 통합을 통한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세웠다.

<표 13> 교과 간 통합 운영 계획안

단계	관련교과 및 학습주제	주요 학습 활동	총15차시
삼공본풀이 이해하기	사회 제주의 곳, 제주인의 삶	→ 제주 곳에 대해 조사 발표 제주큰곳의 제의과정알기	1차시
	음악 삼공본풀이 감상하기	→ 삼공본풀이 이해하기 삼공본풀이 감상하기	1차시
	국어 삼공본풀이 내용 파악하기	→ 가문장아기 이야기 읽고 내용 파악하기	1차시
삼공본풀이 노래 익히기	음악 주요 가락 익히기	→ 삼공본풀이 주요가락 따라 부르고 익히기	1차시
	음악 덕담창 익히기	→ 덕담창 익히기 가사 바꿔 부르기	1차시
	음악 교실에서 즐기는 전상놀이	→ 전상놀이 익히기 전상놀이하기	1차시
제주 연물 연주하기	사회 제주 연물 유래 알기	→ 제주 연물의 유래 알기 제주 연물의 종류 알기	1차시
	음악 제주 연물 연주 방법 익히기	→ 제주 연물 기본장단 익히기 제주 연물 연주하기	1차시
음악극 만들기	국어 극본 꾸미기	→ 장면 선택하기 극본 꾸미고 수정하기	1차시
	음악 음악극 구성하기	→ 대본 읽으며 음악 넣기	2차시
	체육 신체 표현 구성하기	→ 내용에 맞게 신체표현 구성하기	1차시
	미술 소품 및 기메 만들기	→ 소품 및 기메 만들기	1차시
	음악 음악극 발표하기	→ 음악극 발표하기	2차시

굿 음악이 지닌 악·가·무 일체의 종합적 특징을 살려내기 위해 음악과뿐만 아니라 체육과, 사회과, 국어과, 미술과 등의 교과 시수를 적절히 배분하도록 하였다.

삼공본풀이는 제주큰굿에서 제차되는 굿의 일부분이므로 삼공본풀이를 지도하기전에 먼저 제주큰굿에 대해서 살펴보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이에 제주의 굿과 그 굿에 나타난 제주인의 삶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을 제일 먼저 넣었으며, 다음으로 삼공본풀이를 감상하고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학습주제를 선정하였다.

2단계에서는 음악극을 위해 삼공본풀이의 주요가락을 익히도록 하고 간단히 전상놀이를 통해 학생들이 처한 환경이나 어려움 등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주제를 선정하였다.

3단계에서는 제주 연물의 유래를 알아보고 연주해 보는 시간을 넣었다. 실제 삼공본풀이를 가창할 때는 장고 외의 악기는 연주되지 않는다. 하지만 제주 굿의 느낌을 살려 음악극을 좀 더 실감나게 만들고, 학생들로 하여금 제주 고유의 악기인 제주 연물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학습주제를 선정하였다.

4단계에서는 실제 삼공본풀이 이야기를 극본으로 만들고 음악극으로 꾸며보는 시간을 갖도록 학습주제를 선정하였다. 극의 효과를 위해 소품이나 굿을 할 때 꼭 필요한 배경인 기메를 만들어 보는 시간도 선정하였다.

IV. 음악극 만들기 지도방안

1. 삼공본풀이 이해하기

본 단계에서는 제주인의 삶과 관련하여 왜 굿이 필요했는지 생각해보고 제주큰굿의 제차과정을 통해 본풀이를 가치를 알고 삼공본풀이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또한 삼공본풀이를 직접 감상하며 음악적 특징을 살펴보고 내용 파악을 통해 음악극의 내용 흐름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삼공본풀이를 활용한 음악극 만들기의 첫 단계인 ‘삼공본풀이 이해하기’의 수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 14> ‘삼공본풀이 이해하기’ 수업계획

소주제	차시 교과	학습목표	학습자료	학습 조직
제주의 굿, 제주인의 삶	→ 1차시 사회	제주큰굿에 대해 알아보고, 제주큰굿의 제차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제주인의 삶의 모습 관련 사진 -제주큰굿 동영상 자료	전체 활동
삼공본풀이 감상하기	→ 1차시 음악	삼공본풀이를 감상하고 인상적인 부분을 찾아 이야기 할 수 있다.	-삼공본풀이 녹음자료 -감상학습지	개별 활동
삼공본풀이 내용 파악하기	→ 1차시 국어	삼공본풀이의 내용을 가문 장아기 설화와 비교하며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가문 장아기’ 관련 도서	개별 활동

가. 제주의 굿, 제주인의 삶

◆ 학습목표: 제주큰굿에 대해 알아보고, 제주큰굿의 제차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소주제	관련 교과	주요 학습활동	창의·인성 관련 요소
제주의 곳, 제주인의 삶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곳에 대한 자료 조사 발표하기 · 제주큰곳의 제의과정알기 · 본풀이 이해하기 	호기심, 융통성 배려

삼공본풀이는 제주의 큰곳의 한 제차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먼저 제주 곳과 제주인의 삶에 대해 연관 지어 이해시키는 활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난 후 제주큰곳의 의미를 알아보고 어떤 과정으로 제차되는지 알아보는 활동을 하게 된다.

1) 도입

● 제주 곳에 대해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기

- 학생들이 곳을 바라보는 시각은 모두 다르다. 곳을 처음 접하는 학생도 있고 직접 경험한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곳에 대해 아는 것,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을 자유롭게 적어 볼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제주 곳을 수업에 가져올 수 있도록 한다.

● 제주인의 삶과 관련해 곳은 왜 필요했을까 생각해 보고 우리 생활 속에 남아 있는 무속의 흔적 찾아보기⁴⁵⁾

- 제주에서는 통시(화장실)와 정지(부엌)를 멀리 반대 방향에 만드는 데 그 이유는 문전본풀이에 기인한다.

- 조상의 제사 때나 명절 때 조상에 대한 본제를 지내기 전에 문전제를 약식으로 지내는데 이것은 집안을 지켜주는 문전신에 대한 제의이다.

- 문전제를 지내면 제상을 부엌으로 넘기고 주부는 그 상의 제물을 조금씩 떼서 부엌에 놓아두었다가 처리하는데 이것은 조왕신에 대한 제의이다.

45) 현용준, 『제주도 사람들의 삶』 (서울: 민속원, 2009), 78~79쪽 참조.

- 제주를 대표하는 문화 중에 하나인 정낭 역시 신이 존재해 있는 상징물이다. 정주목에 정낭이 모두 걸쳐 있으면 정주목신이 통행금지를 내린 것이 되고, 정낭을 열어 놓으면 신이 자유통행을 허락하는 셈이다. 정낭이 닫혀 있으면 신이 통행금지를 시키는 것이므로 신벌이 무서워 도둑이 안 들어가는 것이지 도둑이 정낭이 올려져 있다고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 제주민요에서도 무속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이 왜 유네스코 인류유형유산으로 등록되었는지 생각해 보기

2) 전개

● 제주 굿에 대한 자료 조사 발표하기

- 5학년 국어 5.사실과 발견 단원에 알맞은 매체를 사용하여 발표할 주제를 조사하고 발표하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으며 6학년 국어 2.정보와 이해 단원에 여러 가지 매체에서 필요한 정보를 조사하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학생들로 하여금 조사할 매체를 정하게 하고 제주 큰굿에 대해 조사하게 한다.
- 조사하기 전에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음을 설명하고 제주의 굿이 문화적으로도 훌륭한 가치가 있음을 인지시킨 후 조사활동을 시키는 것이 좋다.
- 발표를 할 때는 PPT자료나 사진자료 등을 이용하여 발표하도록 한다.

● 제주큰굿의 제의과정알기

- 제주큰굿의 제의과정을 알게 하는 것은 삼공본풀이 등의 서사무가가 제주큰굿의 제의 과정에서 불림을 이해시키기 위한 활동이다. 그리고 본풀이 이해과정을 통해 그 본풀이가 사사무가이면서 제주의 신화임을 알게 한다.

(학습자료 1)

<학습자료 1> 제주큰곳의 제차 과정

제주큰곳은 4-5명의 심방이 동원되어 4-5일, 심지어는 ‘두이레 열나흘’ 즉 14일 간 곶판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제주큰곳은 ‘차례차례 제 차례 곶’으로 곶을 하는 기간, 규모면에서 가장 큰 종합적인 연회입니다. 이는 무당집에서 하는 ‘신곶’과 일반적인 가정에서 행하는 ‘큰곶’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곶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고, 제주도 사람들의 인생관, 우주관, 자연관을 비롯한 삶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곶의 춤, 노래와 사설 모두가 문화재적 가치가 높아서 2001년 8월 16일 제주도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제주큰곳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져요.

①초감제(천지왕본풀이) ⇨ ②초신맛이 ⇨ ③초상계 ⇨ ④추물공연 ⇨ ⑤석살림 ⇨ ⑥보세감상 ⇨ ⑦불도맛이(삼승할망본풀이, 마누라 본풀이) ⇨ ⑧일월맛이 ⇨ ⑨초공본풀이 ⇨ ⑩초공맛이 ⇨ ⑪이공본풀이 ⇨ ⑫이공맛이 ⇨ ⑬삼공본풀이 ⇨ ⑭제상계 ⇨ ⑮시왕맛이(차사본풀이, 멩감본풀이) ⇨ ⑯세경본풀이 ⇨ ⑰삼공맛이 ⇨ ⑱세경놀이 ⇨ ⑲문전본풀이 ⇨ ⑳본향드리 ⇨ ㉑각도비념 ⇨ ㉒물놀이 ⇨ ㉓도진 ⇨ ㉔가수리

그런데 순서 중에서 본풀이라고 하는 과정들이 보이죠? 이 본풀이가 바로 서사무가이고 제주의 신화입니다. 도서관에 가면 볼 수 있는 제주 신화 이야기들이 바로 이 본풀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 무가(본풀이) 이해하기

- 삼공본풀이는 제주 무가의 하나이고 또한 학생들이 직접 노래하며 음악극으로 만들 것이므로 무가에 대해 간단히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학습자료 2)

<학습자료 2> 신의 탄생 노래, 무가⁴⁶⁾

무가는 무당이 굿을 하면서 부르는 신의 일생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무가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면서 무당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신에 대한 신성한 노래니까, 아무나 재미삼아 부를 수 없기 때문이지요.

굿은 마을에 행운을 불러오기 위해 하기도 하고, 아픈 사람의 병을 고치거나, 죽은 사람이 좋은 곳에 가도록 하기 위해 하기도 합니다. 무당은 굿을 하여 자기의 신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영웅적인 활약을 했는지 사람들에게 알리지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신이 무당의 몸에 내려와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믿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신이 무당의 몸에 내려오면, 이때부터 무당은 신의 목소리로 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공수라고 합니다.

무당에게 신이 내려 공수를 하게 되면, 그 자리에 있는 잡귀들은 맥을 못 추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무당들은 칼과 창을 들고 이곳저곳을 찢러 대며 잡귀를 몰아내는 시늉을 하지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무당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당이 모시는 신이 하는 일이라 믿는 겁니다.

이처럼 무가는 신의 일생을 노래한다는 점에서 신화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무속의 시조 신화라는 뜻으로 무가를 무조신화라고도 부르지요. 무가는 신화처럼 신성하기 때문에, 무당만이 선배 무당에게서 그 노래를 배워 굿을 할 때 엄숙하게 부르게 됩니다.

무당에는 세습무, 강신무, 선무당이 있습니다. 세습무는 집안 어른 중에 무당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굿을 보고 자란 사람이 대를 이어 무당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강신무는 무당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신이 내려 무당이 된 경우예요. 그러니까 무가는 강신무보다 세습무가 더 잘하겠지요. 이에 비해 선무당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해 무당이 된 사람입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을 들어 보았나요? 아무 능력도 없는 선무당이 사람들을 속여 오히려 잘못되게 만든다는 말이지요.

46) 김문태,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구비문학』 (서울: 산하, 2007), 154~155쪽.

3) 정리

- 제주큰곳에 열 두 본풀이가 나오는데 그 본풀이가 많이 알려진 제주신화임을 알게 한다.
- 과제로 도서관에서 가문장아기 이야기를 찾아 읽어 오게 한다.

4) 평가

- 제주에서 곳이 왜 중요했는지 알고 있는가?
- 곳을 종교나 미신으로 보지 않고 우리 고유의 문화로 인식하고 있는가?

나. 삼공본풀이 감상하기

- ◆ 학습목표: 삼공본풀이를 감상하고 인상적인 부분을 찾아 이야기 할 수 있다.

소주제	관련 교과	주요 학습활동	창의·인성 관련 요소
삼공본풀이 감상하기	국어, 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공본풀이 이해하기 · 삼공본풀이 곁본 읽기 · 삼공본풀이 감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의 확장 상상력, 민감성 집중

1) 도입

- 제주 속담을 통해 본풀이의 의미알기
 - ‘귀신은 본을 풀면 신나락 만나락 하고, 생인은 본을 풀면 백년원수가 된다.’라는 속담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한다. 이 뜻은 인간은 결점이 많기 때문에 그 근본부터 모조리 해설을 하면 창피한 일만 수두룩 나와서 결국 원수가 되지만, 신은 전능하고 훌륭하니까 처음부터 해설을 하면 찬양만 듣는 결과가 되어서 의기양양해지고 기뻐한다는 말이다.
 - 본풀이는 본을 풀다의 명사형으로 신의 근본을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 제주 설화 중에서 읽었거나 아는 이야기 소개하기
 - 학생들이 소개한 이야기 중에서 본풀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찾아보게 한다.

2) 전개

● 미리 읽고 온 ‘가문장아기’ 이야기 줄거리 발표하기

- 굿 음악은 아직은 학생들에게 생소하기 때문에 무조건 들려주게 되면 가사를 잘 알아듣지 못하거나 관심을 갖고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먼저 학생들을 위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책⁴⁷⁾을 추천해 주고 미리 읽어 오게 하면 어느 만큼 들리듯이 조금은 관심을 갖고 감상에 임하게 될 것이다.

● 삼공본풀이 이해하기

- 삼공은 전상을 관장하는 신을 지칭한다. 때문에 삼공본풀이를 전상풀이, 또는 전상놀이라고도 한다. 전상이라는 말은 평상시와는 달리 마구 술을 먹거나 해괴한 짓을 하면서 가산을 탕진하는 행위나 그러한 행위를 일으키게 하는 마음, 또는 그렇게 만드는 신을 일컫는 말이다. 바로 이 전상을 관장하는 신이 삼공이다. 일반적으로 시왕맞이 굿을 한 후에 이 삼공본풀이를 가창한다.

● 삼공본풀이 굿본 읽기

- 삼공본풀이를 감상하기 전에 삼공본풀이 굿본을 읽으며 내용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학습자료 3)

<학습자료 3> 삼공본풀이 굿본

삼공본풀이 굿본⁴⁸⁾

옛날이라 옛적에 강의영성이서불과 국문구천구부인 살읍데다. 그해엔 농설 지은 것엔 흉년드난, 강의영성이서불 아랫녘이나 풍년들엇 결랑 얻어먹젠 허곡 국문구천 구부인도 우녘에 얻어 먹으레 가는 것이 가단보난 만나 부제간을 맺어근 살읍데다. 흐를은 국문구천구부인님은 아긴 나난 은그릇에 밥을 주영 은장아기로 이름을 지읍데다. 또 잇이난 딸아기 난 낫그릇에 밥을 주엇

47) 서정오, 『감은장아기』 (서울: 봄봄, 2012)

더니 낫장아기로 이름 성명 삼짜를 지어수다. 죽은 딸아기가 나난에 남박새기에 밥을 주난 가문장아기로 이름 성명 삼짜를 지웁네다.

흐를날은 큰딸아긴 불리당근 서른 은장아기야, 너는 누구 덕에 먹곡 누구 덕에 행궁발신을 허염시킨 허난, 하느님도 덕, 지하님도 덕입네다만은, 아바님, 어머님 덕으로 먹고 행궁발신 허염수다.

셋딸아기 불리다 놓고 너는 누구 덕에 먹곡 누구 덕에 행궁발신을 허염시킨 허난, 하느님도 덕, 지하님도 덕입네다만은, 아바님, 어머님 덕으로 먹곡 행궁발신 허염수다.

죽은딸아기 가문장아기 불령 서른 아기야, 너는 누구 덕에 먹곡 누구 덕에 행궁발신을 허염시킨 허난, 하느님도 덕, 지하님도 덕이고, 영허여도 나는야 배또롱 아래 선그릇으로 살압수다. 이 말 곁아가난 아바님과 어머님 후유누 옥현다. 아방 눈에 곁리 어멍 눈에 실찌나난, 나 주신 거엿 아니 허년 나고 가랑 허니, 나고 간다.

나고 가단 보난 굴미굴산 아야산은 깊은 곳에 당허니, 마 파는 소리가 쿵 쿵 나난, 큰 아덜 마 파는 된 간보난 마를 팸시난에, 열로 가문 인간처나 좇 양가집네까 물어보아도 옥만 허멍 아니 곁아주곡, 셋마통이 마 파는 뒤 강 물어보아도 질을 안 ㄱ리차 주난 또시 내려강 죽은 마통이 마파는 뒤 강 어덜로 가민 인간처나 뵈네겐 허난, 요 질로 내려가당 봄성 허멍 비조리 초막 살이 돌찍이 거적문을 든 집이 잇수다.

큰 마통이 셋 마통이 죽은 마통이가 마 판 오랏구나. 마 숯아근 큰 성님은 가운디 복판 먹언 머리만 어멍안치 가정가고, 셋성님은 가운디 복판 머리꺼 정 먹어뵈 꼰랭이 어머님안티 가정가고, 죽은 마통이 마 판 온 거 숯아근 머리광 꼰랭이 자기 먹고 가운디 복판은 어머님 안네난은, 가문장아기 솟을 빌런 나주영산 옥록미 쫄 놓아근 밥을 출려근 큰 마통이안티 간 요 밥 먹읍센 허난에, 아니 먹언 돌턴다. 셋 마통이안티 밥을 출려 간 요 밥을 먹읍센 허난에, 아니 먹던 밥이랑 먹을 수가 업습네다. 죽은 마통이안티 간 마 밥상을 가전가난, 얻어먹어 가는구나.

마 파난 뒤 구경을 갖구나. 큰 마통이 파난 뒤 뭇똥이영 슬그렁허고, 셋 마통이 마 파난 된 가 보난 쉼똥만 비삭허고 죽은 마통이 마 파난 된 간 보난,

하루는 어머니도 보고저라, 아바님도 보고저라. 낭군님아 오닐부때 석덜 열
 흘 백일잔치 거리 잔치나 허여근 허긴 어찌 허파? 기영 허라. 가문장아기 석
 덜 열흘 백일동안 거리잔치를 허여근, 강이영성이서불 국문구친구부인 아기
 덜 나가븐 후에 다시 가난허연, 앞눈이 어둑영 기소문허난 석덜열흘 백일 거
 리잔친 연텐허난. 읍서 우리도 그 뒤강 밥 혼직이나 얻어먹겐

서론 하르바님 할마님 옛말이나 곱아봅서. 옛말도 없습네다. 본말이나 곱아
 봅서. 본디 말도 없습네다. 하르바님, 할마님. 이때꺼지 살아온 역대나 얘기허
 여 봅서. 놀래로 일친 간장이랑 다 풀립서.

- **굿본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시간을 갖는다.**(학습자료 4)

이름 ()

.....

.....

.....

2. 삼공본풀이 굿본을 읽으며 모르는 낱말(제주어)을 적어봅시다.

모르는 말	알게 된 뜻	모르는 말	알게 된 뜻

3. 각 인물의 성격과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어 봅시다.

인물	성격	그 이유

- 삼공본풀이 감상하기
- 미리 읽은 삼공본풀이 굿본을 떠올리며 감상하게 한다.
 - 감상학습지를 이용하여 삼공본풀이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다. (학습자료 5)

삼공본풀이 감상학습지

이름 ()

1.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누구를 위하여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

2. 반주를 하고 있는 악기는 무엇인가요? ()

3. 음악의 빠르기는 점점 어떻게 변해 가나요? ()

① 점점 느려진다. ② 점점 빨라진다.

4. 심방은 신에게 왜 노래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음악은 사람의 심금을 울려 감동시키는 것이므로 신도 감동시키는
영력(靈力)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야기도 음악성이 짙은 운율
적 언어로 이야기하면 신이 감동하여 소원을 더 잘 들어준다고 여김

5. 평소에 듣던 다른 음악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

6. 삼공본풀이는 숫자 3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는 데요, 아는 대로 써
보세요. (예: 딸이 세 명이다.)

.....

.....

.....

3) 정리

- 삼공본풀이를 듣고 느낀 점을 발표한다.
- 삼공본풀이의 음악적 특징을 정리한다.
 - 심방이 혼자 신을 향해 부른다.
 - 장구 반주에 맞추어 부른다.
 - 음악의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 대화형식의 이야기가 많다.
 - 반복적인 리듬이 많이 나온다. 등

4) 평가

- 주어진 과제를 잘 해결하며 감상에 임하였는가?
- 감상 느낌을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는가?

다. 삼공본풀이 내용 파악하기

◆ 학습목표: 삼공본풀이의 내용을 가문장아기 설화와 비교하며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소주제	관련 교과	주요 학습활동	창의·인성 관련 요소
삼공본풀이 내용파악하기	국어	· 가문장아기 이야기 읽기 · 내용파악 위한 학습지 해결하기	독창성, 자발성 효

1) 도입

- 지난 시간에 감상한 삼공본풀이를 떠올리며 선생님이 제시한 그림의 내용 이야기하기
 - PPT로 그림을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그림에 맞는 이야기를 꾸며 보게 한다.
(학습자료 6)

<학습자료 6> 그림보고 이야기 꾸미기

※다음 그림을 보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2) 전개

● 가문장아기 이야기 읽기

- 교사가 그림과 함께 읽어 줄 수도 있고, 텍스트를 복사해서 나눠 준 후 학생들이 돌아가며 읽게 해도 된다.

● 가문장아기 이야기에 대해 마인드맵 작성하기

- 읽은 텍스트 자료를 바탕으로 마인드맵을 작성하며 내용을 파악하도록 한다.

● 가장 기억에 남거나 마음에 드는 장면 이야기하기

-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말 또는 행동에 대해 발표한다.

●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학습지 해결하기(학습자료 8)

<학습자료 7> 가문장아기 이야기 텍스트 자료⁴⁹⁾

가문장아기 태어나다

옛날 옛적 어느 곳에 한 부부가 살았주게. 늘그막에 첫딸을 낳아신디, 집안이 막 가난해서 먹을 것이 이서사주. 동네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은그릇에 쌀죽을 담아 주난 이름을 은장아기로 지어서. 이듬해에 둘째 딸을 낳아신디, 또 먹을 것이 어섯주게. 동네 사람들이 늦그릇에 보리죽 담아 주난 이름을 늦장아기라 해서. 그 이듬해에 셋

49) 그림 및 이야기 출처: 서정오, 『감은장아기』(서울: 봄봄, 2012)
제주설화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제주어로 각색함.



째 딸을 낳아신디, 또 먹을 것이 어시난. 동네 사람들이 검은 나무그릇에 거죽을 담아 주난 그걸 먹고 살아나서. 그래서 이름을 가쁜장아기라 지었주게.

나는 내 덕에 먹고 삽니다.

해가 갈수록 살림이 많이 불어나 큰 부자 됐주. 하루는 어머니 아버지가 딸 삼형제를 불러 놓양

물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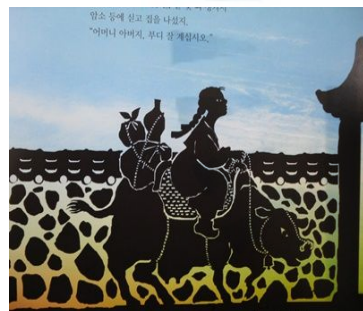
“첫딸 은장아기야, 너는 누구 덕에 먹고 살았시냐?”

“하늘님 덕, 땅님 덕, 아버님 덕, 어머니 덕이우다.”

“둘째 딸 늦장아기야, 너는 누구 덕에 먹고 살았시냐?”

“하늘님 덕, 땅님 덕, 아버님 덕, 어머니 덕입니다.”

“셋째 딸 가쁜장아기야, 너는 누구 덕에 먹고살았시냐?”



“하늘님 덕, 땅님 덕, 아버님 덕, 어머니 덕도 있지만 내 덕에 먹고삽니다.”

“은혜도 모르는 것 같으니라고. 어서 나가 불라.”

어머니 아버지는 화가 나서 가쁜장아기를 내쫓아 부렸주.

아버지 어머니가 때리러 온던 거짓말한 은장아기와 늦장아기는 그만 지네와 버섯이 되고 말아서. 큰딸

도 나간 뒤 소식이 없꼭 둘째 딸도 나간 뒤 소식이 어시난, 어머니 아버지는 속이 타서 허둥지둥 밖으로 달려 나갔주. 나가다가 그만 문설주에 눈을 부딪쳐 둘 다 장님이 돼 버린거 아니라.

집 쫓겨난 가쁜장아기의 새로운 삶

가쁜장아기는 암소 등에 옷과 쌀을 싣고 정처 없이 걸어갔주. 한 고개 넘고 두 고개 넘어 깊은 산으로 들어가신디 가다 보난 해가 저물언. 경해도 마침 산속에 움

막이 하나 있네.



“지나가는 나그네인디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함수다.”

“우리 집에는 아들이 셋이나 있어 빈방이 어수다.”

“방이 어시른 부엌에서라도 자쿠다.”

“그럼 그렇게 험씨.”

조금 있으니 와르릉 쿵쿵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

큰 아들이 마를 삶아서,

“어머니는 나보다 먼저 나서 많이 먹어시난 모가지나 드십서.”

둘째 아들도 마를 삶아서,

“어머니는 이도 없고 배도 작으니 꼬랑지나 드십서.”

그런데 막내아들은 마를 삶아서,

“어머니, 우리 삼 형제 낳아 기르느라 얼마나 애쓰셨수꽈?”

하고는 실한 가운데 토막일랑 어머니 드리고 자기는 양 꼬트머리를 먹는거 아니라. 가문장아기는 가져간 쌀로 밥을 지영 할머니 먼저 드린 다음 삼 형제에게 차례로 권했주게. 큰아들, 둘째 아들은 밥을 보더니 짹 돌아앉아.“이 따위 버리지 밥은 안 먹으키여.”

그런데 막내아들은 밥을 보더니,“아이고, 고맙수다. 잘 먹으쿠다.”

하고는 숟가락 가득 밥을 떠서 잘도 먹지. 이걸 보고 가문장아기는 막내아들과 혼례를 치렀지. 그리고 막내아들 마파던 곳에서 금덩이를 주워 부자가 되었주게.

부모 찾으러 거지잔치를 연 가문장아기

처마 높은 기와집에 풍경을 달고 많은 종을 거느리며 땡땡거리며 살게 되니, 가문장아기는 부모생각이 더욱 간절해진거라. 가문장아기는 남편과 의논하영 거지잔치를 열고 산지사방 소문을 냈지. 소문을 듣고 많은 거지가 모여들었주.

백일째 되는 날 저녁 무렵, 막대기 하나를 같이 짚고 더듬더듬 들어오는 장님거지부부가 가문장아기의 눈에 들어온거 아니라.

“저기 저 거지들한테는 음식을 주지 말고 잔치가 끝날 때까지 잡아 두라”



날이 저물어 다른 거지들이 다 돌아간 뒤에
가쁜장아기는 두 장님 거지를 안방에다 모셨
지.

“두 분은 옛이야기나 해봅서.” “그런 거 어수
다.”

“그럼 살았던 말이나 해보십써.”

부부는 굶이굶이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 보니 틀림없는 어머니 아버지 인거라.

“이 술 한 잔 드십써. 어머니 아버지, 제가 막내딸 가쁜장아기우다.”

“뭘, 뭐라고? 우리 딸 가쁜장이라고? 어디 보자.”

깜짝 놀란 부부가 술잔을 털링 떨어뜨리는 순간, 눈이 번쩍 떠졌주.

<학습자료 8> 내용과악 학습지

‘내 복에 산다’ 가쁜장아기

이름 ()

1. 가쁜장아기는 왜 쫓겨 났을까요?

2. 가쁜장아기는 왜 막내 아들과 혼례를 치렀을까요?

3. 가문장아기는 왜 거지잔치를 열었을까요?

4. 음악극을 꾸민다면 어느 장면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5.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다음 정간보에 넣어 ‘오돌또기’ 음악에 맞추어 불러 봅시다.

3) 정리

- 만든 가사를 오돌또기 반주에 맞추어 불러본다.
- 가문장아기 이야기에 나타난 효에 대해 정리한다.
- 가문장아기 이야기의 내용 흐름을 정리학습지를 통해 정리한다.

(학습자료 9)

<학습자료 9> 가문장아기 이야기 정리 학습지

※ 다음 그림을 보고 이야기 흐름에 맞게 순서를 정해 보세요.⁵⁰⁾



()

※ 그림과 이야기를 맞게 연결해 보세요.



우리 여기서도 못 얻어 먹을 거 다투 다. 그냥 가게 마 썸.
야! 막내야, 빨리 가볼라. 아버지영 어머니가 너 때리 젠 흥두께 들렁 나 왓쨌.
우리 아버지 어머 니 거지 되어 이곳 저곳 다니명 빌영 먹엄실건디 거지 잔치 열게 마썸.
가문장아기야, 너는 누게 덕에 먹고 살 압시냐?

4) 평가

- 이야기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
- 기억에 남는 장면을 정간보를 이용하여 가사를 만들고 노래로 부를 수 있는가?
- 가문장아기 이야기에 나타난 효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가?

2. 삼공본풀이 노래 익히기

본 단계에서는 삼공본풀이의 주요 가락을 익히게 된다. 익힌 주요가락을 중심으로 가사를 바꾸어 음악극에 이용하게 되므로 주요 가락을 반복하여 정확하게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덕담창과 전상풀이를 익혀 가사 바꾸기 활동도 함께 하게 된다.

<표 15> ‘삼공본풀이 노래 익히기’ 수업계획

소주제	차시 교과	학습목표	학습자료	학급 조직
주요 가락 익히기	→ 1차시 음악	· 삼공본풀이의 주요 가락을 듣고 부르기로 익혀 부를 수 있다.	· 삼공본풀이 녹음자료, 장고	전체 활동
덕담창 익히기	→ 1차시 음악	· 삼공본풀이 중 덕담창을 익혀 부를 수 있다.	· 삼공본풀이 녹음자료	전체 활동
교실에서 즐기는 전상놀이	→ 1차시 음악	· 삼공본풀이 중 전상풀이를 가사 바꿔 부르기로 부를 수 있다.	· 학습지	전체 개별 활동

가. 주요 가락 익히기

- ◆ 학습목표: 삼공본풀이의 주요 가락을 듣고 부르기로 익혀 부를 수 있다.

50) 그림출처: 서정오, 앞의 책

소주제	관련 교과	주요 학습활동	창의·인성 관련 요소
주요 가락 익히기	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공본풀이 주요가락 따라 부르기 · 삼공본풀이 주요가락 익히기 	정교성, 자발성 집중, 협동

1) 도입

- 삼공본풀이 중 주요가락 듣기
- 삼공본풀이 앞부분을 짧게 들려준다.

2) 전개

- 삼공본풀이의 주요 가락 따라 부르기
- 선생님이 들려주는 주요 가락을 듣고 따라 부른다.

<악보 3> 가문장아기 탄생

김명희 채보

죽은 딸 아기가 나 난 에 — — — —

남 박 새 기에 다 밥을 주 난 — — — —

가 문 장 아기로 이름 성 명 삼 자를

지 읊 데 이 다 — —

<악보 4> 누게 덕에 먹느냐

조영배 채보

너 는 - 누 게 덕 에 먹 고

누 게 덕 에 - - - - 행 공 발 신 허 나

<악보 5> 아버지 어머니 덕

김명희 채보

하 나 님 도 덕 이 고 지 하 님 도 덕 이 고

아 바 님 어 머 님 덕 으 로 먹 고 -

행 공 발 신 - - - - 험 니 당 - -

<악보 6> 마파는 소리

김명희 채보

나 고 가 단 보 난 굴 미 - 굴 산

아 야 산 은 깊 은 - 곳 에 당 허 니 -

마 파 - 는 소 리 - 가 쿵 쿵 - 난 다

<악보 7> 금 발견

조영배 채보

죽 은 마 통 이 마 파 난 디 간 보 난

금 이 여 은 이- 여- 가 득 이 션 구 나

<악보 8> 마툽이

김명희 채보

마 술 마 건 큰 성 님 은 가 운 디 복 판 먹 언

머 리 만 어 명 안 티 가 정 가 고

셋 성 님 은 — — 가 운 디 복 판 머리 꼬 지 먹 언 —

꼴 랭 이 만 — 어 머 니 현 티 가 정 가 고

죽 은 마 툽 — 이 — 마 팡 은 건 술 마 건

머 리 팡 — 꼴 랭 인 자 기 먹 고

가 운 디 복 판 은 어 머 님 안 네 염 켜

위에서 배우게 되는 주요가락은 음악극에서 그대로 이용해도 되지만 발표할 내용에 맞게 가사를 바꾸어 이용하게 된다. 가락을 정확히 익혀 자유롭게 가사를 바꾸어도 부를 수 있도록 한다.

3) 정리

- 주요가락을 익히며 느낀 점을 이야기한다.

4) 평가

- 주요가락을 정확히 익혀 부를 수 있는가?
- 무가의 특징을 잘 살려 불렀는가?

나. 덕담창 익히기

- ◆ 학습목표: 삼공본풀이 중 덕담창을 익혀 부를 수 있다.

소주제	관련 교과	주요 학습활동	창의·인성 관련 요소
덕담창 익히기	음악	· 덕담창 익히기 · 가사 바꿔 부르기	독창성, 즉흥표현 협동

1) 도입

- 지난 시간에 배운 주요가락 함께 부르기
- 제주 큰 굿 중 초감제에 나오는 덕담풀이 들려주기

2) 전개

- 삼공본풀이 중 덕담창 익히기

- 삼공본풀이 중에서 아버지와 가문장아가 만나 아버지가 신세한탄을 하는 부분이 나오는 데 덕담풀이를 변형하여 부른 것이다. 덕담풀이는 ‘오늘 오늘 오늘이라’로 시작을 하는 특이한 구조를 가졌다. 본풀이에는 심방의 낭창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삼공본풀이에 나오는 덕담창은 민요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예술성을 띠고 있다. 따라서 이 덕담창을 익히는 것은 의미 있는 교육활동이라 할 수 있다.

<악보 9> 덕담창51)

조영배 채보



오 - 늘 이 - 라 날 - 도 - - - - 좋 - 아 - - - - 서

옛 - 날 - - 옛 - 적 강 - 이 영 성 - 이 서 - - 부 - -

국 문 - - 구 청 구 부 - - 인 님 살 읊 - 디 - 다

큰 - 풀 아 긴 - 은 장 - 아 - 기 셋 - 풀 아 긴

눗 장 - 아 - 기 족 - 은 풀 - 은 가 문 - 장 - 엔

이 름 - 성 - 명 지 - 뵈 구 - 나

51) 국립국악원, 『한국음악』 제31집 (서울: 국립국악원, 2000), 332~333쪽을 재구성하고 덕담창이라 이름 붙임.

● 가사 바꿔 부르기

- 익힌 덕담창을 가지고 가사를 바꿔보는 활동을 한다. 음악극을 만들 때 모듬에 필요한 노래활용을 위하여 다른 장면을 넣어 가사를 바꿔 부르는 연습을 한다.

<학습자료 10> 가사 바꾸기를 위한 정간보

큰	돌	아	긴			은	장	아		기		셋	돌	아	긴				
늦	장	아			기		죽	은	돌		은		가	은	장		엔		
이	름	성		명		지	웠	구		나									

3) 정리

- 바꾼 가사로 노래를 불러본다.
- 활동 소감을 이야기한다.

4) 평가

- 덕담창을 익혀 부를 수 있는가?
- 가사를 바꿔 부를 수 있는가?

다. 교실에서 즐기는 전상놀이

◆ 학습목표: 삼공본풀이 중 전상풀이를 가사 바꿔 부르기로 부를 수 있다.

소주제	관련 교과	주요 학습활동	창의·인성 관련 요소
교실에서 즐기는 전상놀이	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상풀이 감상하기 · 가락 익히기 · 전상놀이하기 	독창성, 자발성 유창성 협동, 배려

1) 도입

● ‘전상놀이’의 일부분을 감상하기

- 전상놀이 동영상 자료를 보여주며 전상놀이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한다.

● 전상의 의미 알기

- ‘전상’이란 제주 방언은 ‘전생 인연’의 준말로 ‘전생(前生)’의 와음(訛音) 같으나, 그 뜻은 조금 다르게 쓰이고 있다. 일상용어로는 평상시와 달리 해괴한 짓을 하여 일을 망치거나 가산을 탕진할 때 그 행위를 ‘전상’이라 한다.

- 학교에는 다양한 전상이 존재한다. 안 좋은 가정환경, 낮은 성적, 시험 스트레스, 비만, 편식, 교우문제, 학교폭력 등등으로 인해 학교생활을 즐겁게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 전상놀이를 통해 안 좋은 전상을 모두 내다 버리는 행위는 학생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굳은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하는 것이므로 간단한 놀이지만 좋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리라 본다.

2) 전개

● 삼공본풀이 중 마지막에 나오는 전상풀이 감상하기

● 가락 익히기

- 전상풀이 가락을 충분히 듣고 익히도록 한다.

<악보 10> 전상폴이⁵²⁾

조영배 채보



글 허 기도 전 상 활 허 기도 전 상 심 방 허 기 전 - 상

기 자 허 기 도 - 전 상 - 이 고 선 생 허 - 기 도 -

전 - 상 이 여 어 진 전 상 이 랑 학 교 집 이 안 으 로

(free)
내 놀 리 고 모 진 전 상 이 랑 천 지 황 골 목 으 로 다 내 놀 립 니 다

52) 국립국악원, 앞의 책 336쪽을 재구성하고 전상폴이라 이름 붙임.

●생활 속의 전상 찾기

- 가정에서 학교에서의 생활, 또는 나의 생활 습관 등을 생각하며 좋은 전상과 나쁜 전상을 찾아보게 한다.

<학습자료 11> 전상놀이를 위한 학습지

‘전상’을 찾아라!

이름 ()

※ 공부하는 것도, 직업을 갖는 것도 모두 전상이라고 합니다. 내 주변의 좋은 전상과 나쁜 전상을 찾아서 나쁜 전상은 저 멀리 버리고 좋은 전상만 가져 볼까요?

1. 꼭 버리고 싶은 나의 나쁜 전상을 적어 봅시다.

2. 꼭 간직하고 싶은 나의 좋은 전상을 적어 봅시다.

● 가사 바꾸기

- 학습지에 적은 나쁜 전상을 가지고 정간보에 가사를 바꾼다.

<학습자료 12> 가사 바꾸기 정간보

글	허	기	도	전	상		활	허	기	도	전	상		심	방	허	기	전		

상			기	자	허	기	도		전	상	이	고		선	생					

허	기	도			전	상	이	여												

<학습자료 13> 가사 바꾸기 예시안

글	허	기	도	전	상		활	허	기	도	전	상		심	방	허	기	전		
장	난	치	기	전	상		게	임	하	기	전	상		욕	잘	쓰	기	전		

상			기	자	허	기	도		전	상	이	고		선	생					
상			편	식	하	기	도		전	상	이	고		늦	잠					

허	기	도			전	상	이	여												
자	기	도			전	상	이	여												

● 전상놀이

- 전상놀이의 주인공 거지를 뽑는다.
- 거지가 된 학생은 작은 담요나(무릎 담요)나 큰 보자기 등을 둘러쓴다.
- 학생이 쓴 학습지는 프로캠 등을 이용하여 화면에 띄운다.
- 나머지 학생들은 거지가 된 학생을 가리키며 학습지 속의 노래를 부른다.
- ‘모진 전상이랑 천지황 골목으로 다 내놀립니다.’를 크게 외치면 거지가 되었던 학생은 둘러쓰고 있던 보자기를 벗는다.

3) 정리

- 전상의 의미를 정리한다.
- 가문장아기가 왜 전상신이 되었는지 이야기한다.

4) 평가

- 전상놀이를 익혀 부를 수 있는가?
- 자신의 전상을 파악하여 가사 바꾸기를 할 수 있는가?

3. 제주 연물 연주하기

무악기(巫樂器)를 제주어로는 ‘연물’이라고 한다. 연물에는 북, 장귀(장구), 징, 설쇠, 4가지가 있으며, 이외에 ‘요령’과 ‘바랑(바라)’이 있다. 북, 장귀, 징, 설쇠는 모두 타악기로서, 주로 소미⁵³⁾(小巫)들이 굿을 하는 심방의 옆에 일렬로 앉아 치는 타악기들이다. 요령과 바랑은 심방이 들고 굿을 할 때 흔들거나 치어 소리를 내는 일종의 기원악기(祈願樂器)이다.

53) 아직 수습 기간 중에 있는 무당을 ‘소미’라고 한다. 같은 능력을 가진 심방이라도 고객의 주문을 받아서 하나의 굿을 주관하는 심방을 ‘수심방’, 그 일단으로 같이 굿을 하는 심방들을 ‘소미’라고 부르기도 한다.

제주 연물은 사물과 비슷하지만 연주하는 방법이 다르다. 또 다른 지방에는 없는 설쇠라는 악기가 연주되어 진다. 이런 제주 연물의 특징을 살펴보고 연물 치기의 기본 리듬 구조를 아는 방향으로 지도한다.

음악극 지도단계 세 번째인 ‘제주 연물 연주하기’의 수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 16> ‘제주 연물 연주하기’ 수업계획

소주제	차시 교과	학습목표	학습자료	학급 조직
제주 연물의 유래 알기	→ 1차시 사회	초공본풀이를 통해 제주 연물의 유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제주 연물의 유래 알기	전체 활동
제주 연물 연주방법 익히기	→ 1차시 음악	제주 연물의 특징을 알아보고, 연주방법을 익힐 수 있다.	-제주 연물의 특징을 알고, 연주방법 익히기	개별 활동

가. 제주 연물의 유래 알기

◆ 학습목표: 초공본풀이를 통해 제주 연물의 유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소주제	관련 교과	주요 학습활동	창의·인성 관련 요소
제주 연물의 유래 알기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연물의 유래 알기 · 제주 연물의 종류 알기 	사교의 확장, 상상력, 호기심 집중

1) 도입

● ‘젯부기 삼형제’ 연극의 일부분 보여주기

● 풍물놀이를 할 때 쓰이는 악기와 제주에서 굿을 할 때 쓰이는 악기는 어떻게 다를 지 생각해 보기

2) 전개

● 제주 연물의 유래알기

- 제주 연물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이야기한 본풀이가 바로 초공본풀이이다. 젓부기 삼형제 이야기를 통해 무조신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알려 주고 있는데 제주 곳에는 육지와는 다른 악기로 구성되어 있어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좋은 활동이 될 것이다. (학습자료 14)

<학습자료 14> 젓부기 삼형제 이야기

젓부기 삼형제 이야기

① 노가 단풍 자지명왕 아기씨 탄생

옛날 옛적 임정국 대감과 김진국 부인이 고대광실 높은 집에 태평하게 살았으나 50살이 다 되어도 자식 하나 없었어요. 황금 산 도단 땅 주자대사에게 자식 낳게 해달라고 하여, 하루에 삼세 번 연 석 달 열흘 백일정성을 드렸어요. 열달 뒤에 딸이 태어났는데 임정국 대감은 산천초목 구시월 단풍이 물들어 있는 것을 보고, 아기씨 이름을 <노가 단풍 자지명왕 아기씨>라 지었어요.

② 황금 산 도단 땅 주자대선생과의 만남

<노가 단풍 자지명왕 아기씨>가 십 오세 되던 해, 옥황에서 분부가 내려왔는데, 부부는 딸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 살장 안에 아기씨를 가두고 유모에게 구멍으로 밥을 주고 옷을 주면 돌아와서 종 문서를 돌려주겠다고 신신당부하고 떠났어요. 하루는 “저 달은 초승달이 반달이라도 <노가 단풍 자지명왕 아기씨> 보다 더 고우랴!” 라는 말에 주자대사가 삼천선비들에게 “아기씨한테 가서 시주를 받아오는 자가 있으면 돈 삼천냥을 준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주자대선생이 임정국 대감 집에 찾아와 요령을 세 번 쳐서 살장 자물쇠를 열었어요. 아기씨는 대문 밖에 나와 쌀을 비울 때에 주자대선생이 속에 숨겼던 손을 내뻗어 아기씨 상가마를 오른쪽으로 세 번, 왼쪽으로 세 번 끌어갔어요. 깜짝 놀라서 패썹한 중이라 욕하는 아기씨에게 “백일 뒤면 날 찾을 일이 저절로 있을 것이다”라며 가버리자, 유모가 급히 쫓아가 붙잡아 놓고, 장삼 귀 한 짝, 송낙귀 한 짝 잡아꿨어 물팡 돌 아래 묻어 두었어요.

③ 아기씨의 시련 그리고 삼 맹두 탄생

한 달 두 달이 지나가자 아기씨 배가 불러 오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게 되어 죽을 지경에 이르자 유모가 임정국 대감 부부에게 편지를 보내니 부부는 일 년 마칠 일을 한 달에 마치고 바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기씨 배 안에 중의 아들 삼형제가 앉아 있는 것이 본 부모는 아기씨와 유모를 집에서 쫓아냈어요. 집에서 쫓겨나 길을 가다가 어느 절 앞에서 귀 없는 송낙과 장삼을 발견하고는 주자대선생을 만나 송낙 귀와 장삼 귀를 맞추니 딱 맞지 뭐예요? 주자대선생은 자기는 중이라 부부로 살림을 차려 같이 살 수 없다 말하고 아기씨를 불도 땅에 들어가라 한답니다. 아기씨가 불도 땅에 들어가서 구월 초 여드레 날이 되어 오른쪽 겨드랑이로 큰아들 본맹두가 솟아나고, 왼쪽 겨드랑이로 둘째아들 신맹두가 솟아나고, 어머니 가슴 허우튼어 살아살축 삼맹두가 솟아나 태어났어요.

④ 젓부기 삼형제

본맹두, 신맹두, 삼맹두⁵⁴⁾ 삼형제는 한 살 두 살 계속 자랐으나,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 글공부를 못하다가, 서당에 들어가 큰 형은 벼룻물 가는 일, 둘째는 재털이 비우는 일, 셋째는 선생님 주무시는 방 굴뚝 때는 일을 하고 일을 마치면 굴뚝 어귀에서 재를 평평하게 해서 글공부를 하였어요. 이를 보고 삼천선비가 삼형제를 보고 <젓부기 삼형제>라 별명을 지어주었어요. 젓부기 삼형제가 열다섯 나는 해 삼천선비가 서울에 과거 보러 갈 때 삼천선비의 짐꾼으로 따라가게 되었어요. 삼천선비의 거짓말에 속은 삼형제는 위험에 처하나 팔죽 할마님과 팔죽 할마님 딸의 도움으로 큰형은 장원급제, 둘째는 문선급제, 작은 아우는 팔도 도자 되어 관복을 입고 기뻐하였답니다. 과거에 낙방한 삼천선비는 삼형제의 어머니를 가둬놓고, 유모를 꼬셔서 삼형제에게 거짓말을 하게 한답니다. 삼형제는 과거 급제를 포기하고 어머니를 찾아서 외할아버지 임정국을 찾아가니 외할아버지는 황금산 도단 땅 주자대선생이 너희들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어 삼형제는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찾아가려면 전생팔자 그르쳐야 찾으리라.”고 하자 삼형제는 천자문(천자 일월:엽전 모양의 동판, 무 점구)을 마련하고, 불도 땅에 들어간 너사메 아들 너도령과 의형제를 맺고 굴미굴산으로 올라가 오동나무 첫가로 북통을 만들고 망아지 가죽을 벗겨 북을 만들고, 장고와 징을 마련하여 삼천 천제 제석궁으로 들어갔어요. 두 일레 열나흘(칠일밤, 칠일날)동안 계속 울려서 <노가단풍 아기씨>를 살려내고, 삼천선비에게 복수를 한답니다.

● 제주 연물의 종류알기

- 제주도 곳에서는 악기를 ‘연물(演物)’이라고 하는데, 이는 장귀, 대영, 북, 설쇠를 지칭한다. 이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을 총칭해서 ‘너사메 너도령’이라고 말하는데 ‘너사메 너도령’은 신화의 주인공 인물이면서 악기를 두드리는 인물을 통칭하는 명칭이기도 하다.⁵⁴⁾

- 장귀는 장구인데, 육지의 장구에 비해 몸통이 작다. 제주도 곳에서 장귀의 쓰임새가 가장 긴요하기 때문에 이를 중요한 악기로 판단한다. 대개 심방이 본풀이라고 하는 서사무가를 독창으로 부르는 경우에 장구를 친다.

- 북은 구덕북이라고도 하는데, 대개 심방이 자체적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몸통이 울퉁불퉁해서 소박한 맛을 갖는다. 북은 광주리 위에 얹어 놓고 나무채를 들고 친다.

- 설쇠는 금속타악기인데, 밥공기 모양의 금속악기를 열린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거꾸로 둥근 나무통으로 만든 채에 얹는다. 채의 안 부분에는 끈으로 그물 모양의 받침대를 걸고 그 위에 설쇠를 얹어놓기 때문에 금속성 소리를 내는 것이다.

- 대영은 징을 일컫는 것인데, ‘울쨍’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대영은 윗부분에 두 개의 구멍을 뚫고 손잡이를 달아서 형겅을 짠 나무채로 친다.

54) 본멩두(멩두는 멩두의 사투리)는 요령, 신멩두는 신칼, 삼멩두는 산판(무점구로 낫쇠잔 두 개, 엽전두개와 이를 담는 낫쇠 그릇)을 가리키며, 심방은 적어도 조상으로 모시는 멩두를 한 벌 이상 지니고 있다.

55) 김현선, “제주도 곳의 구조와 원리” 『한국무속학』 (서울: 한국무속학회, 2007), 65쪽.

<표 17> 제주 연물의 종류

악기명	사진	특징	제주 곳에서의 사용
장귀		길이 약 50cm, 양고면의 직경은 30cm, 내외이다. 장구통을 세도막으로 분리할 수 있어 삼동맥이 살 장귀라고도 한다. 북편은 말가죽으로 만든다.	‘본풀이’를 구송할 때는 다른 악기는 다 쉬고 주로 심방이 혼자서 이것을 앞에 가로놓고 앉아서 장단을 맞춰가며 구송한다.
제주 북		일반적으로 북은 들거나 매고서 치는 것이지만 제주 곳에서는 북을 얹은 바구니 위에 얹어 놓고 두드린다. 또 양손에 대나무 밑둥으로 만든 채를 쥐고 북의 오른쪽만 치는 것도 특이하다.	가장 쓰임새가 활발하여 춤이나 무가 구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대영		놋으로 만든 악기인데 일반 징보다 작고 얇다.	높은 음을 내는 것으로 연물 가운데 춤을 추거나 산 받을 때에 쓰이는 격렬한 소리를 낸다.
설쇠		놋으로 만들었고 소리는 팽과리와 비슷하나 모양과 연주법은 전혀 다르다. 채는 실노끈을 여러 겹으로 꼬아 만들었다. 제주에만 있는 고유악기이다.	바닥에 채를 얹어 놓고 그 위에 고면이 위로 가게 설쇠를 올려놓고서 소무(小巫)가 양손에 채를 잡고 앉아 연주한다.

● 제주 굿의 악사 알기

- 제주에서는 무당을 심방 혹은 소미(小巫)라고 한다. 심방은 굿을 주재하고 연행하는 큰 무당을 일컫는 것이고, 소미는 굿에서 심방을 돕는 작은 무당을 일컫는 것이다. 심방 중에서도 굿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이를 수(首)심방이라고 한다. 제주도에서는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특별한 악사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보통 소미가 무당의 노래와 춤을 반주하는 역할을 한다.

3) 정리

● 제주 연물의 종류와 특징 알기(학습자료 15)

<학습자료 15> 제주 연물 바로 알기

제주 연물 바로 알기

이름 ()

1. 제주에서는 굿을 할 때 사용하는 악기를 연물이라고 합니다.

제주 연물의 종류를 쓰세요.

()

2. 제주에서는 북을 구덕북이라고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

3. 다음 중 제주 북은 어느 것일까요? () 56)



①



②



③

4. 다음 악기에 대한 설명과 악기 그림을 바르게 연결해 보세요.⁵⁷⁾



나는 선율악기는 아니지만 연물에서 가락을 연주하는 중요한 악기란다.



내가 세숫대야처럼 생겼니? 대양, 대영, 울징, 울짙 이름도 다양하단다.



나는 내 몸을 세도막으로 분리할 수도 있어. 몸통이 작고 허리가 길고 잘록하지.



나는 구덕위에 놓고 연주해서 구덕북이라고도 해. 양손에 채를 들지만 한 쪽 면만 치지.

4) 평가

- 제주 연물의 종류를 알고 있는가?
- 제주 연물의 특징을 이야기 할 수 있는가?

56) 사진출처: 이용식, “제주도 연물의 남방문화적 요소에 대한 고찰” 『한국무속학』 제24집 (서울: 한국무속학회, 2012)

57) 사진출처: 이용식, 앞의 논문

나. 제주 연물 연주방법 익히기

◆ 학습목표: 제주 연물의 특징을 알아보고, 연주방법을 익힐 수 있다.

소주제	관련 교과	주요 학습활동	창의·인성 관련 요소
제주 연물 연주방법 익히기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연물의 연주방법 익히기 · 제주 연물 장단 알기 · 장단 익히기 	융통성, 정교성 질서, 집중

1) 도입

- 제주 연물 연주 장면을 보며 음악 감상하기
- 제주 연물 연주 방법이 풍물 악기와 다른 점 이야기하기

2) 전개

- 제주 연물의 연주방법 익히기
 - 제주 연물 중에서 북, 설쇠, 대영 치는 법을 익힌다.

<학습자료 16> 제주 연물 치는 방법

제주 연물을 배워보자!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바람 많고 돌 많은 섬 제주에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적인 악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제주의 악기는 다른 비방과 다른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악기들을 연물이라고 하는데, 연물에는 대영, 설쇠, 북, 장귀가 있습니다. 이 악기들이 어떤 소리를 만들어내는 지 한번 배워 볼까요?

1. 제주 북을 쳐 봅시다.



제주 북은 우리가 풍물시간에 배우던 북과는 달라요. 눕히기 않고 세워서 쳐요. 그리고 채도 두 개를 가지고 치는데 장고처럼 양쪽 면을 치는 것이 아니라 두 채 모두 오른쪽 면을 함께 치게 되요. 오른손은 위로 왼손은 아래로 가게 해서 치게 되는데 오른손에 든 것을 ‘윗채’, 왼손에 든 것을 ‘알채’라고 부른답니다. 손의 위치가 바뀌게 되면 굉장히 불편한 자세가 되니 주의하세요. 함께 쳐볼까요?

‘구당 구당’

2. 설쇠를 쳐 봅시다.



설쇠는 제주에만 있는 고유의 악기입니다. 낫그릇처럼 생겼죠? 채를 뒤집어 그 위에 얹어 채를 만들어 젓가락장단처럼 연주하는 악기입니다. 오른손과 왼손에 채를 잡고 번갈아 가며 치면 됩니다. 구음은 열-두 당-번 인데 청소당번이라고 해도 되요. 자, 함께 쳐볼까요? ‘열-두 당-번 열-두 당-번’

3. 대영을 쳐 봅시다.



대영은 징과 비슷해요. 치면 소리도 비슷하지요. 하지만 대영의 소리가 더 맑은 것 같아요. 대영은 눕혀 놓으면 마치 세숫대야처럼 생겼어요. 왼손으로 고리를 잡고 오른손으로 치면 되요.

구음은 ‘팽’ 이랍니다. 함께 힘차게 쳐볼까요? ‘팽’, ‘팽’, ‘팽’

● 제주 연물 장단 알기

- 제주도 칠머리당굿에서는 심방의 노래가 없이 춤만을 연주하는 부분을 악기로 반주하는 것을 “연물(演物)친다”고 한다. 연물을 치는 경우는 구덕북, 설쇠, 대영의 세 악기만 연주하게 된다. 연물은 장단에 따라 삼석, 푸다시 연물, 살려옵서 연물로 나눌 수 있다.

삼석은 다신 템포에 따라 느진석, 중석, 자진석으로 세분된다. 삼석은 3소박 2박자 (6/8박자) 장단으로서, 느진석으로 시작해서 중석과 자진석으로 점차 빨라진다.

삼석 외에 춤 장단으로 푸다시 연물과 살려옵서 연물이 쓰인다. 이 때 “연물”이란 용어는 “장단”이란 용어로 쓰인다. 푸다시 연물과 살려옵서 연물은 조금 빠른 2분박 2박자 (4/4박자) 장단으로 빠른 춤을 반주하는데 쓰인다.

● 기본 구음 익히기

- 악기를 배울 때 먼저 구음을 배우게 되는데 구음은 심방에 따라 다르다. 제주의 대표적인 심방들의 구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⁵⁸⁾

제보자 연물	김만보 심방	김명월 심방	양창보 심방
대영	괭-설랑 괭	괭-털랑 도라부라 도라부라	괭낭들랑(강약) 괭낭괭낭(강강)
설쇠	느짱나짱 어루러마짜 (느진석) 열두당변 열두당변 (중판)	갈라먹게 갈라먹게 고니낭들랑(강약)	
장귀	통-따-쿵따쿵-	털어내라 털어내라	
북	쿵떡쿵떡		쿵-쿵-쿵쿵

- 위를 토대로 구음 및 기본 장단을 익힌다.

58) 김현선, 앞의 논문

J J J J J J J J
 열 - 두 당 - 번 열 - 두 당 - 번 (설쇠)

J. J. J J J J
 당 - - 당 - - 구당 - 당 구당 - 당 (북)

J. J.
 팽 팽 (대영)

<악보 12> 늦은석

[illegible][illegible]

3) 정리

- 제주 연물의 장단 정리하기

4) 평가

- 제주 연물의 장단을 이해하고 있는가?
- 제주 연물을 주어진 장단에 맞게 연주할 수 있는가?

4. 음악극 만들기

감상과 가창지도단계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음악극 만들기 단계에서는 실질적인 음악극 준비에 들어가는 단계이다. 삼공본풀이 내용을 중심으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을 모듈별로 선택하여 극본을 만들도록 한다. 국어, 미술, 음악, 체육 교과를 통해서 각각 삼공본풀이 대본을 제주도 방언을 사용해서 구성하고, 삼공본풀이의 무대를 꾸며, 각 모듈별로 발표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였다. ‘음악극 만들기’단계의 수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 18> ‘음악극 만들기’ 수업계획

소주제	차시 교과	학습목표	학습자료	학습 조직
극본 꾸미기	→ 1차시 국어	· 삼공본풀이 내용을 극 본으로 꾸밀 수 있다.	· 가문 장 아 기 이야기 자료	모둠 활동
음악극 구성하기	→ 1차시 음악	· 극본을 바탕으로 음악 을 넣어 음악극을 만들 수 있다.	· 제주 연물, 소 품 등	모둠 활동
신체표현 구성하기	→ 1차시 체육	· 극본을 바탕으로 신체 표현을 구성할 수 있다.	· 신체표현 예 시자료, 계획서	모둠 활동
소품 및 기메 만들기	→ 1차시 미술	· 음악극을 위한 소품과 기메를 만들 수 있다.	· 소품 및 기메 만들 준비물	모둠 활동
음악극 발표하기	→ 1차시 음악	· 삼공본풀이를 활용한 음악극을 발표할 수 있다.	· 제주 연물, 소 품 등	모둠 활동

가. 극본 꾸미기

◆ 학습목표: 가문장아기 이야기를 극본으로 꾸밀 수 있다.

소주제	관련 교과	주요 학습활동	창의·인성 관련 요소
극본 꾸미기	국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면 선택하기 · 극본 꾸미기 · 극본 수정하기 	상상력, 독창성, 정교성 협동

1) 도입

- 가문장아기 이야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이야기하기
- 음악극으로 만들고 싶은 장면 이야기하기

2) 전개

● 장면 선택하기

- 가문장아기 이야기 전체를 극본으로 꾸미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모둠별로 가장 마음에 드는 장면을 선정하여 극본으로 꾸미도록 한다. 장면을 선정할 때는 서로 다른 장면을 선택하도록 유도한다.

● 극본 꾸미기

- 선택한 장면을 가지고 극본으로 꾸미는 활동을 하게 된다. 삼공본풀이인 가문장아기 이야기는 제주의 무가이므로 가능하면 제주어를 꾸미도록 하되, 학생 수준에 맞게 일부만 제주어를 사용해도 되도록 한다.

<학습자료 17> 극본으로 바꾼 예시안⁵⁹⁾

<p><이야기 자료></p> <p>장면: 가문장아기 태어나다</p> <p>옛날 옛적 어느 곳에 한 부부가 살았주게. 늘그막에 첫딸을 낳아신디, 집안이 막가난해서 먹을 것이 있어야지. 동네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은그릇에 쌀죽을 담아 주난 이름을 은장아기로 지어서. 이듬해에 둘째 딸을 낳아신디, 또 먹을 것이 어섯주게. 동네 사람들이 늦그릇에 보리죽 담아 주난 이름을 늦장아기라 해서. 그 이듬해에 셋째 딸을 낳아신디, 또 먹을 것이 어시난. 동네 사람들이 검은 나무그릇에 겨죽을 담아 주난 그걸 먹고 살아나서. 그래서 이름을 가문장아기라 지었주게.</p>
<p><극본으로 바꾸기></p> <p>장면: 가문장아기 태어나다</p> <p>해설 : 옛날 옛적에 윗마을에 사는 ‘강이영성이서불’이라는 남자거지 영 아랫마을에 사는 ‘국문구천구부인’ 이랜 허는 여자거지가 살았수다. 흥년이 든 어느 날...</p> <p>남자거지 : (배를 쓸며) 배도 고프디... 아! 아랫마을에 풍년이랜 해신가? 뭐 한번 가 보주.</p> <p>여자거지 : (배를 쓸며) 배도 고프디... 아! 윗마을에 풍년이랜 해신거 닻은디... 뭐 한번 가보카...</p> <p>해설 : 가는 도중 만난 두 거지는 부부가 되어수다.</p> <p>여자거지 : (신을 소리를 내며) 악... 아기나오젠 악.. 햄수다.</p> <p>남자거지 : (호들갑 떨며) 어.. 어땡..어땡하코? 어땡하코?</p> <p>남자거지 : 좀..좀 도와줍서 나..나 아내가 아기 나오젠 햄수다.</p> <p>마을사람 : 아이고.. 나 도와주쿠다. 나 도와주쿠난 좀 가만이십써.</p> <p>남자거지 : 아..알아수다.</p> <p>해설 : 태어난 아기를 은그릇에 죽을 쑤어다 먹여수다.</p> <p>여자거지 : (아기를 안고 흔들며) 우리아기, 우리 곱따한 아기 이름 뭐로 하카?</p> <p>남자거지 : 은그릇에 죽 쑤영 먹여 살려시난 은장아기랜 허주.</p> <p>여자거지 : 거 좋네. 은장아기, 은장아기</p> <p>해설 : 남자거지 영 여자거지는 또 둘째를 가졌수다.</p> <p>여자거지 : (신을 소리를 내며) 악... 아기 나오젠 악.. 햄수다.</p>

59) 일부만 제시하였고 전체 자료는 부록에 제시함.

남자거지 : (호들갑 떨며) 어.. 어땡..어땡하코? 어땡하코? 또 마을 사람들 부르
카? 좀 도와줍서. 나 아내 둘째 나오젠 햄수다.

마을사람 : 아이고 둘째 나왓샤?

남자거지 : (초조해 하며) 예..예 둘째, 둘째 나왓수다..

해설 : 태어난 아기를 첫 아이보다 정성을 들이지 않아 낫그릇에 죽을 쑤어다 먹
여수다.

여자거지 : (아기를 안고 흔들며) 둘째 아기 우리 아기 이름 뭐로 하카?

남자거지 : 낫그릇에 죽 쑤영 먹여 살려시난, 낫장아기랜 허카?

여자거지 : 거 좋네. 낫장아기, 낫장아기

해설 : 다음에 또 딸이 태어났수다. 이번에도 마을 사람들이 도와 줬지만 이번엔
나무바가지에 밥을 해당 먹여 살려수다.

여자거지 : (아기를 안고 흔들며) 우리아기 우리 아기 이름 뭐로 허카?

남자거지 : 나무바가지에 밥을 해다 먹여 살려시난, 가른장아기로 하주게.

여자거지 : 가른장아기, 가른장아기 우리 예쁜 가른장아기

● 극본 수정하기

- 서로 작성한 극본을 읽어보며 내용을 수정한다. 어색한 부분은 고치고, 필
요 없는 부분은 삭제한다. 극본 수정이 끝나면 여러 번 읽어보고 배역을 정한
다. 배역이 정해지면 그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 인물의 입장에서 다시 극
본을 읽는 연습을 한다.

3) 정리

● 극본으로 꾸미며 힘들었던 점, 재미있었던 점 등을 이야기하기

4) 평가

● 선택한 장면을 극본으로 잘 꾸몄는가?

● 제주어를 적절하게 사용하였는가?

나. 음악극 구성하기

◆ 학습목표: 극본을 바탕으로 음악을 넣어 음악극을 만들 수 있다.

소주제	관련 교과	주요 학습활동	창의·인성 관련 요소
음악극 구성하기	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본을 읽으며 음악을 넣을 부분 정하기 음악 만들기 	독창성, 민감성 협동, 배려

1) 도입

● 연극 ‘가쁜장아기’ 동영상 감상하기

- 가쁜장아기 이야기는 여러 번 연극이나 뮤지컬로 만들어져 발표되었다. 그
중에 한 장면을 보여준다면 음악극을 만들기에 앞서 좋은 동기유발이 될 수
있다.

2) 전개

● 대본을 읽으며 음악을 넣을 부분 정하기

● 음악 만들기

- 만든 극본을 바탕으로 노래로 부를 부분을 정한다. 삼공본풀이 음악을 들
으며 음악을 익힌다.

- 효과음이 필요하거나 악기 연주가 필요한 부분을 정하고 연물 장단을 넣
어 연습한다.

<학습자료 18> 음악극 대본 예시안

가쁜장아기 이야기 (2)모듬

우리 모듬이 선택한 장면: #2 (가쁜장이 쫓겨나는 장면)

역할	해설	아버지	어머니	은장아기	눅장아기	가쁜장아기
이름	강○○	김○○	박○○	양○○	허○○	이○○
인물	대사		노래	효과음 장단	악기 및 소품	동작/ 신체표현
해설	가쁜장 아기가 태어 난 두 살이 되어 가난 집에 이상하게 운이 트는 거 라. 거지였던 사람들이 부자가 되 난 점점 오만해 졌주. 하루는 부부가 딸 들을 불러 모양 물은 거 아니라?					
부부	(친절한 목소리로)은장아 기야, 은장아기야, 너는 누구 덕에 호강하명 살았 시니?		악보 4		장고	
은장 아기	아방, 어멍 덕이우다.		악보 5			
부부	기여, 기여 게쁜, 눅장아 기야, 넌 누구 덕에 호강 하명 살았시니?		악보 4			만족한 듯 고개를 끄 덕인 뒤 질 문한다.
눅장 아기	아방, 어멍 덕이우다.		악보 5			
부부	기여, 기여 게쁜, 우리 가 쁜장 아기는 누구 덕에 호강 하명 살았신고?		악보 4			
가쁜장 아기	(당당한 목소리로)아방, 어멍 덕도 있주만 나는 내 덕에 먹고 살았수다.		악보 5 개사			
부부	이런 불효막심한 아이도 이시냐? 썩 나가 불라!			연물로 극적 분위기 조성	북,설쇠	화 가 나 서 손 가 락 질

					한다.
가쁜장 아기	(인사하면서) 아방, 어멍 잘 살고 계십써	느진석	가쁜장의 쓸 쓸한 발걸음 을 표현	설쇠	혼자 쓸쓸 히 길을 떠 나는 모습 을 춤으로 표현한다.
부부	동생 혼티 식은 밥에 물 말앙 이라도 먹영 가랜 허라.				
은장 아기	가쁜장아기야. 재기 가라. 아방 어멍이 너 때리러 나왓찌				빨리 가라 고 손짓한 다.
가쁜장 아기	큰 언니, 노뎃돌 아래로 내려 서거들랑 푸른 지네 로 환생해 불라.		지네로 변신 하는 장면에 서 효과음	북, 지네가면	
은장 아기	아이고 어멍허코, 지네로 어떻 살코		허벅으로 느 리게 굶거리 장단을 친다.	허벅	지네가 된 은장아기가 슬픔을 춤으 로 표현하다.
눅장 아기	가쁜장아기야, 재기 가라. 아방 어멍이 너 때리러 나왓찌				빨리 가라 고 손짓한 다.
가쁜장 아기	두엄 아래로 내려서민 버 섯으로 환생해 불라.		버섯으로 변 신하는 장면 에서 효과음	북, 버섯가면	
눅장 아기	아이고 어멍허코, 버섯으 로 어떻게 살코		허벅으로 느 리게 굶거리 장단을 친다.	허벅	버섯이 된 눅장아기가 슬픔을 춤으 로 표현하다.
해설	눅장아기가 두엄 아래로 내려서자 버섯이 되어 뿌리를 박고 서버렸수다. 방안에 앉아 기다리던 부부는 눅장아기 마저 소식이 어시난 불길한 예감				

	이 들어 열린 나가 봐야겠다고 생각허멍 문을 밀치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 문틀 위에 눈을 박안 봉사가 되어 수다.				
아버지	아이고 눈까지 안보이난 겨우 앓양 먹고 입는 거 밖에 못하키여.		느진석	연물	신세를 한탄하며 앓아서 하소연한다.
어머니	(신세를 한탄 하며) 아이고 가쁜장 아기 어시난 또시 거지 되불어신게.				땅을 치며 운다
모두	가쁜장 쫓겨나고 다시 거지 되었저. 불쌍한 우리 가쁜장아기 이제 어디로 가나.	악보 3개사	중석	연물	모듬원 이다 같이 춤을 춘다.

● 연습하기

- 음악이 정해지면 모듬별로 음악극을 연습한다.

3) 정리

- 수정해야 할 부분 이야기하기
- 더 연습이 필요한 부분과 연습 계획 이야기하기

4) 평가

- 장면에 어울리게 가사를 바꾸었는가?
- 모듬원과 협동하여 충분히 연습에 임하였는가?

다. 신체표현 구성하기

◆ 학습목표: 극본에 맞게 신체표현을 구성할 수 있다.

소주제	관련 교과	주요 학습활동	창의·인성 관련 요소
신체표현 구성하기	체육	· 극본내용과 주제에 맞게 신체 표현 구성하기	상상력, 자발성 협동, 질서

1) 도입

- 신체표현의 예시 동영상 보여주기
- 극본 중 신체표현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 밑줄 긋기

2) 전개

- 신체표현 구성하기
 - 주제와 이야기 또는 장면을 확인한다.
 - 신체표현을 할 장면을 선정하고 그림으로 먼저 움직임을 구성해 본다. (학습자료 18)
 - 이야기에 알맞은 움직임을 연결하여 작품을 완성한다.
 - 중심이 되는 동작을 계속 반복하거나 동작에 방향이나 높이 등의 변화를 주어 발전된 동작을 만들 수 있다.
 - 개인의 생각보다는 모둠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움직임을 만들 때 서로 의논하여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는 신체표현을 만든다.
 - 무리한 동작은 없는지 주제나 장면이 잘 나타났는지 확인한다.

<학습자료 19> 신체표현 만들기 계획서

<p>신체표현 만들기 계획서</p> <p style="text-align: right;">()모둠</p>			
<p>1. 신체표현을 할 장면 결정하기</p> <hr style="border: 0; border-top: 1px solid black; margin: 5px 0;"/> <hr style="border: 0; border-top: 1px solid black; margin: 5px 0;"/>			
<p>2. 신체표현 구성하기(간단한 그림과 글로 표현해 보세요.)</p>			
글	그림	글	그림

● 신체표현 연습하기

- 구성된 신체표현을 함께 연습한다.
- 부분 동작을 연습하고 전체를 연결한다.

3) 정리

- 신체표현이 음악극의 내용에 맞는 지 서로 점검하고 이야기하기
- 잘된 점, 아쉬운 점 이야기하기

4) 평가

- 신체표현이 극본의 내용과 어울리는가?
- 소외되는 학생이 없이 서로 협동하여 신체표현을 구성하였는가?
- 음악에 어울리는 동작인가?

라. 소품 및 기예 만들기

◆ 학습목표: 음악극을 위한 소품과 배경을 만들 수 있다.

소주제	관련 교과	주요 학습활동	창의·인성 관련 요소
소품 및 기예 만들기	미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품 만들기 · 기예의 종류와 역할알기 · 기예 만들기 	유창성, 독창성 융통성 책임, 배려

1) 도입

- 굿의 연행 장면 중 기예를 보여주고 기예의 역할 생각해보기
 - 기예란 무속 의례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무구의 하나로 창호지나 백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려 신체, 깃발, 창살 등의 형상으로 만든 것이다.
 - 기예는 쓰이는 용도에 따라 성격을 분류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신의

모양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신체(神體)상징물이다.

- 기메는 제장을 장식하는 용도로 쓰이는가 하면 의례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도구로 쓰이기도 한다. 이를테면 살장은 당쿨 앞을 장식하는 데 쓰이고 감상기는 신을 칭해 들이는 데 있어 무구처럼 쓰인다.

2)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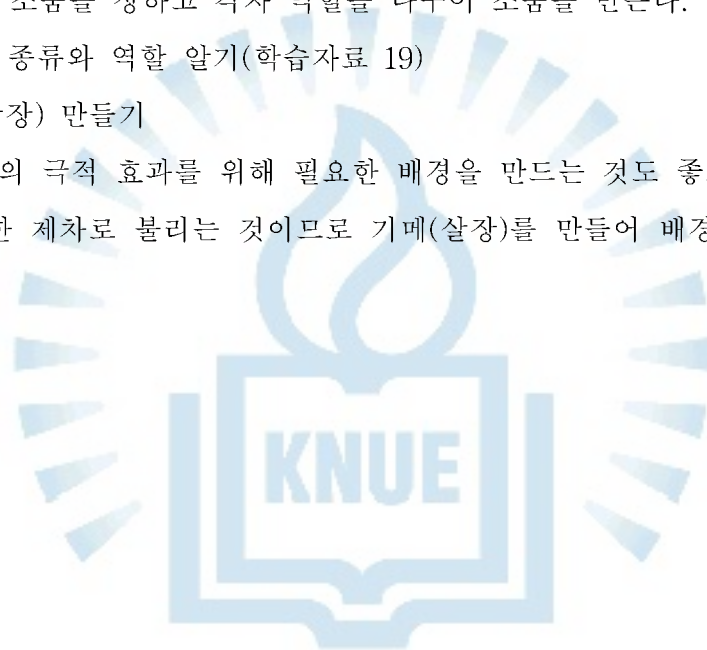
● 소품 만들기

- 필요한 소품을 정하고 각자 역할을 나누어 소품을 만든다.

● 기메의 종류와 역할 알기(학습자료 19)

● 기메(살장) 만들기

- 음악극의 극적 효과를 위해 필요한 배경을 만드는 것도 좋으나 삼공본풀이가 굿의 한 제차로 불리는 것이므로 기메(살장)를 만들어 배경을 꾸미는 것도 좋다.



<학습자료 20> 기메의 종류와 역할

심방이 곳하는 제청(곳하는 장소)을 보면 제상 주변을 중심으로 여기 저기에 창호기, 백지 또는 색종이를 오려 놓은 것을 걸어 놓거나, 푸른 잎이 달린 대에 묶어 매어 세워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총칭하여 기메라고 한답니다. 장식품처럼 조이지만 여러 가지 뜻이 있고, 역할이 있다고 하는데 한 번 알아보까요?

인간을 상징하는 기메		공간을 상징하는 기메	
	<차사기> 저승사자를 상징하는 기메		<살장> 제상 위쪽에 연이어 걸어서 신의 자리를 엄숙하게 가리는 창살을 상징하는 기메
	<영혼기> 죽은 영혼을 상징하는 기메		<오방각기> 들어온 신을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기메
	<영감탈> 영감놀이를 할 때 영감이 쓰면		<군문기> 푸른 대나무에 묶어 올레의 양쪽에 세워 곳하는 집을 신에게 알리는 기메
	<돌래지> 영혼이 저승을 가기 위해서는 열두개의 문을 지나야 하는데 각 문을 지키는 문지기를 뜻하는 기메	도구를 상징하는 기메	
			<감상기> 일만 팔천신궁의 문을 열게 하는 기메로 길 안내자 역할을 함

<학습자료 21> 기메 중 살장 만들기

	<p>긴사각형(가로세로 1:2비율)의 종이를 3등분해서 아래쪽에서 한번 접고 접힌 부분에서 반으로 접는다.</p>		<p>왼쪽 손으로 접힌 종이 아래쪽을 잡고 오른쪽에서부터 직삼각형으로 잘라 도려낸다. 종이 끝까지 M을 만든다.</p>
	<p>접힌 부분을 차례대로 맨 위의 2장만 펼친다. M모양이 ▷◁모양이 된다. 그 밑으로 직삼각형 모양을 사진처럼 잘라나간다.</p>		<p>종이를 모두 펼친다. 그러면 창상무늬가 완성! 다음 종이 위, 아래를 바꾸어서 가운데를 잘라낸다.</p>
	<p>종이를 완전히 펼쳐서 긴사각형을 옆으로 눕힌다. 밑부분만 가운데로 접고 한 번 더 그 상태로 접은 후 무늬대로 자른다.</p>		<p>확대된 부분을 보면서 왼손으로 접힌 부분을 잡고 역시 맨 오른쪽부터 무늬대로 자른다.</p>
	<p>드디어 끝! 펼치면 그림과 같은 모양이 된다.</p>		<p>다른 방법으로 살장을 만들어 보았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창의적인 살장을 만들어 봅시다.</p>

3) 정리

- 모둠에서 만든 소품과 기메 소개하기

		
기메를 만들고 있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제 솜씨 어때요?

- 소품과 기메를 만들며 느낀 점 이야기하기

4) 평가

- 음악극에 필요한 소품을 정의껏 만들었는가?
- 만드는 과정에 충실하게 기메를 만들었는가?

마. 음악극 발표하기

- ◆ 학습목표: 삼공본풀이를 활용한 음악극을 발표할 수 있다.

소주제	관련 교과	주요 학습활동	창의·인성 관련 요소
음악극 발표하기	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극 발표하기 · 다른 모둠의 발표를 보고 평가하기 	협동, 배려, 나눔, 집중

1) 도입

- 의상 및 소품 등 준비물 확인하기
- 기미를 이용해 무대 꾸미기

2) 전개

- 음악극 발표하기
 - 전체가 한 팀이 되어 발표할 수도 있고, 장면별로 팀을 나누어 발표할 수도 있다.

3) 정리

- 서로의 작품을 보고 느낀 점 이야기하기
- 잘된 점, 아쉬운 점 이야기하기

4) 평가

- 악·가·무가 어우러지게 음악극 발표를 잘 하였는가?
- 모둠간에 호흡을 맞추어 계획한 대로 발표하였는가?
- 다른 팀의 발표를 주의 깊게 잘 보았는가?

V. 결론 및 제언

최근 음악교육계에서는 문화적 상대주의에서 출발한 다문화주의에 기초한 음악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다문화주의 음악교육의 목적은 다른 문화에 대한 문화 예술적 이해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다른 음악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국의 음악문화에 대한 정체성 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세계가 인정한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학교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난 2009년 9월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중요무형문화제 제 71호인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을 세계무형유산으로 확정하여 등재하였다. 이로 인해 굿 음악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또한 제주큰굿의 가치를 찾고 문화를 보전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제주의 굿은 화려하며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고 놀이 형식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제주를 대표하는 전통적인 민속의 하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굿은 교육현장에는 낯선 문화이다. 그리고 여전히 굿을 미신으로 생각하고 사라져야 할 문화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무속에 대한 제주 도민 의식이 바뀌어야 하며 제주의 민속의 하나라는 생각으로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제주 굿과 관련된 제재곡이 학교현장에 도입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 무가를 음악극에 도입함으로써 제주 굿 음악을 좀 더 자연스럽게 접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제주큰굿에서 제차되는 본풀이 중 삼공본풀이를 음악극의 소재로 삼아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 문화를 자연스럽게 체험하는 장을 만들어주고자 하였다. 연극적 요소와 음악적 요소가 결합된 음악극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악·가·무가 결합된 우리음악 본연의 모습을 접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제주 무가를 음악극에 활용하기 위해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과 교육과정을 분석하였고, 교과통합 지도방안 마련을 위해 5, 6학년 도덕, 국어, 사회, 음악, 체육 교과서를 분석하여 음악극 활동을 위한 관련제재를 선별하였다. 그리고 제주큰굿과 삼공본풀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음악극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삼공본풀이 이해하기’, ‘삼공본풀이 노래 익히기’, ‘제주 연물 연주하기’, ‘음악극 만들기’ 등 4단계로 나누어 지도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삼공본풀이 이해하기 단계에서는 제주의 굿과 그 굿에 나타난 제주인의 삶에 대해 알아보고 굿의 가치를 느끼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삼공본풀이를 감상하고 줄거리와 의미를 전반적으로 삼공본풀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다.

둘째, 삼공본풀이 노래 익히기 단계에서는 음악극 만들기를 위해 삼공본풀이의 주요가락을 충분히 익히도록 하였다. 또한 간단한 전상놀이를 통해 학생들이 처한 환경이나 어려움 등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셋째, 제주 연물 연주하기 단계에서는 제주 연물의 유래를 알아보고 연주해 보게 하였다. 실제 삼공본풀이를 가창할 때는 장고 외의 악기는 연주되지 않지만 음악극을 좀 더 실감나게 만들고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주 연물을 배우고 연주하는 시간을 넣었다.

넷째, 음악극 만들기 단계에서는 실제 삼공본풀이 이야기를 극본으로 만들고 음악극으로 꾸며보는 시간을 갖도록 학습주제를 선정하였다. 극의 효과를 위해 소품을 만들고 굿을 할 때 꼭 필요한 기메를 만들어 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였다.

전통문화는 배우고 익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기회를 줌으로 인해 더더욱 그 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 삼공본풀이를 활용한 음악극을 지도는 그런 의미에서 더 의미 있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삼공본풀이 지도를 통해 굿이 미신이 아니라 지켜야 할 문화라는 새로운 인식과 자긍심이 고조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제주 연물 지도는 제주에도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수수한 악기와 가락이 있음을 알게 해주는 활동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제

주도를 전설의 섬, 민속의 섬이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을 익히고 찾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몇 가지 제언을 하려고 한다.

첫째,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악은 국악기로 지도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악기는 한정되어 있어 음악극 활동 시 다양한 효과음을 낼 수 있는 국악교육용 악기의 개발이 필요하고 본다.

둘째, 교과서는 교과의 목표와 성취 수준에 맞게 제시된 하나의 예일 뿐인데도 교육현장에서는 교과서를 맹신하며 충실하게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을 빠짐없이 지도한다. 하지만 음악은 지역의 문화와 여건을 고려하여 지도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연간 음악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타 교과와의 연계성 및 지역 문화와 지역 민요 등의 지도를 위한 재구성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선 가문장아기 이야기의 모태가 된 삼공본풀이를 중심으로 음악극 활동을 제시하였는데 그 외에도 문학적으로 음악적으로 우수한 본풀이(서사무가)가 많다. 제주 본풀이를 활용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및 음악극 지도 방안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1-361호 [별책12] 음악과 교육과정』,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2011.
- 국립국악원(편), 『향토민요 이렇게 가르쳐 보세요』, 서울: 민속원, 2000.
- 김문태,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구비문학』, 서울: 산하, 2007.
- 김수남 외 2인, 『제주도 영등굿』, 서울: 열화당, 1983.
-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 서울: 민속원, 2002.
- 김종상, 『새로 찾은 우리 신화』, 서울: 에림당, 2002.
- 노재명 외, 『제주도의 무속음악』, 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 문무병, 『바람의 축제 칠머리당 영등굿』, 황금알, 2005.
- _____, 『제주도 무속신화』, 제주: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 서정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신화』, 서울: 현암사, 2012.
- _____, 『감은장아기』, 서울: 봄봄, 2012.
- 신동훈, 『살아있는 우리 신화』, 서울: 한겨레출판, 2010.
- 이수자,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서울: 집문당, 2004.
- 장주근, 『제주도무속과 서사무가』, 서울: 역락, 2001.
- 조영배, 『제주도 노동요 연구』, 서울: 예술, 1992.
- _____, 「제주도 칠머리당굿의 음악적 특징」, 『제주도 칠머리당굿』 한국음악 제31집, 국립국악원.
- 조희정 외, 『저갓거리에서 세상을 배우다』, 서울: 우리학교, 2011.
- 최정원, 『내 복에 산다 감은장아기』, 서울: 교학사, 2010.
- 좌혜경, 『제주섬의 노래』, 서울: 국학자료원, 1995.
- 현용준, 『제주도무가자료사전』, 서울: 신구문화사, 1980.
- _____, 『풀어쓴 한국의 신화』, 서울: 집문당, 1998.
- _____,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서울: 집문당, 2002.

_____, 『제주도 신화』, 서울: 서문당, 2005.

_____, 『제주도 사람들의 삶』, 서울: 민속원, 2009.

【논문 및 정기간행물】

강영아, “제주무악의 초등가창교재 개발 연구”, 서울: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고순덕, “아동극에서 제주무속신화의 회극화 과정 연구: 가쁜장아기의 여성의 몸에 대한 주체적 인식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예술전문사 학위 논문, 2004.

권현정, “경상남도 민요의 연구를 통한 민요의 음악 교육적 활용방안”, 청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김경호, “초등학교 전래동요와 민요지도에 관한 연구”, 광주: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김수미, “국악곡을 활용한 음악극 창작 지도방안 연구”, 청원: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김진선, “민요를 활용한 교과 통합 지도 방안 연구”, 서울: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김현선, “제주도 굿의 구조와 원리” 『한국무속학』, 서울: 한국무속학회, 2007.

김혜정, “초등 국악교육에서 민요 토리의 이해와 교육적 활용” 『국립민속국악원 논문집』 2집, 국립민속국악원, 2002.

민승욱, “국악 구성요소와 학습활동의 연계성 연구”, 청원: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박희순, “교육연극 방법을 통한 제주 설화의 교재화 방안 연구”, 제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변미혜, “문화 예술 주제 중심의 교과간 통합 지도 방안”, 청원: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교과교육공동연구소, 2003.

- 성기련,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민요 관련 지도내용 고찰” 『한국민요학』 제 25권, 서울: 한국민요학회, 2009.
- 안효정, “<삼공본풀이>의 서사와 전상의 의미”, 청주: 충북대학교 교육대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 오남훈, “제주도 토속민요의 선율 양상 연구”, 청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 유현화, “교과 통합을 통한 음악극 <홍보 박타는 대목> 만들기 지도방안 연구”, 청원: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이용식, “제주도 연물의 남방문화적 요소에 대한 고찰” 『한국무속학』 제24권, 서울: 한국무속학회, 2012.
- 지소영, “제주 굿놀이의 교수·학습 방법 개발 연구”, 서울: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허영미, “천지왕본풀이의 진승 양상 및 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 청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 황루시, “무당굿놀이연구”, 서울: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참고음반】

- 국립국악원, <한국의 굿 No.4 - 제주 칠머리당굿>, 2001.
- 국립문화재연구소, <제주도 무가>, 2008.

【웹자료】

- 멀티미디어 제주민속관광 대사전 (<http://www.jejuro.com>)
- 제주디지털컨텐츠 (<http://myth.tamnatour.com>)
- 전통놀이와 춤 (<http://dance.culturecontent.com>)
- 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http://jeju.grandculture.net/>)

A B S T R A C T

Teaching Methods of Musical Drama Using '*Samgongbonpuri*' from Jeju Shaman songs.

Kim, Myeong-Hee

Major in Elementary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Byun, Mi-Hye
Sung, Ki-Ryun

Isolated from the main land, Jeju has maintained its unique natural,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and thus has a distinguished culture from other regions. In particular, a strong spirit of Jeju people that has survived the harsh natural environment and the pressure from the outside is still alive in Jeju-gut. Furthermore, Jegu-gut, a part of Jeju people contains Jeju people's wisdom of life including their view on life, universe and nature; is the essence of Jeju culture and its cultural heritage; and thus plays an important role in restoring community culture and the identity of Jeju. *Jeju-keungut*(*Greater Shamanic Rite of Jeju*), in particular, guards the original form of Korean gut well and thus the cultural values of

dance, song and verses in Jeju-keungut are high, which results in active discussions on conservation measures. Furthermore the *Bonpuri*(sing a song about the origin of Gods) in Jeju-keungut still keeps the unique musical characteristics and thus is the suitable educational materials in schools. However Jeju-gut has never been taught in schools due the prejudice that it is the product of a specific religion. This paper aims to seek the teaching methods using *Samgongbonpuri*(the shaman song for the God Samgong) in musical drama, focusing on how to teach the value of Bonpuri to student and how to let them recognize that.

Samgongbonpuri is a ancestral rite that sings the myth of Jeonsang God, praying bad *Jeonsang*(Karma) would leave, and invites good Jeonsang. Samgongbonpuri is well known as Gameunjangagi rather than as a Shamanic Epic. Gameunjangagi story meaning 'living on one's own luck' is about a Gameunjangagi who was thrown out by the angry father became rich after overcoming difficulties and gave a sight to the blinded father. The strong will of Gameunjang that has overcome difficulties and changed the destiny can help student develop the ability to judge values, and the consideration for the weak and other persons and filial love can help students develop right personality, which will facilitates the education of creativity and personality emphasized in 2009 revised curriculum and also provide the opportunities for students to learn the unique regional culture.

This study suggests the musical drama teaching methods for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year 5 and 6 by using Samgongbonpuri as follows. First, the music curriculum for the students in year 5 and 6 according to 2009 revised curriculum were analyzed and the educational elements relating to Samgongbonpuri musical drama education have been extracted; and then the methods to teach how to make musical drama have

been categorized largely into 4 steps and the study subjects fitting each step have been selected, accordingly.

First, in the step of understanding Samgongbonpuri, students could feel the value of Jeju-gut, appreciate Samgongbonpuri, and deepen their understanding of Samgongbonpuri through the activities to understand the contents. Second, in the step of learning Samgongbonpuri songs, students had the time to solve their problems through simple Karman play. Third, in the step of playing *Jeju-yeonmul*(*shamannist musical instrument*), students investigated the origin of Jeju-yeonmul and played the rhythm to learn the unique Jeju rhythm. Fourth, in the step of making musical drama, students dramatized Gameunjangagi and then made musical drama adding songs, effective sound and physical expression.

This study focuses on helping student develop creative expression skills and good personality and then recognize the value of Jeju-gut through a wide range of activities on Samgongbonpuri, as the material of musical drama, with the contents and imagination that help students have correct values and interests. The contents of Jeju-keungut, a story of my mother and my grandmother, can form a bond of sympathy between all elementary students in the whole country as well as the elementary students in Jeju. It is expect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would be used universally in schools and the awareness of Jeju-gut would change and Jeju people's pride in Jeju-gut would increase, which will result in the global expansion of Jeju-gut.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Elementary Music Education) in February, 2013.

<부록 1> 삼공본풀이 국 본

1부 탄생 - 은장아기, 낫장아기, 가문장아기의 탄생

옛날이라 옛적에 삼공 안땅 주년국님~살옵데다. 강의영성이서불 국문구천 구부인 살옵데다. 옷상식은 강의영성이서불 살옵데다. 알상식은 국문구천구부인님 살옵데다. 그해엔 농설 지은 것엔 흥년드난, 강의영성이서불 아랫넉이나 풍년들엇 걸랑 얻어먹젠 허여근, 아랫넉에 내립디다. 국문구천 구부인도 아랫넉에 흥년드난 우넉에 얻어 먹으레 가는 것이 가단보난 강의영성이서불 국문구천구부인 만났구나. 부제간을 맺어근 살옵데다. 얻어 먹영 그날그날 얻어당 먹어 사는데 흐를은 국문구천구부인님은 아긴 나난 은장아기 은그릇에 밥을 주영 이름 성면 짓긴 은장아기로 이름을 지옵데다. 또 잇이난 딸아기 샅고나. 이 아기는 낫그릇에 밥을 주엇더니 낫장아기로 이름 성명 삼짜를 지엇구나. 죽은딸아기가 나난에 남작새기에 밥을 주난 가문장아기로 이름 성명 삼짜를 지옵데다.

2부 추방 -나는야 베또롱 아래 선그릇으로 살압수다.

흐를날은 이서불영 국문구천 구부인님은 잘 사난 큰딸아긴 불리당근 서룬 은장아기야, 너는 누구 덕에 먹곡 누구 덕에 행궁발신을 허염시킨 허난, 하느님도 덕, 지하님도 덕입네다만은, 아바님, 어머님 덕으로 먹고 행궁발신 허염수다. 서룬아기 착허다. 니 방으로 가라.

셋딸아기 불려다 놓고 너는 누구 덕에 먹곡 누구 덕에 행궁발신을 허염시킨 허난, 하느님도 덕, 지하님도 덕입네다만은, 아바님, 어머님 덕으로 먹곡 행궁발신 험니텐 허난, 서룬 아기야. 착허다. 니랑근 니 방으로 가라.

죽은딸아기 가문장아기 불령 서룬 아기야, 너는 누구 덕에 먹곡 누구 덕에 행궁발신을 허염시킨 허난, 하느님도 덕, 지하님도 덕이고, 영허여도 나는야 베또롱 아래 선그릇으로 살압수다. 이 말 곱아가난 아바님과 어머님 후육누욕헌다. 아방 눈에 줄리 어멍 눈에 실찌나난, 나 주신 거영 아니 허년 나고 가랑 허니, 나고 간다.

서룬 큰딸애기, 나오랑 느네 죽은 아시 어만 쯤이나 가신 돌아보랜 허난, 먼 올레 나 산 물팡돌 우에 사심더로, 나 동형아 혼저 가라. 아바님, 어머님 죽일 태살 허저 부지땡이 가전 나오람젠 허난, 서룬 성님이랑 물팡돌 아래 내려가거들랑 청주냉이 흑주냉이 환성허여간다.

셋딸아기 서툰아기야 먼 올레 나고보랑. 니네 동생 어만큼 나고가셴 허난, 셋성님은 나오란 서툰 나동형아 혼저 가볼라. 어멍, 아방 니를 매로 태살허젠 오람시넨 허난, 셋성님이랑 걸름 위엥의서 내령앓거들랑 굶벙이로 환청헛서.

3부 극복 -마통이를 만나다

나고 가단 보난 굴미굴산 아야산은 깊은 곳에 당허니, 마 파는 소리가 쿵쿵 나난, 큰 아덜 마 파는 된 간보난 마를 팸시난에, 얼로 가른 인간처나 좇앙가집네까 물어보아도 욱만 허멍 아니 곶아주곡, 셋마통이 마 파는 뒤 강 얼로 가른 인간처나 갑네깁 질을 ㄱ리차 줍 셴 허난, 난 물론다. 후옥노욕허연 또시 내려가당 보난, 죽은 마통이가 마를 팸구나. 어덜로 가민 인간처나 뽕네겐 허난, 요 질로 내려가당 봄성 허멍 비조리 초막살이 돌쩍이 거적문을 돈 집이 잇수다.

알드레 내려오란 비조리 초막살이 먼 올레 들어간, 주인 잇거들랑 나그네 머십서. 할마님 나왕 곤는 말이 우리 마통이 아덜 마 팡 오랑근 집 빌려쫓텐 욱 드나네, 다른 되 좇앙가렐 해도 나맹기는 사름은 집을 지어근 나맹기멍 정쫓구석 이라도 빌려쫓셴 허난에, 빌려주언. 호썸 잇이난 우루루 쿵쿵 마덜 판 내려오람구나.

큰 마통이 들어오멍 이 어멍아, 무신 땀에 집을 빌려 줍디겐 헤연, 안으로 들어가고 셋 마통이 죽은 마통이가 마 판 오랏구나. 마 숯아근 큰 성님은 다 운디 복판 먹언 머리만 어멍안치 가정가고, 셋성님은 가운디 복판 머리꺼정 먹어뵈 풀랭이 어머님안티 가정가고, 죽은 마통이 마 판 온 거 숯아근 머리 팡 풀랭이 자기 먹고 가운디 복판은 어머님 안네난은, 가문장아기 솟을 빌린 나주영산 욱록미 쫓 놓아근 밥을 출려근 큰 마통이안티 간 요 밥 먹읍셴 허난에, 우리 조상대대로부떠 아니 먹던 밥을 양 먹을 수강 잇십네까. 아니 먹언 돌린다. 셋 마통이안티 밥을 출려 간 요 밥을 먹읍셴 허난에, 우리 조상대대로부떠 아니 먹던 밥이랑 먹을 수가 업습네다.

죽은 마통이안티 간 마 밥상을 가전가난, 얻어먹어 가는구나. 큰 성님도 나도 혼 숯가락만 도라. 딱뚝헛 밥 손에 노난에, 따불라 허엿구나. 호호 불멍 먹으난, 맛이 종앙 밥이로고나. 밥상을 물려두어, 큰 마통이 방에 들어가도 눈도 아니 뜬다. 셋 마통이 안티 가도 눈도 아니 뜬다. 죽은 마통이안티 가난, 서른 여덟 잇바디 허우딩삭 웃으난. 듯날 아 적 대명천지 붉은 날이레나.

마 파난 뒤 구경을 잤구나. 큰 마통이 파난 뒤 뭇똥이영 슬그렁하고, 셋 마통이 마 파난 된 가 보난 쉼똥만 비삭하고 죽은 마통이 마 파난 된 간 보난, 급이여 은이여 가득 잇었구나. 그걸 갖다당 천하거부 부제로 잘 살아.

4부 신의 좌정-가문장아기 거지찬치 열다

흐루는 어머니도 보고저라, 아바님도 보고저라. 낭군님아 오닐부떠 석털 열흘 백일 잔치 거리 잔치나 허여근 허긴 어찌 허파? 기영 허라. 가문장 아기 석털 열흘 백일동안 거리잔치를 허여근, 강이영성이서불 국문구천구부인 엇영 아기털 나가본 후에 다시 가난허연, 앞눈이 어둡영 기소문허난 석털열흘 백일 거리잔치 언텐허난. 읍서 우리도 그 뒤장 밥 혼직이나 얻어먹겐 허난에. 어서 석털 열흘이 다 웨여가도 다른 사름은 다 오라도 어머니, 아바지는 아니 나타가나난. 백일 쟈 웨는 날은 먼 올레 들어오는 건 보난에, 아바님 어머니 앞 눈 어둡언 홀목 심언 먼 올레 들어오라 가난에. 가문장아기 늦은턱 정하님아, 절로 들어오는 하르방 할망이랑 밥을 주웨 가운데 앓거들랑 양 옆의 만 주영 주지 말곡, 옆드레 아지긴 가운데영 주어근 저 할망 하르방이랑근 밥을 어둡도록 혼 짓도 주지말렌 허난.

강이영성이서불 국문구천구부인님은 들어간 상드레 앞헤연 이제나 주카 저체나 주강 허여도 밥 혼 직을 아니 주영. 해는 다 지난, 읍서 우리 이기서도 못 얻어먹을 팔접네다. 나고 가젠 허난에. 안사랑 출려놓고 밧사랑은 내외 사랑 출려놓고, 서룬 하르바님 할마님아 이레 오랑 아집서. 아지난 어서 요거 먹읍센 허연. 먹젠 허난 첫 수꾸락 목이 메연

(말)서룬 하르바님 할마님 옛말이나 곱아봅서. 옛말도 없습네다. 본말이나 곱아봅서. 본디 말도 없습네다. 하르바님, 할마님. 이때까지 살아온 역대나 얘기허여 봅서. (말)놀래로 일천 간장이랑 다 풀립서.

오닐 오닐 오닐이랑. 날도 좋아서 오닐이랑. 성덩을망 가실서냐. 옛날 옛적 강이영성이서불은 국문구천구부인정 삼읍네다. 흐를날은 딸 삼형제 낳구나. 큰딸아긴 은장아기엔 이름 짓고 셋딸아긴 늦장아기엔 이름 짓고, 죽은딸은 가문장앵 이름 성명 지웠구나. 흐를날은 야심허곡 심심허연에 세 딸아기 불려당근 누게 덕에 먹고 행궁발신히넵. 하나님도 덕입네다. 지하님도 덕입네다. 서룬 아버지 어머니도 덕입네다. 나 딸아긴 착헌 딸 니 방으로 나고가랑. 늦장아긴 불려다가 누게 덕에 먹고 행궁발신히넵. 부모 덕에 덕입네다. 니 방으로 나고가랑. 가문장아긴 불려당근. 누게 덕에 먹고 행궁발신히넵. 부모님

도 덕입네다만은 나 배또롱 아래 선그릇 덧으로 낭 먹고 행궁발신 험네텐 허난. 나고간 게 큰 딸애긴 물팡돌 아래 올라사단 내려사난 청주넝이 흑주넝이 환청허곡. 셋딸애긴 걸름 우엥 올라사단 내려사난 굶뻥이로 환청허난. 오닐은 석덜 열흘 백일동안 거리잔칠 현덴 허난 오랏수다. 우리 죽은딸은 가문장엥 아깁네다. 딸네 돌림 고허난

(말)아바님아 나가 가문장아깁네다. 나 술 혼잔 받음센 현 것이 아바님도 앞눈 어둑엇당 설훈 나 딸 어기동 아바님은 쟁 눈이 떴수다.

<부록 2> 삼공본풀이 극본 예시안 (학생작품)

장면 1 : 가문장아기의 탄생과 성장

해설 : 옛날 옛적에 윗마을에 사는 ‘강이영성이서불’이라는 남자거지 영 아랫마을에 사는 ‘국문구친구부인’ 이랜 허는 여자거지가 살았수다. 흥년이 든 어느 날...

남자거지 : (배를 쓸며) 배도 고평디... 아! 아랫마을에 풍년이랜 해신가? 뭐 한번 가 보주.

여자거지 : (배를 쓸며) 배도 고평디... 아! 윗마을에 풍년이랜 해신거 님은디... 뭐 한번 가보카...

해설 : 가는 도중 만난 두 거지는 부부가 돼었수다.

여자거지 : (신음 소리를 내며) 악... 아기나오젠 악.. 햄수다.

남자거지 : (호들갑 떨며) 어.. 어똥..어똥하코? 어똥하코?

남자거지 : 줌..줌 도와줍서 나..나 아내가 아기 나오젠 햄수다.

마을사람 : 아이고.. 나 도와주쿠다. 나 도와주쿠난 줌 가만이십씨.

남자거지 : 아..알아수다.

해설 : 태어난 아기를 은그릇에 죽을 쑤어다 먹여수다.

여자거지 : (아기를 안고 흔들며) 우리아기, 우리 곱딱한 아기 이름 뭐로 하카?

남자거지 : 은그릇에 죽 쑤엥 먹여 살려시난 은장아기랜 허주.

여자거지 : 거 좋네. 은장아기, 은장아기

해설 : 남자거지 영 여자거지는 또 둘째를 가졌수다.

여자거지 : (신음 소리를 내며) 악... 아기 나오젠 악.. 햄수다.

남자거지 : (호들갑 떨며) 어.. 어땡..어땡하코? 어땡하코? 또 마을 사람들 부르
카? 좀 도와줍서. 나 아내 둘째 나오젠 햄수다.

마을사람 : 아이고 둘째 나왔샤?

남자거지 : (초조해 하며) 예..예 둘째, 둘째 나왔수다..

해설 : 태어난 아기를 첫 아이보다 정성을 들이지 않아 낫그릇에 죽을 쑌어다
먹여수다.

여자거지 : (아기를 안고 흔들며) 둘째 아기 우리 아기 이름 뭐로 하카?

남자거지 : 낫그릇에 죽 쑌영 먹여 살려시난, 낫장아기랜 허카?

여자거지 : 거 좋네. 낫장아기, 낫장아기

해설 : 다음에 또 딸이 태어났수다. 이번에도 마을 사람들이 도와 줬지만 이번
엔 나무바가지에 밥을 해당 먹여 살려수다.

여자거지 : (아기를 안고 흔들며) 우리아기 우리 아기 이름 뭐로 허카?

남자거지 : 나무바가지에 밥을 해다 먹여 살려시난, 가문장아기로 하주게.

여자거지 : 가문장아기, 가문장아기 우리 예쁜 가문장아기

장면 2: 나는 내 덕에 살았수다

해설 : 가문장 아기가 태어난 두 살이 되어 가난 집에 이상하게 운이 트는 거
라. 거지였던 사람들이 부자가 되난 점점 오만해 졌주. 하루는 부부가
딸들을 불러 모양 물은거 아니라.

부부 : (친절한 목소리로) 은장아기야, 은장아기야, 너는 누구 덕에 호강하명
살았시니?

은장아기 : 아방, 어땡 덕이우다.

부부 : (고개를 끄덕이며) 기여, 기여 계문, 낫장아기야, 넌 누구 덕에 호강하명
살았시니?

낫장아기 : (팔을 들었다 내리면서) 아이구, 다 부모님 덕이우다.

부부 : 기여, 기여 착허다. (궁금한 목소리로) 계쁜, 우리 가쁜장아기는 누구 덕
에 호강 하멍 살암신고?

가쁜장아기 : (당당한 목소리로) 아방, 어멍 덕도 있고 하늘님, 땅님 덕도 있주
만은 경해도 나 덕에 먹고 살암수다.

부부 : (손가락질 하면서) 이런 불효막심한 아이가 이시냐? 썩 나가 불라!

해설 : 부모의 벼락같은 호통에 가쁜장아기는 입던 옷이영 음식들이영 챙겨수다.

가쁜장아기 : (인사하면서) 아방, 어멍 잘 살고 계십써.

해설 : 막내딸이 패썹하기는 했주만은 막상 작별인사 호젠허난 섭섭해진 부부
는 다시 불러들이젠 호는 심산으로 맘딸 혼티 말해수다.

어멍 : 동생혼티 식은 밥에 물 말앙 이라도 먹고 가랜 호라.

해설 : 은장아기는 부모마음을 눈치채고 시기심이 치미러 올랐수다.

은장아기 : (가라고 손짓 하며) 가쁜장아기야, 재기 가라. 아방 어멍이 너 때리
러 나왓쩌

해설 : 고약한 언니의 속셈을 안 가쁜장 아기는 중얼 거려수다.

가쁜장아기 : 큰 언니, 노뚝돌 아래로 내려 서거들랑 푸른 지네로 환생해불라.

해설 : 부모는 은장아기도 가쁜장아기도 들어오지 앓자 낯장아기를 불러 동생
을 불러오랜 해수다.

낯장아기 : (가라고 손짓 하며) 가쁜장아기야, 재기 가라. 아방 어멍이 너 때리
러 나왓쩌

해설 : 고약한 언니의 속셈을 안 가쁜장아기는 다시 중얼 거려수다.

가쁜장아기 : 두엄 아래로 내려서민 버섯으로 환생해 불라.

해설 : 낯장아기가 두엄 아래로 내려서자 버섯이 되어 뿌리를 박고 서버렸수
다. 방안에 앓아 기다리던 부부는 낯장아기 마저 소식이 어시난 불길한
예감이 들어 얼른 나가 봐야겠다고 생각하멍 문을 밀치고 밖으로 나가
당 순간 문틀 위에 눈을 박안 봉사가 되어 수다.

마을사람 : (함께 노래부른다.) 어멍허코, 어멍허코. 강이영성이서불, 국문구천

구부인님 또시 가난해졌저. 또시 장님 되었저.

아방 : (신세를 한탄 하며) 아이고 눈까지 안보이난 혼자 앓앙 먹고 입는 것 밖에 못하키여. 이제 어떻 살코.

어멍 : (신세를 한탄 하며) 아이고 가문장 아기 어시난 또시 거지 되불어신게. 우리 욕심이 과했주. 벌 받은거라. 가문장아기야, 어디이시냐?

장면 3 : 집 쫓겨난 가문장아기의 새로운 삶

해설 : 집을 나간 가문장아기는 검은 암소에 옷과 쌀을 싣고 정처 없이 길을 떠나수다. 이 고개 넘고, 저 고개 넘고 가도 가도 끝이 없는 허허벌판을 지남수다.

가문장아기 : (걱정하며) 이제 곳 해가 질건디...

해설 : 해는 서산으로 뉘엿뉘엿 기울어져수다.

가문장아기 : (걱정하며) 이 밤을 보내려면 인가가 있어야 할건디...

해설 : 걸음을 한참 재촉하여신디 멀리 다 쓰러져 가는 초가가 하나 보영 가보 아신디 머리가 허연 할망이 이서수다.

가문장아기 : (부탁하며) 지나가는 행인인디 하룻밤만 머물러 가도 되쿠과.

할망 : (난처한 표정으로) 우리 집에는 아들이 삼형제나 이신디 아가씨 잘 방 이 없으니 어떻허코에?

가문장아기 : (간절한 목소리로) 제발 정지에라도 자게 해줍써.

할망 : (고개를 끄덕이며) 알아수다. 경이라도 헉써.

해설 : 갑자기 와당탕 요란한 소리가 들려와수다.

가문장아기 : (궁금한 듯) 이게 무슨 소리라? 난리 나신가?

해설 : 큰 아들이 일을 마치고 요란하게 들어는 것이우다. 알고보니 예. 아들 삼형제는 마를 캐다 파는 마통이어수다. 큰 아들이 정지쪽을 힐끗 보더니 예 고래고래 악을 써수다.

큰 아들 : (소리 지르며) 우리 어멍, 애쓰게 마 파다가 배부르게 먹여신디 지나

가는 떠돌이 아이 데려다 노는구나 예!

해설 : 둘째 아들도 요란하게 들어오더니 한번 휘 둘러보고 옥을 해대신디 좀 이시니 셋째 아들도 와당탕 들어오는데 다른 소리를 해수다.

셋째 아들 : (감탄하며) 야, 이거 우리 집에 난데없이 검은 암소며 사람이 들어 왔구나. 하늘에서 도우려나 봄수다!

해설 : 가문장아기는 삼형제의 행동을 안 보는 척 살펴수다. 삼형제는 저마다 파 가지고 온 마를 삶아서 저녁으로 먹어수다.

첫째와 둘째아들 : (욕심 부리며) 어명은 먼저 태어나 오래 살명 많이 먹었으니 이거나 먹읍서.

해설 : 첫째와 둘째는 대가리와 꼬리를 푹푹 꺾어낭 어명에게 주고 살이 많은 쪽은 자신들이 우걱우걱 먹어수다. 셋째는 양쪽 끝을 꺾어 두고 예 살이 많은 쪽을 어명에게 드리명 말하였수다.

셋째아들 : (걱정하며) 어명, 우리 낳아서 키우려니 얼마나 공이 들었수까? 앞으로 살면 몇 해나 살꺼우까? 하영 드십써.

가문장아기 : (밖에서 소리를 엿 들으며) 저 중에 쓸만한 사름은 막내밖에 없저.

가문장아기 : (할망에게 부탁하며) 저기 술을 빌려도 되쿠가?

할망 : 기여

해설 : 가문장아기는 흰쌀밥을 떠서 한상차려수다.

가문장아기 : (상을 보여주며) 할명 이것 호끔 드십써?

할망 : 조상대에도 안 먹었던 것을 어명 먹느니?

가문장아기 : (첫째와 둘째를 보며) 이것 좀 먹으쿠과?

첫째와 둘째 : (화를 내며) 벌레처럼 생긴 것을 어찌 먹으랜 햄수과?

셋째 : (얼른 받으며) 그럼 제가 먹으쿠다.

해설 : 가문장아기와 셋째아들은 부부가 되어수다.

다음 날

가문장아기 : (기분 좋은 목소리로) 마 파던 곳에 구경 가게마썸.

셋째 아들 : (기뻐하며) 그럼시다. 혼변 잣당 오십시다.

해설 : 둘이서 다정하게 들판으로 나갔수다. 첫째 아들이 파던 곳에 가 보았수다.

가문장아기 : (손으로 코를 가리며) 여긴 무사 영 똥이 가득이우과?

셋째 아들 : (당황한 목소리로) 잘 모르쿠다.

셋째 아들 : (둘째형님이 판 곳을 가리키며) 우리 둘째 형님 판 곳에 가보게마썸.

가문장아기 : 여기는 지네와 뱀들이 무사 영 우글거렘수과?

셋째 아들 : (또 당황하며) 요번에도 모르쿠다.

셋째 아들 : (자기가 판 곳을 가리키며) 요번엔 제가 판 곳으로 가 봅시다.

가문장아기 : 이것은 자갈을 던져 쌓아놓은 것들입니까?

셋째 아들 : 자갈처럼 생긴 것들을 던져서 쌓아놓은 것이우다.

가문장아기 : 혼변 닭아봐도 되쿠과?

셋째 아들 : 고치 닭읍썸.

해설 : 가문장아기와 셋째 아들은 자갈을 닭아 보았수다.

셋째 아들 : 무사 영 금빛, 은빛이 남지? 금과 은 같은 것 같수다.

가문장아기 : 이거 팔아 보게마썸.

셋째 아들 : 검은 암소에 실어서 팔아봅시다.

해설 : 가문장아기와 셋째 아들은 금과 은을 팔앙 큰 부자가 되어수다.

장면 4 : 부모 찾으러 거지잔치를 연 가문장아기

이웃주민 : (가문장아기에게) 저기 마을에 두 거지부부가 사는데 그 사람들이
눈이 멀어 불고 해부난 얻어먹영 다닌덴 햄수다. 아이고 거 불쌍헨
어떻헨꺼라?

가문장아기 : (놀라는 표정과 목소리로) 그게 정말이우과?

이웃주민 : 아이고, 그럼. 정말이고 말고.

해설 : 그날 밤, 가문장아기와 그녀의 남편과 의논을 해수다.

가문장아기 : (진지한 목소리로) 여보, 우리 부모님들이 다른 집에서 음식을 막
얻어 먹으며 살고 있단 험수다. 저는 부모님을 찾아 봐야 할 것
같수다.

남편 : 알아수다. 경허민 백일 거지잔치를 엽시다. 경허민 당신 부모님들도 거
기 오지 않으쿠과?

가문장아기 : (좋아하는 표정과 목소리로) 그거 좋은 생각이우다. 경허민 내일
모레랑 거지잔치를 엽시다.

해설 : 그 후 가문장아기와 그녀의 남편은 거지잔치를 열어수다.

거지1 : (기쁜 목소리로 박수를 한번치고) 아이고, 이게 뭇일이라? 뭇 잔치를
열엄시나?

거지2 : (맞장구 치며) 게만 말이주. 뭇 우리 혼티는 좋은 거 아니라?

거지1 : (고개를 끄덕이며) 경허긴 호주. 게문 후딱 뭇난거 먹으려 가주.

해설 : 한달이 지나곡, 두달이 지나부려수다. 경허디 가문장아기의 부모님은 나
타나지 알아수다. 잔치를 연지 백일이 되는 날 저녁무렵이어수다.

어멍 : (급한 목소리로) 여보, 혼저옵서. 잔치 끝날 것 같수다.

아방 : (바쁘게 가며) 알았지. 금방 가키여. 눈도 안보엿신디 당신은 어뭇 경
빨리 감서? 호쉴 기다리라.

가문장아기 : (기쁜 목소리로 작게 속삭이듯이) 아이고, 우리 어멍, 아병이 왔져.

거지부부 : 근디 무사 밥은 안 주엄 신고? 우린 여기서도 뭇얻어 먹을 팔자여.
글라 가게.

가문장아기 : 살아온 애기나 해봣써.

거지부부 : 그거 들영 뭇하쿠과. 우리 팔자가 너미 박복허영 들어도 하나도
도움 안뭇니다.

가문장아기 : 경해도 해봣써.

해설 : 거지부부는 그동안 살아온 애기를 해서. 경허당 가문장아기영, 은장아기
영, 뭇장아기 생각하뭇 막 울엿주게.

가문장아기 :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나가 가문장이우다. 무상 이추록 살아수
과. 눈도 떨곡.

거지부부 : 니가 가문장이라? 어디 보게. 우리 아기 어디보게.

해설 : 그때 거지부부의 눈이 팔롱 떠져수다. 은장아기영, 낫장아기 소식이 궁
금하우파. 둘도 다시 사람이 되영 부모 곁으로 돌아와수다.

마을사람들 : (노래 부르며) 거지부부 또시 눈뜨곡 또시 부자 되었져. 다 가
문장 덕이라. 가문장아기야, 우리도 부자 만들어주라.

<부록 3> 일반 본풀이 요약

마누라 본풀이 - 생불할망 이야기

생불할망이 생불을 주기 위해 서천강다리를 건너 네거리 있는 곳에 이르니, 생불
할망의 눈앞에 온갖 화려하게 꾸민 영기를 갖추고 삼만관속 및 육방하인을 거느
린 대별상신이 인물도감책을 가슴에 안고 아이들에게 호명을 주려고(마마를 앓게
하려고)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생불할망이 그 앞에 가서 공손하게 무릎을 꿇고 자기가 생불을 준 자손에게는
마마를 곱게 앓게 해 달라고 간절히 비니, 대별상신은 눈을 부릅뜨며 사물(邪物)
인 여자가 앞길을 막는다고 호령합니다. 그리고 생불할망이 생불을 준 자손들에
게는 마마를 심하게 앓도록 하여 얼굴을 뒤통박으로 만들어 버렸지요.

이에 화가 난 생불할망은 복수를 위해서 대별상신의 부인을 생불꽃으로 잉태시
키고 해복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출산을 못하여 죽어가게 되자 대별상신
은 할 수 없이 생불할망에게 와서 잘못을 빌고 그녀를 위해 서천강 연다리를 놓
아주니, 생불할망은 이 다리를 밟고 대별상신의 집으로 가 아이를 낳게 해주었답
니다.

지장 본풀이 - 지장아기 이야기

옛날 남산과 여산이 부부가 되어 사는데 자식이 없어 걱정이었어요. 영험 있는
절간을 찾아 기도를 하여 딸을 하나 낳게 되었는데, 이름을 지장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네 살 때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죽고, 다섯 살 때 아버지가, 여섯 살 때 어

머니가 죽었어요. 의지할 곳이 없는 지장은 팔자를 한탄하며 외삼촌댁으로 수양가게 되었는데, 외삼촌의 학대가 심하여 쫓겨나고 말았답니다. 그날부터 하늘의 봉새가 날아와 날개를 깔고 덮어 보호해 주었으며, 밥과 옷을 주어 키워 주었어요.

자라는 동안 지장이 착하다는 소문이 자자하였으며, 열다섯 살이 되어서는 서수왕 아들에게 청혼을 받아 혼인하였지요. 그해에 바로 아들을 낳았으나 열여섯 살 때 시할아버지·시할머니가 죽고, 열일곱 살 때 시아버지가, 열여덟 살 때 시어머니가 죽었으며, 열아홉 살 때에는 낭군과 아들마저 죽었어요. 지장은 팔자의 기구함을 한탄하며 지나가는 스님에게 점을 쳤는데, 스님은 생부모·시부모로부터 낭군·아들까지 천도(薦度)하는 곳을 하라고 하였지요.

그날부터 뽕나무를 심어 누에를 치고, 명주를 짜서 갖가지 폐백을 마련하고, 스님의 차림을 하여 집집마다 돌면서 쌀을 얻어 모아 여러 가지 제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큰곳을 벌여 아들까지 모두 천도시켰으며, 지장이 죽어 갈 때는 새의 몸으로 환생하였어요. 이 새가 바로 사로서 사람에게 범접하여 질병과 재앙을 주는 것이라 합니다.

초공 본풀이 - 본맹두 · 신맹두 · 삼맹두 이야기

옛날 임정국 대감과 김진국 부인 부부가 늦게까지 자식이 없어 탄식하다가 큰 절에 시주를 하고 백일 불공을 드렸는데, 시주가 약간 모자란 탓으로 딸아기를 낳았어요. 딸아기 자지맹왕 아기씨가 15세 되는 해에 부모가 타지로 벼슬살이를 떠나게 되었지요. 딸은 데리고 갈 수가 없으므로 방 안에 가두어 문을 잠그고, 중에게 문구명으로 밥과 옷을 주며 키우도록 당부하고 집을 떠났어요.

이 때 황금산 도단 땅 절의 중들 사이에 자지맹왕 아기씨한테 가서 시주를 받아 오는 자에게는 상금을 준다는 이야기가 돌았답니다. 그러자 주자선생이라는 중이 자원하고 나섰습니다. 주자선생은 자지맹왕 아기씨 집에 와서 요령을 흔들어 잠긴 방문을 열고 아기씨를 나오게 하여 직접 시주를 받은 뒤, 아기씨 머리를 세 번 쓸어 주었어요. 이상히 여긴 아기씨는 중의 고깔과 장삼 자락을 신표로 꿰어 두었답니다.

그 뒤 아기씨는 나날이 몸이 달라졌어요. 딸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온 부모는 딸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노하여 내쫓았지 뭐예요. 딸은 갖은 고생을 하며 여러 가지 험한 다리를 건너 남편인 주자선생을 찾아갔어요. 주자선생은 신표를 보고 부인임을 인정하였으나, 중은 부부 생활을 할 수 없으므로 따로 집을 지어 살게 하였어요. 자지맹왕 아기씨는 얼마 뒤인 9월 8일에 맏아들을, 다시 18일에는 둘째 아들을, 28일에는 막내아들을 겨드랑이로 낳고, 각각 ‘본맹두’·‘신맹두’·‘삼맹

두'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삼 형제는 자라서 서당에서 글공부를 하는데, 양반의 자식들에게 갖은 학대를 받는답니다. 그러나 참고 공부를 마쳐 양반의 자식들과 함께 과거를 보러 갔지요. 삼 형제만이 과거에 급제하였는데, 양반의 자식들이 중의 자식을 과거에 합격시켜 주었다고 항의하자 과거 급제가 취소되었어요. 또한, 양반의 자식들은 삼 형제가 앞으로든 과거 응시를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지맹왕 아기씨를 감금하여 놓았어요.

삼 형제는 어머니를 찾기 위하여 과거를 포기하고 아버지를 찾아가요. 아버지는 신칼·산판 등 무구를 내어 주며, 어머니를 살려 내려면 곳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어요. 삼 형제는 악기의 신 '너사메너도령'과 의형제를 맺어 북·장구·징 등 악기를 만들고 곳을 시작하여 어머니를 살려 내고, 신칼로 양반들에게 복수하였답니다.

이공 본풀이 - 서천 꽃밭을 차지한 할락궁이

옛날 임진국과 김진국이 한마을에 살았다. 임진국은 천하 거부로 잘살고, 김진국은 몹시 가난하게 살았다. 둘이는 40세가 지나도록 자식이 없어 탄식하다가 동개남 절당에 백일 불공을 드려서 김진국은 아들을 낳고, 임진국은 딸을 낳았다. 김진국의 아들은 사라도령이라 이름을 짓고, 임진국의 딸은 원강아미라 이름을 지었다.

사라도령과 원강아미는 자라서 부부가 되었다. 얼마 뒤 원강아미는 태기가 있어, 몇 달이 지나면서 몸이 점점 무거워 갔다. 이때 옥황상제한테서 서천 꽃밭의 꽃감관 벼슬을 하러 오라는 전갈이 사라도령에게 내려왔다. 사라도령이 출발하려는데 부인 원강아미가 따라가기를 원하므로 부부가 같이 서천 꽃밭을 향하여 먼 길을 떠났다.

서천 꽃밭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해서 며칠을 걸어도 끝이 없었다. 부인은 다리가 아파 더 걸을 수 없게 되자, 자기를 종으로 팔아 두고 가라고 하였다. 이에 재인장자의 집에 가서 부인은 300냥, 뱃속의 아이는 100냥을 받고 종으로 팔았다. 만일 아들을 낳으면 '할락궁이', 딸을 낳으면 '할락댁이'라 이름을 지으라 하고, 열레빳을 반으로 꺾어 한쪽을 부인에게 신표로 남기고 사라도령은 혼자 서천 꽃밭으로 떠났다.

그날부터 원강아미는 종살이를 시작하였는데, 밤이 되자 재인장자가 방문을 두드렸다. 원강아미는 아기를 낳은 뒤에야 동침하는 법이라고 하여 모면하였으며, 그 뒤 아들을 낳게 되어 할락궁이라 이름을 지었다.

다시 재인장자가 찾아들었으나 번번이 거절하자, 재인장자는 원강아미와 할락궁

이에게 갇은 고역을 시켜냈다. 할락궁이는 그제야 자신의 아버지는 재인장자가 아니라 꽃감관임을 알게 되었으며, 어머니에게서 얼레빗 한쪽을 받아 서천 꽃밭으로 길을 떠났다.

얼레빗을 맞추어 본 꽃감관은 자기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너의 어머니는 네가 도망쳐 나오자 흑형을 받아 재인장자한테 죽었으니 원수를 갚으라.”고 하며 웃음 웃을 꽃·싸움 싸움 꽃·멸망악심꽃·환생꽃을 꺾어 주었다.

할락궁이는 그 꽃을 가지고 와서 재인장자의 친족들을 다 모아 놓고 꽃을 뿌렸다. 웃음판이 벌어지고, 싸움판이 벌어지고, 모두 죽어 멸망하였다. 그런 뒤 어머니의 시체를 찾아 환생꽃을 뿌려 살려내고 모자가 서천 꽃밭으로 가서 아버지의 꽃감관 벼슬을 물려받아 서천 꽃밭을 차지하게 되었다

삼공 본풀이 - 가른장 아기 이야기

옛날 강이영성이라는 사내 거지는 윗마을에 살고, 홍은소천이라는 여자 거지는 아랫마을에 살았다. 두 거지는 마을을 찾아 얻어먹으러 가다가 길에서 만나 부부가 되었다. 거지 부부는 얼마 있다가 딸을 낳았다. 딸의 이름을 은장아기라 지었다. 거지부부의 살림은 조금 나아지고, 다시 딸을 낳았다. 둘째 딸의 이름을 늦장아기라 지었다. 다시 막내딸을 낳고 가른장아기라 이름을 지었다.

가른장아기를 낳자, 하는 일마다 운이 터져 거지 부부는 거부가 되었다. 거지 부부는 태평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호강에 겨워 딸들의 효심이나 시험해 보기로 하였다. 큰딸과 둘째 딸은 부모님 덕에 잘산다고 효심을 나타냈다. 그런데 막내딸 가른장아기는 “부모님 덕도 있지만, 내 배꼽 밑의 선그릇(배꼽에서부터 음부 쪽으로 내리그어진 선) 덕에 잘산다.”고 대답하여 불효하다는 이유로 쫓겨났다.

집에서 쫓겨난 막내딸은 들판을 가다가 마를 파는 마통이 삼 형제를 만나 그들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다. 마통이 삼 형제의 마음씨를 보니, 큰마통이와 둘째 마통이는 사납고, 막내 마통이는 착했다. 가른장아기는 막내 마통이와 부부가 되어 마를 파먹고 사는데, 마 파던 구덩이에서 금덩이와 은덩이가 쏟아져 나와 일약 거부가 되었다.

한편, 가른장아기를 내쫓은 부모는 갑자기 장님이 되고 재산을 탕진하여 다시 거지가 되었다. 부모가 장님 거지가 된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가른장아기는 남편과의 의논하여 거지들을 위해 백 일 동안 잔치를 열어 부모를 찾기로 하였다.

팔도의 거지들이 다 모여드는데, 맨 마지막 날에 장님 거지 부부가 찾아 들어왔다. 그 부부가 자신의 부모라는 것을 안 가른장아기는 장님 거지 부부를 안방으로 모셔 앉히고 술을 권하며 자기가 가른장아기임을 알렸다. 부부는 그 말에 깜짝 놀라며 받아든 술잔을 덜렁 떨어뜨렸고 그 순간 눈이 밝아졌다.

맹감 본풀이 - 사만이 이야기

옛날 주년국 땅에 소사만이가 매우 가난하게 살았다. 결혼하여 자식은 태어나고, 부인이 바느질 품팔이로 끼니를 이어가는데, 살림은 더욱 곤궁하였다. 어느 날 부인은 머리를 묶어 남편에게 주며 장에 가 팔아 아이들 먹을 쌀이나 사 오라고 하였다.

사만이는 장에 가 머리를 팔아 석 냥을 받고 쌀을 사러 다니다가 조충을 하나 샀다. 이것으로 사냥을 하면 쌀도 나오고 돈도 나온다는 장사꾼의 말에 솔깃해서 사 온 것이다. 부인의 꾸중을 들으면서 사만이는 사냥을 나갔으나, 며칠이 되어도 빈손으로 돌아왔다.

어느 날 사만이는 들판을 헤매다가 백년 해골을 발견하고, 이것이 자기 집안 조상이 아닌가 하여 집으로 모셔다가 위하기 시작하였다. 그로부터 사냥이 잘 되어 사만이는 금방 부자가 되었다.

사만이가 서른 세 살이 되던 해, 어느 밤 꿈에 백년 해골이 백발 노장으로 나타나서 “너는 서른 세 살로 정명이 다 되어 3차사가 잡으러 오고 있으니, 관디 셋, 띠 셋, 신발 셋과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 세거릿길에 가서 정성을 드리고, 집에서는 큰굿을 해야 액을 막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었다.

그대로 차려 얹드려 있었더니, 과연 3차사가 내려왔다. 배가 고프니 3차사는 우선 음식을 먹고, 신발을 갈아 신고, 관디와 띠를 갈아 메고는 그 주인을 찾았다. 사만이가 주인임을 안 3차사는 사만의 집에 와서 굿 정성까지 받고 나니 사만을 잡아갈 수가 없었다.

3차사는 하는 수 없이 그냥 돌아가 ‘사만이 정명 삼십(三十)’이라 쓰여 있는 저승 문서의 열 십(十)자에 한 획을 비껴 그어 일천 천(千)자를 만들어 놓았다. 이리하여 사만이는 삼천 년을 잘 살았다 한다. 이전(異傳)에는 저승 문서의 정명을 고치고, 소사만이 대신 이름이 같은 유사만이 또는 오사만을 잡아갔다고도 한다.

차사 본풀이 - 강림차사 이야기

옛날 동경국 버무왕이 아들 칠 형제를 낳았는데, 사 형제는 팔자가 좋았고, 삼 형제는 팔자가 나빴다. 그 때 동관음절의 대사중이 죽음에 임하여 소사중에게 “버무왕 아들 삼 형제의 정명이 15세이니, 법당에 데려다 불공을 드려 연명시켜 주라.”고 하였다.

장사를 마친 소사중은 버무왕에게 가서 그 뜻을 전하고 삼 형제를 데려가 불공을 시작하였다. 3년간의 불공을 마치자, 불현듯 고향이 그리워진 삼 형제는 부모님을 뵙고 오겠다고 애원하였다.

소사중은 “과양 땅을 조심하라.”는 당부를 하고, 가지고 온 명주와 비단을 짚어지워 보냈다. 승복 차림을 한 삼 형제는 과양 땅까지 내려오자, 갑자기 배가 고파 더 걸을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과양생의 집에 가서 식은 밥이나 얻어먹고 가기로 하여 들어갔다.

그러나 과양생의 처는 명주·비단을 보자 욕심이 나서 삼 형제를 청하여 술을 먹여 취하게 하고, 참기름을 끓여 귀에 부어 삼 형제를 죽이고 주천강 연못에 수장(水葬)하였다.

7일 후 동정을 살피러 가 보았더니, 연못에 꽃 세 송이가 떠 있었다. 과양생의 처는 그 꽃을 꺾어다 걸어 놓고 보다가 불태우자 이번에는 구슬 세 알로 변하였다. 과양생의 처는 구슬이 예뻐 입에 넣고 굴리다가 삼켰는데, 그 뒤 임신하여 아들 삼 형제를 낳았다. 아들 삼 형제는 자라 과거에 급제하고 돌아왔는데, 문신에게 고사를 지내다가 일시에 죽고 말았다.

과양생의 처는 이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김치 원님에게 소지를 계속 올렸다. 김치 원님은 염라대왕만이 이 사건을 처결할 수 있겠다 하고, 마누라 열여덟을 데리고 사는 똑똑한 강림사령에게 염라대왕을 잡아오도록 하였다.

강림은 큰 부인의 정성으로 문신과 조왕신의 도움을 받아 멀고 험한 저승길을 헤쳐 나가 행기못가에 이르렀다. 눈을 질끈 감고 행기못에 뛰어들었는데, 정신을 차려 보니 저승문 앞에 닿아 있었다.

그곳에서 기다리다가 염라대왕의 행차가 당도하자 달려들어 염라대왕을 잡아 묶었더니, 염라대왕은 강림에게 먼저 가 있으면 어느 날 몇 시에 스스로 가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강림은 오라를 풀고 행기못을 거쳐 이승으로 돌아와 큰부인을 만났다.

강림이 저승에 갔다 오는 데 3일이 걸렸는데, 큰 부인은 대상을 지내고 첫 제사를 하고 있었다. 저승의 하루가 이승의 1년이다. 부부는 만단정회를 나누고 염라대왕을 기다렸다.

과연 약속한 시간이 되자,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와 함께 염라대왕이 내려왔다. 염라대왕은 주천강 연못의 물을 마르게 하고, 삼 형제의 뼈를 모아 놓고 살려 내어 부모에게 돌려보내고, 과양생의 부부를 처형하여 사건을 처결하였다.

그리고는 김치 원님더러 강림을 빌려 주면 저승에 데려가서 심부름을 시키겠다고 하였다. 김치 원님이 거절하자, 영혼과 육신을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하고, 염라대왕이 강림의 영혼을 데리고 가 버리니 강림은 그 자리에서 죽어 버렸다. 이렇게 하여 강림은 염라대왕 밑에 가서 이승의 사람을 잡아가는 차사가 되었다.

세경 본풀이 - 자청비 이야기

김진국과 조진국 부부가 혼인 후 30년이 넘도록 자식이 없다가 불공을 올려 자청비라는 딸을 얻는다. 자청비가 빨래를 하러 나갔다가 천상국의 문도령을 만나게 된다.

서로 사랑을 나누었으나 문도령 부모의 반대로 헤어지게 된다. 자청비가 머슴인 정수남이를 데리고 문도령을 찾아나섰다가 정수남이의 폭행에서 벗어나려고 머슴을 죽인다. 이 일이 빌미가 되어 자청비는 집에서 쫓겨난다. 자청비는 천신만고 끝에 문도령의 부모를 만나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드디어 문도령과 부부의 인연을 맺는다.

그런데 이를 시기한 불한당이 문도령을 살해한다. 이에 자청비는 남장을 하고 서천꽃밭 꽃감관 막내딸의 사위가 되어 환생꽃을 얻어와 문도령을 살린다. 문도령에게 서천국의 막내딸을 돌보아 주고 오라는 부탁을 했는데, 기한이 넘어도 문도령은 오지 않는다.

기다리다 못해 사연을 올리니 이에 문도령이 다급하게 돌아온다. 자청비가 옥황인 문선왕께 사연을 아뢰었으나 문선왕은 문도령을 두둔한다. 마침내 문선왕의 배려로 자청비는 상세경, 문도령은 중세경, 정수남이는 하세경에 봉하여진다.

문전 본풀이 - 일곱 형제 이야기

옛날 옛적 남선고을의 남선비와 여산고을의 여산부인이 부부가 되어 살았다. 집안은 가난하여 살림이 궁한데, 아들이 일곱이나 태어났다. 여산부인은 살아갈 궁리를 하다가 남편에게 무곡(貿穀)장사를 하도록 권유하였다. 남선비는 부인의 말대로 배 한 척을 마련하여 남선고을을 떠났다.

배는 오동나라에 닿았는데, 오동나라 오동고을에는 간악하기로 소문난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있었다. 귀일의 딸은 남선비의 소식을 듣고 선창가로 달려와 남선비를 유혹하였다.

그 홀림에 빠진 남선비는 귀일의 딸과 둘이서 장기관을 벌여 놓고 내기를 시작하였다. 하루 이틀 지나면서 남선비는 타고 간 배도 팔고, 쌀을 살 돈도 모조리 빼앗겼다. 갈 수도 올 수도 없는 신세가 된 그는 귀일의 딸을 첩으로 삼아 끼니를 얻어먹었다.

새살림이 시작되었는데, 집이라고는 나무 돌쩌귀에 거적문을 단, 수수깡 외기둥의 움막이 전부였다. 이 집에서 남선비가 하는 일이란 첩이 끓여준 겨죽 단지를 옆에 끼고 앉아 개를 쫓다가 꾸벅꾸벅 조는 것이었다. 이런 생활을 이어가니 몇 해 안 가서 눈까지 어두워져 버렸다.

한편, 여산부인은 남편이 돈을 벌어 돌아오기를 기다렸으나 소식이 없자, 아들들을 불러 배를 한 척 지어 주면 아버지를 찾아오겠다고 하였다. 아들들이 배를 지어 내놓으니, 여산부인은 남편을 찾아 오동나라로 떠났다.

배가 오동나라에 닿자, 여산부인은 오동나라의 이곳 저곳을 찾아 헤매다가 기장 밭에서 새 쫓는 아이의 도움으로 남편을 찾았다. 남편은 과연 나무 들쪼귀에 거적문을 단 움막에 앉아 겨죽을 먹으며 살고 있었다. 부인이 하루 저녁 재워 달라고 사정하며 움막으로 들어갔으나, 눈이 어두운 남선비는 부인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하루 저녁 목을 허락을 받고 움막에 들어간 여산부인은 겨죽이 늘어붙은 술을 씻고 쌀밥을 지었다. 말끔히 상을 차려 남선비에게 들여가니, 남선비는 첫 술을 뜨고는 자신도 여산부인과 살 때는 이런 쌀밥도 먹어 보았다고 탄식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여산부인이 신원을 밝히자 남선비는 부인의 손목을 잡고 만단정회를 나누었다.

이윽고 귀일의 딸이 들어와서 야단을 치다가 본처가 찾아온 것을 알고는 어리광을 부려가며 큰 부인 대접을 하였다. 날이 더우니 목욕이나 하고 와서 놀자며 여산부인을 뽀 귀일의 딸은 목욕을 하러 가서 등을 밀어 주는 척하다가 여산부인을 물속으로 밀어 넣어 죽였다. 그리고는 큰 부인인 체하여 남선비에게 돌아와서는,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행실이 패썹하여 죽었다.”고 하였다.

이 말을 끝이들은 남편은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하였다. 남선비와 귀일의 딸은 남선고를로 향하였다. 마중 나온 일곱 형제가 보니, 어머니가 아무래도 본어머니 같지가 않았다. 앞장서서 집으로 가는 어머니가 길을 몰라 이리저리 헤매고, 집으로 들어가서도 살림이 전과 같지 않았다. 아들들의 의심은 날로 깊어갔다.

아들들의 의심을 눈치 챈 귀일의 딸은 일곱 형제를 죽일 계락을 꾸몄다. 배가 아파 죽어 가는 시늉을 하면서, 당황해하는 남편에게 점을 치라고 하였다. 점을 치러 남편이 나가니, 귀일의 딸은 지름길로 달려가 기다리다가 점쟁이인 척하면서, 일곱 형제의 간을 내어 먹어야 낫는다고 하였다.

부인을 사랑하는 남편은 “아들이야 다시 낳으면 된다.”는 부인의 말을 듣고 칼을 갈았다. 이것을 알아차린 똑똑한 막내아들이 아버지 대신 형들의 간을 내어 오겠다 하고는 칼을 가지고 형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갔다.

도중에 지쳐 잠을 자는데, 어머니의 영혼이 꿈에 나타나 노루의 간을 내어가라고 가르쳐 주었다.

잠을 깨니 과연 새끼 노루 일곱 마리가 내려오고 있었다. 여섯 마리를 잡아 간을 내고 계모에게 가져갔다. 계모는 먹는 체하며 간을 자리 밑으로 숨겼다. 문틈으로 엿보던 막내아들이 들어가 자리를 걷어치우자, 형들도 왈칫 집으로 달려들었다.

흉계가 만천하에 드러나자,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측간으로 도망가 목을 매고 죽

어 측간신 측도부인(廁道婦人)이 되었고, 남선비는 달아나다 정낭(집의 출입구에 대문 대신 걸쳐 놓는 굵은 막대기)에 목이 걸려 죽어, 주목지신(柱木之神)이 되었다. 일곱 형제는 서천꽃밭에 가서 환생꽃을 얻어다가 물에 빠져 죽은 어머니를 살려 조왕신으로 앉혔다.

그런 뒤, 일곱 형제는 각각 자기의 직분을 차지하여 신이 되었다. 첫째는 동방청대장군, 둘째는 서방백대장군, 셋째는 남방적대장군, 넷째는 북방흑대장군, 다섯째는 중앙황대장군, 여섯째는 뒷문전(뒷문의 신), 영리한 막내는 일문전(앞쪽 문신)이 각각 되었다.

칠성 본풀이

옛날 장나라 장설룡 대감과 송나라 송설룡 부인이 부부가 되어 살았다. 집안은 유족하나 자식이 없어 걱정하다가 큰 절간에(혹은 북두칠원성군에게) 기도를 하고 딸 하나를 낳았다.

이 딸이 일곱 살 되던 해에 벼슬살이를 떠나게 된 부부는 딸을 방 안에 가두고 종에게 보살피도록 하였다. 어린 딸은 부모가 그리워 살창 틈으로 빠져나와 부모를 찾아 헤매다가 중의 보호를 받아 같이 지내게 되었다.

한편, 딸의 가출을 안 부모가 돌아와 탄식을 하는데, 어느 날 중이 딸을 데려왔다. 딸은 이미 중의 자식을 임신하고 있었다. 부모는 집안의 수치라 하여 딸을 돌함에 담아 바다에 띄워 버렸다. 돌함은 바다를 떠돌아다니다가 제주도의 조천읍 함덕리 바닷가에 떠올랐다.

이때 마침 작업하러 나가던 해녀들이 돌함을 발견하고, 무슨 보물인가 하여 열어 보았더니 뱀 여덟 마리가 기어 나왔다.

임신한 딸이 뱀 일곱 마리를 낳고, 자신도 뱀으로 변신한 것이다. 해녀들은 더러운 짐승이라고 집어던지고 갔는데, 그 날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하였다.

점을 쳐 보았더니, “외국에서 온 신을 확대한 죄 때문이니 굿을 하라.” 하므로, 굿을 하고 위하였더니 병이 낫고 일시에 부자가 되었다.

함덕리에서 여러 해 모심을 받던 이 신들은 제주성 안으로 들어와야 더 우대받으리라 생각하고 제주성 안으로 들어오니, 칠성골 송대정(宋大靜) 현감의 부인이 집으로 모셔 가 위하였다. 이 집안이 크게 부자가 되고 현감 벼슬까지 났다.

이 집안에서 여러 해 우대받던 이 신들은 이 집안도 거의 다 되어 감을 알고, 각각 갈라져 얻어먹을 곳을 찾아가기로 하였다.

의논 끝에 큰딸은 추수할머니로, 둘째 딸은 이방·형방 차지로, 셋째 딸은 옥(獄)지기로, 넷째 딸은 과원(果園)할머니로, 다섯째 딸은 창고지기로, 여섯째 딸은 관청할머니로, 막내딸은 밭칠성으로 가고, 어머니는 안칠성이 되어 갔다.